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SUNG KYUN KWAN UNIVERSITY

碩士學位 請求論文

指導敎授 尹 仁 石

근대 이후 제주도 건축에 표현된 지역성에 관한 연구

- 비 주거건축물을 중심으로

成均館大學校 一般 大學院

建 築 學 科

韓 東 五

SUNG KYUN KWAN UNIVERSITY

碩士學位 請求論文

指導敎授 尹 仁 石

근대 이후 제주도 건축에 표현된 지역성에 관한 연구

- 비 주거건축물을 중심으로

The study on the regional characteristic expressed in Jeju island buildings since the modern age

- Centering around the not-residential building

成均館大學校 一般 大學院

建 築 學 科

韓 東 五

SUNG KYUN KWAN UNIVERSITY

SUNG KYUN KWAN UNIVERSITY

碩士學位 請求論文

指導敎授 尹 仁 石

근대 이후 제주도 건축에 표현된 지역성에 관한 연구

- 비 주거건축물을 중심으로

The study on the regional characteristic expressed in Jeju island buildings since the modern age

- Centering around the not-residential building

이 論文을 建築學 碩士學位請求論文으로 提出합니다.

2007 年 10 月 日

成均館大學校 一般 大學院

建 築 學 科

韓 東 五

SUNG KYUN KWAN UNIVERSITY

SUNG KYUN KWAN UNIVERSITY

이 論文을 韓東五의 建築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認定함.

2007 年 12 月

審査委員長 李 相 海

審査委員

審査委員 尹 仁石

SUNG KYUN KWAN UNIVERSITY

SUNG KYUN KWAN UNIVERSITY

- 목 차 -

Ⅰ.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

Ⅱ. 이론적 고찰 ----- **11**

1. 모더니즘 건축의 한계와 문제점 그리고 현대건축 ----- 14

1.1 계몽주의 ----- 14

1.2 산업혁명 ----- 15

1.3 국제주의 양식 ----- 16

1.4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 18

2. 지역주의 건축의 전개 ----- 21

2.1 기디온(S. Giedion)의 새로운 지역주의(New Regionalism) ----- 21

2.2 람푸나니(M. Lampugnani)의 지역주의(Regionalism) ----- 22

2.3 커티스(William J. R. Curtis)의 지역주의(Regionalism) ----- 24

2.4 비평적 지역주의(Critical Regionalism) ----- 25

3. 문헌을 통한 국내·외 지역주의 건축의 사례조사 ----- 27

3.1 국내 ----- 27

3.1.1 이희태 ----- 28

3.1.2 김중업 ----- 30

3.1.3 김수근 ----- 32

3.2 국외 ----- 35

3.2.1 알바 알토 (Alvar Aalto) ----- 35

SUNG KYUN KWAN UNIVERSITY

3.2.2 찰스 꼬레아(Charles Correa) ····· 37

Ⅲ. 제주도 건축에서 지역성 표현의 요소 ····· 39

1. 지역성의 개념이해 ····· 41

2. 제주성 형성의 주요 인자 ····· 43

2.1 자연환경에 따른 특징 ····· 43

2.1.1 지형 및 지세 ····· 43

2.2 인문·사회 환경 ····· 46

2.2.1 풍습 ····· 46

2.2.2 여성의 섬 ····· 51

3. 제주도 건축의 지역성 요소 ····· 53

3.1 민가의 고찰을 통한 지역성 표현 요소 ····· 53

3.1.1 배치방식 ····· 54

3.1.2 의장 ····· 56

3.1.3 높이 ····· 61

3.1.4 오브제에 의한 표현 ····· 62

3.1.5 바람 ····· 66

4. 제주도 건축에서 지역성 표현의 요소 정리 ····· 71

Ⅳ. 제주성 표현 요소를 통한 건축물 분석 ····· 75

1. 분석의 방법 ····· 77

2. 대상 건축물 선정 ····· 80

3. 종합분석표를 통한 분석 ····· 87

3.1 종합분석 ····· 87

3.2 요소별 현황 분석 ····· 90

SUNG KYUN KWAN UNIVERSITY

3.2.1 배치방식 ····· 90
3.2.2 개념 해석 ····· 91
3.2.3 외벽의 특성 ····· 93
3.2.4 지붕의 특성 ····· 94
3.2.5 오브제 ····· 95
3.2.6 환경표현 ····· 96
3.2.7 높이 ····· 97
3.3 시기별 지역성표현 양상의 현황 및 분석 ····· 97
3.3.1 1950년대 ····· 98
3.3.2 1960년대 ····· 100
3.3.3 1970년대 ····· 101
3.3.4 1980년대 ····· 103
3.3.4 1990년대 ····· 105
3.3.5 2000년대 이후 ····· 109
3.4 제주도 사회의 변화와 지역성 ····· 116
3.4.1 1950년대 제주도의 사회와 지역성 ····· 117
3.4.2 1960년대 제주도의 사회와 지역성 ····· 118
3.4.3 1970년대 제주도의 사회와 지역성 ····· 119
3.4.4 1980년대 제주도의 사회와 지역성 ····· 121
3.4.5 1990년대 제주도의 사회와 지역성 ····· 122
3.4.6 2000년 이후 제주도의 사회와 지역성 ····· 122
Ⅳ. 결론 ····· **125**

▶ 참고 문헌 ····· **131**

SUNG KYUN KWAN UNIVERSITY

▶ 부 록 ----------139
부록 - 1 : 근대 이후 세워진 제주도의 비 주거건축물 목록 ---------- 142
부록 - 2 : 대상건축물에 대한 분석 및 건축정보 ---------- 149

▶ ABSTRACT ----------207

SUNG KYUN KWAN UNIVERSITY

- 표 목 차 -

[표 1-1] 연구 흐름도 ····· 9
[표 2-1] 순교 복자 기념관(절두산 성당) ····· 29
[표 2-2] 국립극장 ····· 30
[표 2-3] 주한 프랑스 대사관 ····· 31
[표 2-4] 한국미술관 ····· 32
[표 2-5] 문예회관 ····· 33
[표 2-6] 청주박물관 ····· 34
[표 2-7] 지역주의 건축의 특성-국내 사례 ····· 34
[표 2-8] 빌라 마이레아 ····· 36
[표 2-9] 무라찰로의 여름별장 ····· 36
[표 2-10] 칸잔중카 아파트 ····· 37
[표 2-11] 벨라푸르 집합주택 ····· 38
[표 2-12] 지역주의 건축의 특성-국외 사례 ····· 38
[표 3-1] 관광객 수 ····· 45
[표 3-2] 제주도 상징물 ····· 45
[표 3-3] 제주도와 전국의 성비 비교 ····· 51
[표 3-4] 제주도의 연령별 성비 추세 ····· 52
[표 3-5] 올래를 통한 진입에 따른 시각변화 ····· 55
[표 3-6] 제주의 돌과 문화 ····· 59
[표 3-7] 제주도의 지역성 ····· 71
[표 3-8] 제주도 건축에서 지역성표현의 요소 ····· 72
[표 4-1] 지역성 분석의 틀 ····· 77

SUNG KYUN KWAN UNIVERSITY

[표 4-2] 제주도 건축의 지역성 분석 틀 ····· 78
[표 4-3] 연구 대상 건축물 ····· 81
[표 4-4] 시·군 분포 현황 분류 ····· 83
[표 4-5] 건립연대 유형별 분류 ····· 83
[표 4-6] 유형 및 건립연대 현황 ····· 83
[표 4-7] 건립연대 및 구조 유형별 분류 ····· 83
[표 4-8] 종합분석표 ····· 85
[표 4-9] 시기별 개념 해석 ····· 90
[표 4-10] 1950년대 대상건축물 목록 ····· 97
[표 4-11] 1950년대 주요건축물 ····· 97
[표 4-12] 1960년대 대상건축물 목록 ····· 98
[표 4-13] 1960년대 주요건축물 ····· 99
[표 4-14] 1970년대 대상건축물 목록 ····· 99
[표 4-15] 1970년대 주요건축물 ····· 100
[표 4-16] 1980년대 대상건축물 목록 ····· 101
[표 4-17] 1980년대 주요건축물-1 ····· 102
[표 4-18] 1980년대 주요건축물-2 ····· 103
[표 4-19] 1990년대 대상건축물 목록 ····· 103
[표 4-20] 1990년대 주요건축물-1 ····· 105
[표 4-21] 1990년대 주요건축물-2 ····· 106
[표 4-22] 1990년대 주요건축물-3 ····· 106
[표 4-23] 1990년대 주요건축물-4 ····· 107
[표 4-24] 2000년대 이후 대상건축물 목록 ····· 107
[표 4-25] 2000년 이후 주요건축물 ····· 109
[표 4-26] 지역성 표현요소의 절대값 ····· 109

SUNG KYUN KWAN UNIVERSITY

- 그 림 목 차 -

[그림 1-1] 제주도의 정책과 이미지 ····· 4
[그림 1-2] 동아시아 삼국 및 제주도 근·현대 시기구분 ····· 6
[그림 2-1] Pruitt-Igoe Housing ····· 13
[그림 2-2] 원시 오두막 ····· 15
[그림 2-3] 도미노 구조 ····· 17
[그림 2-4] 메종 시트로엥 ····· 18
[그림 2-5] 포틀랜드 빌딩 ····· 20
[그림 2-6] 기디온의 새로운 지역주의 ····· 21
[그림 2-7] 사그라다 파빌리아 ····· 22
[그림 2-8] 람푸나니의 지역주의 특징 ····· 23
[그림 2-9] 커티스의 지역주의 특징 ····· 25
[그림 3-1] 지역성의 개념도 ····· 41
[그림 3-2] 지역성형성 개념도 ····· 42
[그림 3-3] 해안가을 따라 분포된 마을 ····· 44
[그림 3-4] 제주도 고도에 따른 식물분포도 ····· 44
[그림 3-5] Karman Vortex 개념도와 일기도 ····· 46
[그림 3-6] 제주도의 가족제도 개념도 ····· 49
[그림 3-7] 장자(장남)의 분가를 통해 본 제주도의 가족제도 개념도 ····· 50
[그림 3-8] 김만덕 초상화 ····· 51
[그림 3-9] 제주도 건축의 지역성 표현 요소 형성과정 개념도 ····· 53
[그림 3-10] 제주도 전통 주거의 일반적인 배치 스케치 ····· 54
[그림 3-11] 제주도 초가의 고삿매기 ····· 57

SUNG KYUN KWAN UNIVERSITY

[그림 3-12] 울릉도의 우데기 ····· 57
[그림 3-13] 제주도 전통 민가의 단면 ····· 57
[그림 3-14] 현무암 ····· 59
[그림 3-15] 송이 ····· 60
[그림 3-16] 제주도 전통민가 단면도 ····· 61
[그림 3-17] 방사탑과 기호 ····· 63
[그림 3-18] 연대와 기호 ····· 64
[그림 3-19] 만다라의 상징 ····· 65
[그림 3-20] 오름과 기호 ····· 65
[그림 3-21] 제주도 건축에서 지역성 표현의 요소 개념도 ····· 73
[그림 4-1] 분석 프로세스(process) ····· 77
[그림 4-2] 종합분석 그래프 ····· 87
[그림 4-3] 관습에 의한 배치 방식 그래프 ····· 88
[그림 4-4] 자연에 대한 순응으로서 배치 그래프 ····· 89
[그림 4-5] 개념 해석 그래프 ····· 90
[그림 4-6] 외벽의 특성 그래프 ····· 91
[그림 4-7] 지붕의 특성 그래프 ····· 92
[그림 4-8] 오브제의 표현 그래프 ····· 93
[그림 4-9] 환경표현 그래프 ····· 94
[그림 4-10] 높이표현 그래프 ····· 95
[그림 4-11] 시기별 건축물의 수 그래프 ····· 95
[그림 4-12] 늘 ····· 101
[그림 4-15] 테우 ····· 108
[그림 4-16] 1950년대 지역성 표현요소의 절대값 그래프 ····· 111
[그림 4-17] 1960년대 지역성 표현요소의 절대값 그래프 ····· 112

SUNG KYUN KWAN UNIVERSITY

[그림 4-18] 1970년대 지역성 표현요소의 절대값 그래프 ····· 112
[그림 4-19] 1980년대 지역성 표현요소의 절대값 그래프 ····· 113
[그림 4-20] 1990년대 지역성 표현요소의 절대값 그래프 ····· 113
[그림 4-21] 2000년 이후 지역성 표현요소의 절대값 그래프 ····· 114
[그림 4-22] 시기별 종합 그래프 ····· 115

SUNG KYUN KWAN UNIVERSITY

SUNG KYUN KWAN UNIVERSITY

▶ 논문요약

SUNG KYUN KWAN UNIVERSITY

SUNG KYUN KWAN UNIVERSITY

근대 이후 제주도 건축에 표현된 지역성에 관한 연구

- 비 주거건축물을 중심으로

제주도는 지리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특성도 육지와 다르다. 오래전부터 제주도는 「신들의 고향」, 「전설의 고향」, 「민속의 보고」, 「한국의 낙원」, 「당 오백 절 오백」,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로」 등으로 제주도의 이미지가 대변되어 왔다. 그리고 요즘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 등이 그러한 육지와 다른 특성을 갖는다.

이처럼 지리적 특성은 제주도 건축이 구축되는 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고, 사회적인 특성은 앞으로 제주도 건축이 구축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제주도가 추구하는 국제자유도시의 정책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발위주의 계획이 제주의 지역성 결여의 문제점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다양한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고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의 범위를 근대 이후 비 주거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도 지역성의 표현 특성을 찾고 근대 이후 제주도의 비 주거건축을 중심으로 비 주거건축물에 나타난 제주성의 표현 특성을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더불어 앞으로 건축되는 건축물에 제주성이 살아있는 건축 계획·실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수 있게 하는데 또 다른 목적이 있다.

연구를 통해 밝혀낸 제주성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 배치 방식이다. 배치방식은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제주도 전통민가의 배치방식을 차용하거나 재해석하여 배치하는 방법이며 나머지 하나는 제주도의 주변(자연)환경에 순응하여 배치하는 방법이다.

둘째, 개념 해석이다. 개념 해석은 제주의 자연환경이나 관습, 전통민가의 배치방

SUNG KYUN KWAN UNIVERSITY

식 등을 모티브로 작가의 상상력 혹은 합리적인 설계 프로세스를 통해 재해석하여 건축적으로 표현한 방법이다.

셋째, 외벽의 특성이다. 외벽의 특성은 외벽의 의장적 표현방법, 특히 재료와 전통민가의 입면 특성을 건축가의 재해석을 통한 표현 방법을 뜻한다.

넷째, 지붕의 특성이다. 지붕의 특성은 지붕의 재료와 지붕이 자연(특히, 비와 바람을 말함.)에 효과적인 대응 형태를 표현한 방법을 뜻한다.

다섯째, 오브제이다. 오브제는 제주도의 전통 상징물들을 통한 건축의 오브제화를 얘기한다.

여섯째, 환경표현이다. 환경표현은 바람에 대한 대응방법이 형태적 공간적으로 어떻게 해석하여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일곱째, 높이이다. 높이는 스케일에 관한 사항으로 가로에 대한 세로의 높이를 얘기한다.

이 사항들을 통해 제주도 건축 문화의 지속 가능한 정체성을 이룰 수 있는 제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위 사항들이 지역성 요소의 시각적 혹은 직설적 해석 보다는 그 속에 담긴 제주도민의 혼과 정신, 삶의 지혜(본질)를 표현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지역주의 , 근대건축 , 제주성 , 제주성 표현의 특성 , 비 주거건축물

SUNG KYUN KWAN UNIVERSITY

Ⅰ. 서론

SUNG KYUN KWAN UNIVERSITY

SUNG KYUN KWAN UNIVERSITY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어떤 사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성되기도 소멸하기도 한다. 때로는 현 시대의 사회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 시기 혹은 몇 시기 전 사상을 참고하기도 한다. 지역주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모더니즘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사상 중 하나로 나타난다.

지역주의의 근본이념인 지역성은 한국에서는 「한국성」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1960년대 말부터 나타난다. 그러나 1970년대 「새마을 운동」과 같은 경제발전의 정책은 지역의 성격을 획일화한다. 이러한 정책은 또 다시 모더니즘의 문제점과 비슷한 상황으로 치닫는다. 이후 다시 한국성에 대한 논의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한국성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된다. 제주도의 지역주의도 육지의 그것과 비슷한 상황을 맞으나 그 특성은 조금 다르게 진행되며 현재까지 맥을 이어온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육지와는 다른 독특한 성격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성격은 제주도의 건축이 구축되는 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다. 조선시대의 제주도 건축만 보더라도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당시의 건축물은 육지와는 달리 건축물의 길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이가 낮았다. 이는 세차게 부는 바람 때문에 건물의 높이를 높이면 지붕이 날아갈 우려에서 비롯된다. 또한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므로 지붕 경사의 기울기가 육지의 그것보다 가파르다. 그로 인해 많은 양의 비가 빨리 지면으로 떨어질 수 있게 하였다.



[그림 1-1] 제주도의 정책과 이미지

제주도는 지리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그림 1-1]에서 보이는 것처럼 사회적인 특성도 육지

SUNG KYUN KWAN UNIVERSITY

와 다르다. 오래전부터 제주도는 「신들의 고향」, 「전설의 고향」, 「민속의 보고」, 「한국의 낙원」, 「당 오백 절 오백」,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로」 등으로 제주도의 이미지가 대변되어 왔다. 그리고 요즘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 등이 그러한 육지와 다른 특성을 갖는다.

2006년 7월 1일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는 21세기 제주 비전인 「국제자유도시」건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행정체제이다. 이런 변화는 현재 외국인 소유 땅, 1가구 2주택 종과세 면제 등 국제적인 관광 휴양지와 물류 요충지로 탈바꿈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2007년부터 서귀포 지역은 「혁신도시」개발을 실시하고 있다. 혁신도시 개발이 완료될 경우 서귀포 지역은 지방도시의 개발 중심지, 핵심거주지, 명품도시로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2008년부터는 「제주영어마을」 조성 사업을 실시해 잠재 수요 상승 기대 및 제주 균형 발전 정책에 따른 시너지현상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지리적 특성은 제주도 건축이 구축되는 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고, 사회적인 특성은 앞으로 제주도 건축이 구축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제주도가 추구하는 국제자유도시의 정책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발위주의 계획이 제주의 지역성 결여의 문제점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과 사회적 특성 속에서 제주도 지역성의 표현 특성을 찾고 근대 이후 제주도의 비 주거건축을 중심으로 비 주거건축물에 나타난 제주성의 표현 특성을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더불어 앞으로 건축되는 건축물에 제주성이 살아있는 건축 계획·실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수 있게 하는데 또 다른 목적이 있다.

SUNG KYUN KWAN UNIVERSITY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논문의 목적은 제주도 정책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건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것의 해결 방안 혹은 해결 방안의 방향성 제시로 지역성을 들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기적으로 현재 혹은 현대와 가장 긴밀한 근대부터 살펴봄이 옳다고 사료된다. 왜냐하면, 「근대」라는 시기의 큰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지역성은 육지의 그것과는 달리 그 맥을 꾸준히 이어왔기 때문이다.

동양에서 근대를 정의 내리기는 힘들다. 근대의 개념은 사회변화에 의해 발생한 서양의 개념이기 때문에 동양의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동양에서 근대는 서양 혹은 외국문물과 본격적으로 접촉하는 시점으로 보는 것이 통상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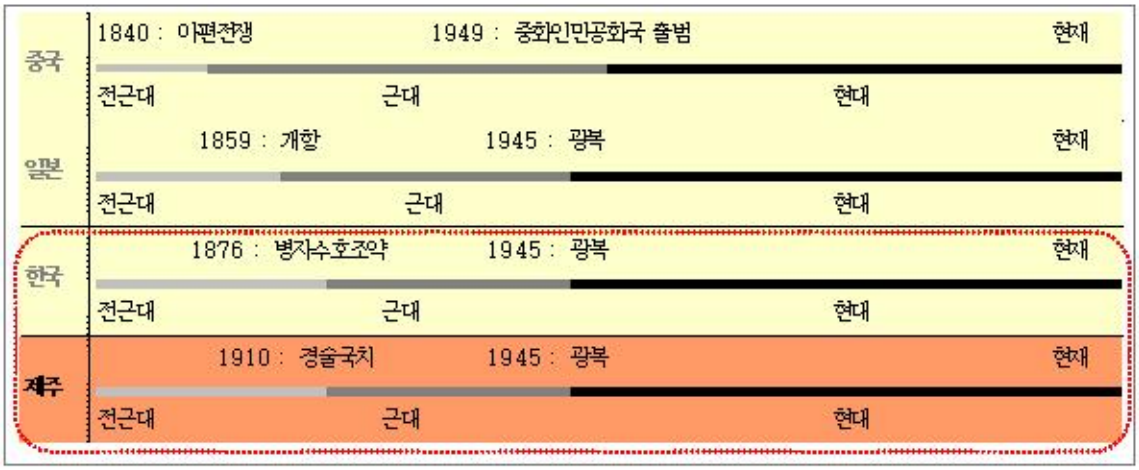
중국의 근대시기는 1840년 아편전쟁(阿片戰爭)을 시점으로 하여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기점까지로 하고 일본의 경우는 1859년 개항으로부터 1949년까지를 기점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현대 시기는 각 시기 이후로 보고 있다.[1] 한국인 경우도 외국문물과 접촉 하는 시기인 1876년 병자수호조약(丙子修好條約)을 본격적으로 근대시기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그때 지어진 건축을 근대건축이라 한다.

제주도에서 근대는 연구 성과나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근대의 시점을 정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다. 때문에 근대(近代)를 정의하거나 근대건축(近代建築)」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앞서 서술한 근대시기 정의의 논리를 따르면 제주도에 외국문물이 처음 들어온 시점이 1910년 경술국치(庚戌國恥)에 의한 것이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제주도의 근대는 1910년 이후로 볼 수 있다. 또한 그때의 건축을 근대건축이라 정의한다.[2][그림 1-2][3]

---

1) 정순영, 「한국 근·현대건축에 나타난 전통표현에 관한 고찰」,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1998, p.12~13.
2) 탐라대학교 교수 「양상호」의 의견을 참고로 서술하였다.
3) 정순영, 「한국 근·현대건축에 나타난 전통표현에 관한 고찰」,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1998, p.12의 [표 2-2]를 참고로 재구성함.

SUNG KYUN KWAN UNIVERSITY



[그림 1-2] 동양 삼국 및 제주도 근·현대 시기구분

제주도의 비 주거건축물은 근대시기 일본인에 의해 1920년대 중반부터 지어져 현재에 이른다. 이시기에 지어진 건축물들은 전 세계적으로 역사나 전통, 풍토 등 지역성의 고려는 등한시 되었다. 이 시기의 제주도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 지역성을 나타내는 건축을 찾기란 어렵다. 그러나 1923년에 건설된 「제주측후소」가 외벽을 현무암 쌓기를 했다는 기록이 있어 그래도 입면에서 만큼 재료를 통해 그 명맥을 이어왔다. 1950년대 이후부터는 학교건물 등에서 지역성을 나타내는 건축물이 지어진다.

본 연구 진행에 참고하기 위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연세대학교, 제주도 건축사회,「제주 건축, 제2집, 제주도 주거건축의 향토성에 관한 연구-2」, 제주 : 제주건축사회, 1992

· 제주도 건축사회, 연세대학교,「제주도 주거건축의 향토성에 관한 연구」, 제주 : 제주도건축사회 서울 : 연세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1992

· 김정훈, 「제주사적 측면에서 본 제주건축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

SUNG KYUN KWAN UNIVERSITY

구」, 제주대학교 산업대학원: 건설환경공학과 석사논문, 1999

·강연진, 「전통민가를 중심으로 살펴본 제주도 건축의 지역성과 그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과학기술대학원 석사논문, 2000

·한성원,「제주도 현대건축에서 나타나는 지역적 특성사례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논문, 2006

·김태일 외, 「제주인의 삶과 주거공간」,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7

·이광진, 「건축의 지역성과 그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 : 이타미 준의 포도호텔을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7

위의 선행연구들은 모두가 단어는 조금씩 다르지만 제주도 건축의 지역성에 관한 연구이다. 한성원과 김정훈, 강연진의 논문 외에는 대부분 주거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경향과 한 건축가와 그의 작품에 관한연구이다. 그러나 한성원과 김정훈의 논문은 사례 연구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지역성이 건축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관한 표면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다. 강연진의 논문은 필자의 연구흐름에서 지역성 표현 요소를 도출하는 과정은 비슷하지만 지역성 표현 특성 추출과 분석의 방법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제주도 건축의 지역성에 관한 다양한 연구의 필요성으로 비 주거건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범위를 근대 이후 현재까지 현존하는 비 주거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다음 [표1-1]에서 보이는 것처럼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Ⅰ장은 서론이며 문제제기 및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범위, 방법을 제시한다. Ⅱ장은 예비적 고찰로서 모더니즘 건축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후 등장하게 되는 현대건축에서 지역주의 건축이 등장한 배경을 설명한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지역주의 건축의 전개과정과 지역주의 건축의 국·내외 사례를 살펴본다. Ⅲ장은 지역성의 개념 이해 및 제주도 지역성에 관한 고찰을 하고 건축에서 지역성에 관한 표현요소를 정

SUNG KYUN KWAN UNIVERSITY

리한다. Ⅳ장은 이렇게 전개된 과정에서 지역성 표현요소를 대상건축물에 적용·분석한다. Ⅴ장은 결론으로 지금까지 연구한 내용을 요약한다. 그리하여 지역성의 특성이 국제자유도시로 거듭나는 제주도의 사회적 배경 속에서 가지는 의의와 가능성을 진단한다.

SUNG KYUN KWAN UNIVERSITY

[표 1-1] 연구 흐름도

서 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문제제기 : 근대 이후 제주도 건축에 나타난 지역성 표현요소 규명의 필요성

이론적 고찰

자역성의 개념 이해		답 사1
기존 연구문헌 분석	+	기존자료 목록화
지역주의 건축 국내외 사례조사		현지조사를 통한 1차 자료수집

제주도 건축에서 지역성 표현 요소

제주도의 지역성 고찰

자연환경 : 지형, 지세, 기후 등

인문사회 환경 : 풍습, 가족제도, 신화 등

+

2차 자료조사

문헌조사 : 건축전문지, 근대 건축문화유산 조사보고서, 설계사무실 포트폴리오 등

답 사2 : 건축상 수상작, 근대 건축문화유산 등

↓

제주도 건축의 지역성 표현 요소

1	2	3	4	5	6	7
배치 방식	개념 해석	외벽 특성	지붕 특성	오브제	환경 표현	높이

지역성 표현 요소를 통한 분석

분석의 방법 설정

↓

대상건축물 선정

↓

분석 : 제주도 건축의 지역성 표현요소

↓

대상건축물 분석 결과

결론

제주도 건축의 방향성 제언

SUNG KYUN KWAN UNIVERSITY

SUNG KYUN KWAN UNIVERSITY

Ⅱ. 이론적 고찰

SUNG KYUN KWAN UNIVERSITY

SUNG KYUN KWAN UNIVERSITY

지역주의는 모더니즘이 수면에 떠오른 이후 줄곧 비난의 대상이 되어왔는데 그 이유는 모더니즘이 지역의 기후, 구조, 전통에 대해서 비판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지역주의는 모더니즘 사후[4] 포스트모더니즘을 거치면서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다. 찰스 젠크스는 자신의 저서인 「The Language of Post-modern Architecture」에서 모더니즘 건축의 사후에 대해 언급한다. 그는 이 책에서 C.I.A.M.에 의해 가장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상에 따라서 건설되었고 미국 건축가 협회로부터 상을 받은 푸르이트 이고에(Pruitt-Igoe Housing)[5]가 붕괴됨을 시작으로 모더니즘의 죽음을 언급한다.[그림2-1]



[그림 2-1] 미노루 야마사끼, 「Pruitt-Igoe Housing」, 세인트 루이스, 1952-1955

그러나 현대사회의 다원론적 입장에서 포스트모더니즘도 그리 긴 시간을 현대건축의 주요 언어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 장에서는 모더니즘 사후 지역주의가 수면위로 다시 떠오르게 되는 일련의 과

4) Charles Jencks, 송종석외 공역, 「현대 포스트모던 건축의 언어(The Langauge of Post-Mbdern Architecture)」, 태림문화사, 1991, p.11.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모던 건축이 붕괴되었던 시기를 분까지 정확히 알 수 있다. 뇌파의 죽음이냐, 맥박의 죽음이냐의 복잡한 문제가 되고 있는 인간의 합법적 죽음과는 달리 모던 건축은 커다란 굉음과 함께 사라져 버렸다.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고 아무도 슬퍼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해도, 갑작스런 사멸은 분명한 사실이었으며 많은 디자이너들이 아직도 생명의 입김을 불어넣고 있지만, 그렇다고 다시 기적적으로 소생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렇다. 모던건축은 Jane Jacobs와 같은 비평가에 의해 10여 년 동안이나 철저하게 비난받아 점점 관심을 잃어 가다가, 1972년에 결국에는 완전히 끝나버렸다. 그래서 소위 모던 건축가라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마치 모던 건축이 살아 있는 양 거래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시대의 가장 기이한 현상 중의 하나이다.」

5) Charles Jencks, 송종석외 공역, 위의 책, p.11.
이 계획안중 몇 개의 슬래브 블록이 사용자들에 의해 끊임없이 파괴되어지다가 결국 1972년에 당국에 의해 철거되어졌다. 범죄율이 다른 개발 계획에 비해 더 높았으며, Oscar Newman은 그의 저서 「Defensible Space」에서 이런 현상을 긴 복도와 개성 없는 무명성「Anonymity」 그리고 통제된 준 사적(Semi-Private)공간의 결여에 기인한다고 간주했다. 또 다른 요인 : 이 계획은 거주자들의 건축적 코드와는 다른 순수주의적 언어로 디자인 되었다.

SUNG KYUN KWAN UNIVERSITY

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근대 이후부터 케네스 프램톤에 의한 비평적 지역주의가 나타나게 된 배경과 프램톤에 의해 대표되는 지역주의 건축가와 그들의 작품을 살펴봄으로 지역주의와 지역주의 건축에 나타난 지역성의 개념을 알아본다.

Ⅰ. 모더니즘 건축의 한계와 문제점 그리고 현대건축

1.1 계몽주의

하버머스는 근대성 개념의 역사를 5세기 후반까지 거슬러 올라가 검토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근대를 의미하는 modernus(바로지금)라는 라틴어 형태의 표현은 공식적으로 기독교가 된 현재를 과거 이교도의 로마와 구분하기 위해 이 시기에 처음으로 사용됐다고 한다. 근대성 개념이 5세기로 거슬러 올라갈지라도 하버머스는 프랑스 계몽주의 사상 출현 이후에 근대성 개념에 야기된 근본적인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6]

17세기 후반에 시작된 계몽주의는 특히 18세기 중엽에 프랑스에서 전성기를 맞이한다. 신보다 인간의 이성에 의해 의식이 형성되어야한다는 사상이다. 근대의 기본 개념이 되는 계몽사상은 이후 프랑스뿐만아니라 서구에 고대로부터 이어져온 문화적 맥락 즉, 사상이나 신념, 관습, 행동양식 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시대의 과학은 인간 사고에 의해 증명되던 고대 과학과는 달리 실증주의를 바탕으로 합리성을 추구한다. 따라서 계몽주의자들은 과학과 예술을 통해 자연의 지배, 세계나 자아에 대한 이해, 도덕적 진보, 진정한 사회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인간의 행복을 촉진할 수 있었다고 믿는다.[7]

---

6) 김경일, 「한국의 근대와 근대성」, 백산서당, 2003, pp.12~13.
7) 천진우, 「지역주의 건축의 근대성표현 기법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6, p.5.

SUNG KYUN KWAN UNIVERSITY

당시의 건축이론가 로지에(Marc-Antoine Laugier)는 「건축에 관한 수필,1753」을 통해 계몽주의 건축이론을 선보이면서 건축의 합리성에 대한 기초를 제공한다.



[그림 2-2] 로지에, 「원시 오두막」, 1753

로지에가 활동하던 당시는 로코코(Rococo) 건축이 건축의 흐름을 주도하던 시기이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 그가 주장하고자 하였던 것은 이 시기의 주류를 이르고 있었던 로코코 건축양식의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경향과 무비판적으로 이전 건축가들을 따르려고 하는 경향에 반하여 보편적 원칙을 찾고자 하는 것으로 건축의 「제 1원칙(First principle)」, 즉 하나의 「확고한 원칙(Firm principle)」을 얻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는 당시의 사회적, 사상적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요구되고 있었던 것으로 당시의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저속한 삶에 대한 반작용, 합당한 원칙을 찾고자 하는 경향 등과 맞아떨어지는 것이었다.[8]

또한 로지에는 「원시 오두막(Primitive hut)」 개념을 통해 건축의 본질은 자연 상태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그림 2-2]

즉, 원시 오두막의 형태는 로코코 건축의 특징인 화려한 장식적 건축보다 실용적,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훗날 르 꼬르뷔제와 알도로시가 주장하는 유형학(Typology)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1.2 산업혁명

8) 한형욱, 「근·현대 건축에 있어 표상의 위기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9, p.82.

SUNG KYUN KWAN UNIVERSITY

공업화에 의한 대량생산을 가능케 한 산업혁명[9]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인 측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며 인류 역사에 큰 획을 긋는다. 또한 산업혁명에 의한 교통의 발달은 세계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면서 시간의 개념이 변하게 되고 통신의 발달은 새로운 공간창출의 계기가 된다.

그러나 산업혁명은 양면성을 갖는다. 경제성장과 교통·통신의 발달과 같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도시의 인구집중은 도시문제를 낳는다. 급증하는 도시의 인구 변화는 주택난을 일으키고 무분별하게 지어지는 건축물은 장소성과 지역성 상실이라는 문제점을 낳는다.

1.3 국제주의 양식

산업혁명에 의한 교통의 발달은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교두보 역할을 한다. 즉, 세계화의 개념은 전 세계가 한 나라일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이러한 특징은 건축에도 나타나는데 그것이 국제주의 양식(international style)이다. 국제주의 양식은 어느 특정 지역이나 특정 국가보다는 국제적인 규모에서 건축의 이상향을 추구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주의 양식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던 한 국가의 전통이나 지역성, 장소성은 상대적으로 중심선 상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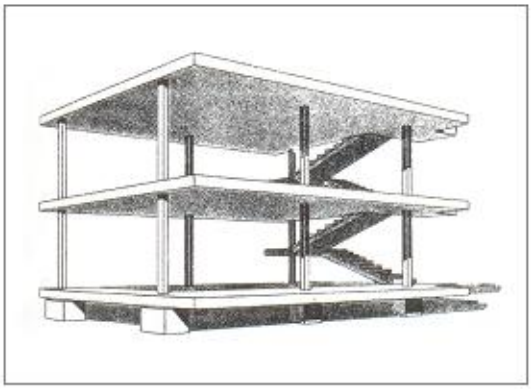
국제주의 양식은 C.I.A.M.(근대건축국제회의 : Congrès International d'Architecture Moderne)이 선구자적 역할을 함으로 점점 힘을 얻는다. C.I.A.M.은 르 꼬르뷔지에(Le Corbusier, 1887. 10. 6-1965. 8 .27)와 지그프리드 기디온(Sigfried

9)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은 유럽 제국(諸國), 미국·러시아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로 확산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산업혁명을 광의로 해석하여 농업중심사회에서 공업사회로의 이행이라고 보는 한 산업혁명은 인류 역사에서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 광의의 산업혁명은 흔히 공업화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이를 간단히 정의하기는 곤란하지만 물질적 재화의 생산에 무생물적 자원을 광범하게 이용하는 조직적 경제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업화의 기원을 18세기 산업혁명에서 구하지만, 산업혁명은 A.토인비가 말한 바와 같이 격변적이고 격렬한 현상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시작하여 온 점진적이고 연속적인 기술혁신의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지배적이다.

SUNG KYUN KWAN UNIVERSITY

Giedion, 1893-1968, 4, 9) 등이 주축이 되어 많은 활동을 한다. 그 중 1933년 C.I.A.M.를 통해 훗날 대중들에게 발표한 「아테네 헌장(Charte d'Athènes)」[10]은 도시계획의 방향성을 내세운 내용으로 C.I.A.M.의 활동 중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C.I.A.M.의 건축관은 보편성과 합리성을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각 지역의 전통이나 문화는 등한시 된다. 르 꼬르뷔제의 「집은 주거를 위한 기계다.(The house is a machine for living in)」[11]는 C.I.A.M.의 건축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문구이다. 이렇듯 C.I.A.M.의 주축이었던 르 꼬르뷔제가 설계한 많은 작품에는 C.I.A.M.의 건축관을 실현하기 위한 많은 요소들이 나타난다. 이러한 건축관은 훗날 젊은 세대로 구성된 TEAM X와 포스트 모더니즘 등에 비판의 대상이 된다.



[그림 2-3] 르 꼬르뷔지에, 도미노 구조, 19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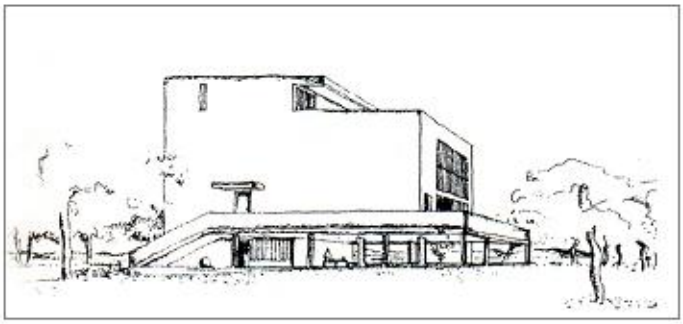
1910년에서 20년에 걸쳐서 르 꼬르뷔지에는 주택의 원형이 되는 모델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였다. 그 하나는 1914년에 생각해 낸 도미노로 바닥을 기둥으로 지지하는 형태(type)였다.[그림 2-3]

---

10) 1933년 아테네에서 근대건축국제회의(C.I.A.M : Congrès International d'Architecture Moderne)가 개최 되었다. 이 회의에서 도시 계획 헌장의 원칙들이 세워졌다. 그 8년 후인 1941년, 독일 점령하의 파리에서 「아테네 헌장(Charte d'Athènes)」이라는 제목의 익명의 저서가 독자에게 선을 보였다. 르 꼬르뷔지에가 이 책의 표지에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던 것은 그의 평판이 여기에서 주장되고 있는 사상들을 위태롭게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이었다.

11) 강현주 외, 「열두 줄의 20세기 디자인사」, 디자인하우스, 2004, p.63.
르 꼬르뷔지에는 20대 전반에 유럽 각지를 여행했다. 유럽의 도시를 연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기서 르 꼬르뷔지에를 사로잡은 것은 메트로폴리스였다. 건축가로서 본격적으로 활동한 1920년대 후반 「에스프리 누보(L'Esprit Nouveau)」를 사유의 근거지로 삼아 도시계획에 관한 많은 글들을 발표하고, 실제 건축 작품을 디자인해, 마침내 기능주의 건축의 전위로 우뚝 서게 되었다. 「집은 주거를 위한 기계(The house is a machine for living in)」라는 명제에 집약된 근대 기계미학이 이 시기의 모든 디자인에 두드러졌고, 이와 같은 건축론은 「새로운 건축을 향하여」「도시 계획(Urbanisme)」 같은 기념비적 저서에 잘 나타난 있다. 실제 작업은 주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페사크 주택단지(1926), 빌라 사보아(1930)등을 설계 했다.

SUNG KYUN KWAN UNIVERSITY



[그림 2-4] 르 꼬르뷔지에, 메종 시트로엥, 1920

이는 당시 유럽의 축조양식이 벽돌과 돌로써 벽을 세우거나 지붕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유럽건축에서는 획기적인 것이었다. 두 번째로는 1919년에 만든 모노롤이라 불리는 형태로 생선묵형의 지붕의 유닛(unit) 형태였다. 세 번째가 1922년에 만든 메종 시트로앙(Maison Citrohan)으로 이는 모노롤의 변형으로도 보이는 상자 갑 형태이다.[그림 2-4]

이들의 원형의 각각은 독립된 주거이다. 그러나 이를 종횡으로 연속시켜 연립시키면 집합주택이 되며, 이를 발전시키면 도시라는 커다란 집합체를 만들 수 있는 것이었다. 즉 꼬르뷔지에는 하나하나가 매우 명쾌하며 또한 이것이 주택의 원형을 만든 것이었다.[12)]

1.4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건축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용어는 찰스 젠크스에 의해 처음 사용된다. 이 장 서두에도 언급했지만, 그는 푸르이트 이고에의 붕괴는 모더니즘의 붕괴이고 포스트모더니즘의 도래를 뜻하는 것이라 얘기한다. 또한 프랑스의 철학 교수인 Jean Francois Lyotard는 「포스트모더니즘은 무엇인가?」라는 글에서 「포스트모던이란 모던에 의해 표상될 수 없는 것을 표상 그 자체로 나타내는 것이며, 도달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동경을 집단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좋은 형식의 즐거움이나 취미의 합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표상될 수 없는 것

12) 김승제, 박열 공저, 「근대 건축의 흐름」, 기문당, 2007, pp.153~154.

SUNG KYUN KWAN UNIVERSITY

의 보다 강력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새로운 표상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겠다.」고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포스트모더니즘은 다양하게 다루어지고 있어 사실상 한마디로 정의하기 힘든 사상임에 틀림이 없다.

포스트모더니즘은 현대사회의 다원론적 차원에서 자연히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는 현상인지도 모른다. 모더니즘이 엘리트, 부르주아, 무장식, 규격화, 대량화를 선호한다. 이에 반해 포스트모더니즘은 무장식에 대한 지루함, 부르주아라는 특정 계급보다는 대중에 대한 고찰, 모더니즘이 등한시한 전통에 대한 해석과 같은 특징이 힘을 얻는다. 즉, 1970년대 초반에 일기 시작한 포스트모더니즘은 새로운 접근 방식에 대한 「환호」를 뜻한다. 로버트 벤추리(Robert Venturi)와 마이클그레이브즈(Michael Graves)는 새로운 접근방식에 대한 찬양을 몸소 실현한 개척자들이다.

로버트 벤추리는 근대건축의 추종자들이 사회적 지원이나 경제적 필요와 상관없이 만들어 낸 멍청한 건물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 그는 소수의 엘리트 건축가들이 만들어낸 개별 건물과 도시 디자인 프로젝트의 전략들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였다. 그는 로마 대상 장학금을 받고 이탈리아를 2년간 체류하는 동안 고대와 르네상스의 경이로운 건축을 보고 건축 역사의 풍부한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벤추리의 모교인 프린스턴 대학은 예외이지만 당시 미국 대부분의 건축대학은 바우하우스에서 그로피우스의 선례를 따라 교과 과정에서 건축사연구를 제외하고 있었다. 벤추리는 바로 이 때문에 건축가들이 계속하여 모더니즘의 지루한 유리 상자와 권태로운 구조물에 집착한다고 설명하고 이를 건축가들의 엄청난 손실로 보았다. 그는 「정통적인 모더니즘 건축」에 반대하며 「분명한 일관성보다는 잡다한 생명력」을, 의미의 명료함 보다는 풍부함을, 그리고 자주 언급되는 경구를 빌자면 「이것 아니면 저것(either-or)」보다는 「둘 다(both-and)」를 찬양하였다.[13]

로버트 벤투리가 높이 평가한 건축적 사고가 잘 표현된 대부분의 사례는 1400년에서 1700년 사이의 이탈리아 건축에서 빌려온 것이다. 그의 첫 시도가 그의 어머

13) Diane Ghirado, 최왕돈 옮김, 「모더니즘 이후의 현대건축」, 시공사, 2002, p.19.

SUNG KYUN KWAN UNIVERSITY

니를 위해 디자인한 펜실베니아의 체스넛 힐에 있는 바나 벤추리 하우스(1964)이다. 이 건물은 복합성과 대립성을 고려하였다. 즉 이것은 다양하며 단순하고, 개방적이며 폐쇄적이고, 크면서 작다. 몇몇 요소는 어떤 의미로는 적절하나 어떤 의미로는 부적절하다. 전체로는 집에 있어야할 요소를, 부분으로는 특별한 요소를 포함한다. 이것은 하나의 모티브에 준한 소수 또는 다수의 부분으로 이루어지는 쉬운 통일보다는 몇몇 흐트러진 부분으로 이루어지는 복잡한 통일을 얻어 냈다.[14]

마이클 그레이브즈는 포틀랜드 빌딩을 통해 새로운 접근방식을 시도한다. 그는 이 빌딩에서 공공건물의 상징적인 의미 표현을 위해서 서양 전통건축물의 고전적인 3단 구성 기법을 사용한다. 즉, 기단, 몸체, 그리고 상층부인 머리로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포틀랜드 빌딩의 파사드는 전체적으로 오더를 상징하는 듯하다. 기단 위에 올려진 두 개의 기둥은 둥글지는 않지만 플루팅이 그대로 보이고 기둥 상부는 마치 도릭 오더의 주두를 연상케 한다. 그리고 상층부의 작은 집들은 마치 그리스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의 신전들을 옮겨 놓은 듯하다. 또한 기단부의 긴 회랑은 스토아의 회랑을 떠오르게 한다.[그림 2-5]



[그림 2-5] 마이클 그레이브즈, 「포틀랜드 빌딩」, 오레곤, 1980

이처럼 로버트 벤추리와 마이클 그레이브즈를 비롯 한 포스트모더니즘 건축가들은 건축에서 익숙한 요소 혹은 고전적인 요소들을 자신들의 건축 작품에 표상 하여

14) Robert Venturi, 임창복 옮김, 「건축의 복합성과 대립성(Complex and Contradiction in Architecture)」, 동녘, 2004, p.2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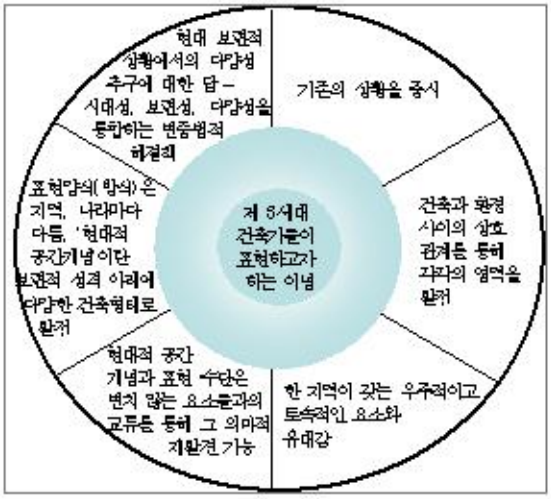
SUNG KYUN KWAN UNIVERSITY

보여준다. 그런 모습을 통해 모더니즘의 교조적이며 엘리트적인 건축문화와는 다른 포스트모더니즘만의 건축문화를 열기 위한 시도를 하고 이러한 시도는 모더니즘 사후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에게 찬양받는다.

2. 지역주의 건축의 전개

2.1 기디온(S. Giedion)의 새로운 지역주의(New Regionalism)

기디온은 제 3세대 건축가들을 분류하여 그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이념(理念)에 대해 기존의 상황을 중시하여, 건축과 환경 사이의 상호 관계를 통해 각각의 영역을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을 주장한다. 이는 현대의 새로운 지역주의적 경향을 일컫는 것으로 한 지역이 갖는 우주적이고 토속적인 요소와 유대감을 가져야 하고, 현대적 공간 개념과 표현 수단은 변치 않는 요소들과의 교류를 통해 그 의미적 재발견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또한 표현양식(방식)은 지역, 나라마다 서로 다른 양상을 띠고 「현대적 공간 개념」이란 보편적 성격 아래에 다양한 건축 형태로 발전되는 밑거름이 된다는 것이다. 새로운 지역주의는 현대 보편적 상황에서의 다양성 추구에 대한 해답으로 시대성, 보편성, 다양성을 통합해 변증법적 해결책을 보인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15][그림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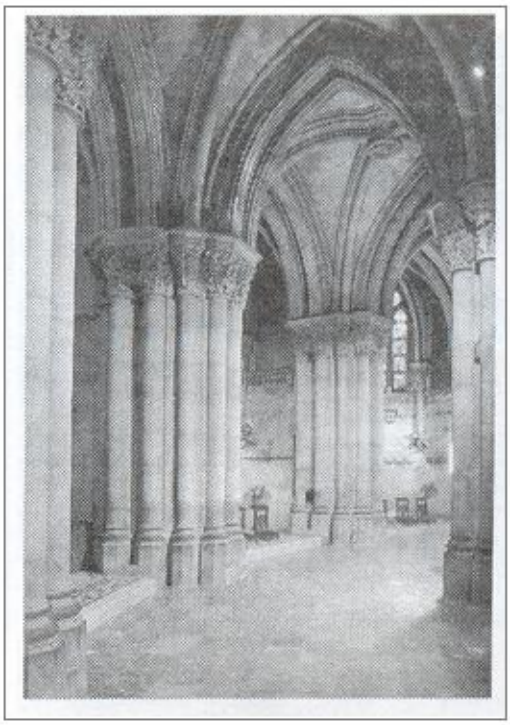


[그림 2-6] 기디온의 새로운 지역주의

SUNG KYUN KWAN UNIVERSITY

2.2 람푸나니(M. Lampugnani)의 지역주의(Regionalism)

지역주의 혹은 지역성의 개념은 19세기 중엽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소위 낭만적 지역주의라고 일컬어지면서 형성된다. 이시기의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생성되는 시대 고유의 양식이 아닌 지역적 전통과 과거적 양식에 대한 측면을 강조하고 있었으며, 건축가들은 자신들의 건축을 성립시키는 풍토적·문화적 전통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다. 스페인의 안토니오 가우디와 스코틀랜드의 글라스고에 매킨토시 네덜란드에는 암스테르담파로 불리는 건축 그리고 핀란드에는 엘리엘 사리넨이 각각의 지역·문화적 전통에 의한 동질성을 바탕으로 건축을 하였다. 특히 안토니오 가우디는 스페인 건축에 있어서 중세 형태의 은유적 변형과 옛 신화의 지적인 해석 그리고 지역 풍경의 기억들을 자신의 건축에 반영하였다. 가우디는 바로셀로나와 그 주변 지역은 스페인이 아닌 지중해의 일부이며, 문화에 있어서는 아랍과 아프리카의 영향 또한 인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그의 문화적 독자성은 작품 속에서 까딸로니아 지역의 구조적 원형과 벽돌과 도기를 이용한 건설 기술과 바로셀로나의 전통계승 방식으로 나타난다. 1884년에 건설되기 시작된 사그라다 파빌리아에서 보이는 블록하고 오목한 형태의 볼트구조는 특유의 까딸로니아 보르에 내화성



[그림 2-7] 안토니오 가우디, 「사그라다 파빌리아」 내부, 바로셀로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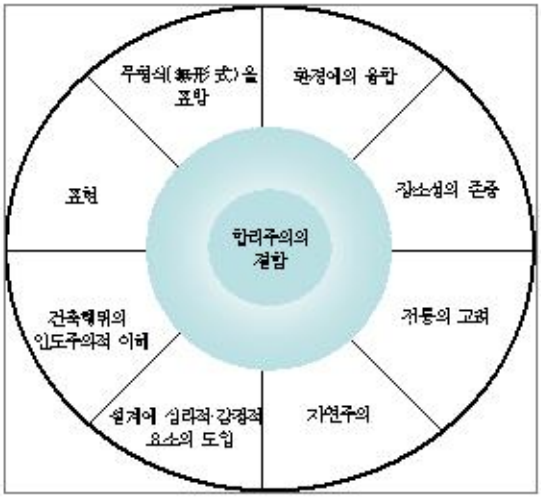
15) 이민, 「위의 책」, p.17.

SUNG KYUN KWAN UNIVERSITY

을 위해 철근콘크리트와 결합되어 바로셀로나 지역의 산업건축물에 쓰인 볼트구조의 연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그림 2-7]

그러나 이러한 동질성은 국적과 항상 일치하지 않는 것이며, 문화적 영역 또는 국가영역 내에서 항상 일치하지 않는 것이었다.[16] 이것이 오늘날 말하는 지역주의와 다른 것이다. 현대에 와서는 전통과 문화, 풍토 등의 지역성을 대변하는 언어들은 깊이 있게 다뤄지면서 건축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된다.

제 2차 세계대전 직후 1945년에서 1960년 사이 현재까지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후기 합리주의, 지역주의, 경험주의, 신표현주의 운동은 생성되기도 하고 서로 중첩되기도 한다. 그런 상황에서 현대의 지역주의는 지역에 관한 전통의 의미를 수용하여 합리주의의 결함을 다음과 같이 보완하고자 했다.



[그림 2-8] 람푸나니의 지역주의 특징

환경에의 융합, 장소성의 존중, 전통의 고려, 자연주의, 설계에 심리적·감정적 요소의 도입, 건축행위의 인도주의적 이해, 표현, 그리고 무형식(無形式)을 표방하는 건축 등이 그것이다.[그림 2-8]

지역주의 운동 속에서, 지역적이고 관습적인 건축방법은 보다 다양한 형태, 보다 나은 이해, 더욱 강한 전통의 참조, 그리고 보다 깊은 정서적 효과 등을 만들어내려는 목표를 고려하게 되었다.

비록 경험주의나 신 표현주의에도 나타나지만 지역주의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6) 김승제, 「위의 책」, pp.38~40.

SUNG KYUN KWAN UNIVERSITY

첫째, 건물이 주의 깊게 주변경관 속에 배치된다. 그 위치와 조형은 의도적으로 선택된 것이다. 왜냐하면 그 형태와 장소성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 그 규모는 「인간적」척도에 의한 것이다. 기념비성을 피하기 위해서 대규모 건축은 더 작은 단위로 구분된다.

셋째, 건축 재료는 자연의 것이다. 즉, 벽돌, 자연석, 나무 등이다. 철강이나 크롬, 대리석, 그리고 큰 유리판과 같은 「고귀한」재료는 피한다.

넷째, 건설방법이나 구조의 세부표현은 수공(手工)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따라서 단순·소박한 것이 많다. 공업제품은 일반적으로 거부된다.

다섯째, 형태언어는 그 지역의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거나 그 전통을 표현 형태로서 과장, 표현되고 있다. 추상화는 배제되고 직접적인 감각에 호소하게 된다.[17]

2.3 커티스(William J. R. Curtis)의 지역주의(Regionalis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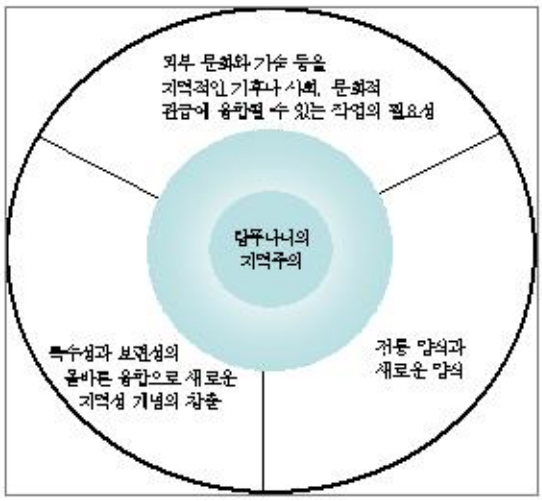
커티스의 지역주의는 1960년 들어 지역성의 중요성이 인식되자, 지역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래 지향의 감성적 기술 관료주의나 과거에 대한 감성적 회고주의가 아닌, 외부 문화와 기술 등을 지역적인 기후나 사회, 문화적 관급에 융합될 수 있는 작업의 필요성을 강조한 개념 정리를 통해 한 차원 높여놓았다. 또한 전통 양식과 새로운 양식, 특수성과 보편성의 올바른 융합으로 새로운 지역성 개념의 창출을 기대했다.

커티스는 개념 전개에 있어 람푸나니가 놓치고 있는 몇 가지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전개 했다. 그러한 지적은 커티스 자신의 지역주의에 대한 보완 사항이기도

17) M. Lampugnani, 윤재희 · 지연순 공역, 「현대건축론 6」, 세진사, 1999, pp.290~317.

SUNG KYUN KWAN UNIVERSITY

하다. 우선 지역성 개념을 지리적으로 명시화하지 않은 점, 형태의 관련성에 있어 무엇이 원형 유지 및 기후, 문화, 개념, 기술, 전통과 어울리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논지 전개를 하지 않은 점, 그리고 새로운 사실 도입 시 현대 디자인의 보편성의 추구인지 혹은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 토착과 외래의 것 중 어떤 정도의 융합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드러내지 않음에 비판적 자세를 취하며, 좀 더 원론적 개념을 벗어날 것을 주장한다.[18][그림 2-9]



[그림 2-9] 커티스의 지역주의 특징

2.4 비평적 지역주의(Critical Regionalism)

전통문화의 미묘한 파괴, 위대한 문명 및 문화의 창의적 핵심이라고 부르는 것의 파괴까지도 구성한다.

-세계화에 대한 부정적 입장-

Paul Ricoeur,「보편적인 문명과 민족문화(Universal Civilization and Nation cultures)」, 1961.

「비평적 지역주의(Critical Regionalism)」라는 용어는 기후, 문화, 신화, 그리고 공예 등의 결합된 상호 작용에 의해 자발적으로 생성된 풍토적인 것(Vernacular)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최근의 지역적 「학파들」(이들의 주요 목적은 자

18) 이민, 「비평적 지역주의의 관점으로 본 안도 타다오의 작품 연구」, 국민대학교 테크노 디자인 전문대학원 석사논문, 2005, pp.16~17.

SUNG KYUN KWAN UNIVERSITY

신들의 바탕을 두고 있는 한정된 구역을 반영하는 것이다.)을 식별하려고 의도된 것이다.

비평적 지역주의는 하나의 양식이라기보다는 시대를 채우는 것들에서 보이는 것으로 항상 존재하지는 않는 일정한 공통적 특색을 지향한 비평적 부류이다. 이러한 특색들, 혹은 태도들은 아마도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현대화에 비평적임에도 현대건축유산의 해방적이고 진보적인 측면을 함께 싸안으려는 경향이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동시에 비평적 지역주의의 단편적이고 여분의 성질은 그것을 초기 현대 운동의 이상향주의나 규범적인 적정화에서 동떨어지게 하여, 거대한 계획보다는 소규모 계획을 선호하고 있다.

둘째, 비평적 지역주의는 그 자체를 현저히 한정된 건축으로, 독립적 물체로 강조하기 보다는 대지상에 건설된 구조물에 의해 확립된 영역을 강조하는 것으로 장소-형태는 건축가 자기 작품의 물리적 경계를 일종의 일시적 한계로 인식해야 한다.

셋째, 건조 환경(建造 環境)을 일련의 어울리지 않는 배경화법적인 일화로 변형시키기보다는 건축을 구축적 사실로서 인식하는 것을 선호한다. 배경 화법이라는 프램톤의 범주는 문자 그대로 「본질적으로 재형적인」 반면에 구축적이라는 것은 건물의 논리를 말해주는 일종의 구축된 서사-그럴듯한 「실제적인 구조의 성취라는 신화」 또는 건물의 「기후와 시간이라는 풍화 작용에 대항하는 지속성」에 관한 것-이다.

넷째, 비평적 지역주의는 구조물이 적합하게 놓이는 3차원적 매트리스(Matrix)로서 여겨지는 지형에서부터 구조물에 그 지역의 빛을 다양하게 연출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대지에 독특한 인자를 항상 강조한다. 또한 빛은 항상 작품의 볼륨(Volume)과 구축적 가치를 그려내는 주여 매

SUNG KYUN KWAN UNIVERSITY

개체로 이해되며 이러한 기후 여건에 대해 명료한 반응을 보인다.

다섯째, 시각적인 것만큼 촉각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환경이 시각만이 아닌 다른 요소를 통해 경험될 수 있다고 본다. 다양한 조명도, 열, 냉기, 습도 및 공기 흐름의 순환도, 다른 입체(Volume)의 이물질에 의해서 발산되는 다양한 향기와 소리, 그리고 바닥 마감에 따라 생겨난 여러 가지 감각등과 같은 보조적인 지각(知覺)에 예민하다.

인체로 하여금 자세, 걸음걸이 따위에 무의식적인 변화를 체험하도록 하며 이것은 정보에 의해 경험이 대체됨으로써 매개체가 지배하는 시대의 경향과 반대되는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것이다.

여섯째, 지역풍토의 감각적 모방에 정반대되고 있으며, 이따금 재해석된 풍토적 요소를 전체내의 분리적 요소로서 삽입한다. 형식적 참조의 수준이나 기술의 수준에서 부당하게 밀폐되지 않고 현시대의 장소 지향 문화를 촉진코자 노력하는 것이다. 이는 지역에 바탕을 두면서 세계 문화의 역설적인 창조를 향해가는 경향을 가진다.

일곱째, 비평적 지역주의는 몇 가지 측면에서 보편적인 문명의 충격을 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 틈새에서 번영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이미 받아들여진 현대 건축의 종속적 개념이 궁극적으로는 건축의 현 상태를 평가하는 부적절한 모델이라는 점을 드러낸다.[19]

3. 문헌을 통한 국내·외 지역주의 건축의 사례조사

3.1 국내

19) Kenneth Frampton, 정영철· 윤재희 공역, 「현대건축사 2」, 세진사, 1994, pp.575~600.

SUNG KYUN KWAN UNIVERSITY

1950년대의 전후 한국은 전쟁에서 파괴된 건물을 보수하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1960년대에 정부는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을 제정하게 되고 건설시장은 군사독재의 경제 개발 프로젝트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한다. 전쟁 당시 잃어버린 집을 새로 짓고 파괴된 도시 인프라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건축계는 새로운 활기를 띤다. 당시 한국의 건축계는 국제주의 양식이 한국에 알려지고 시도되는 시기이다. 김정수의 명동 성모병원과 YMCA는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한국에서 지역성에 관한 논의는 1960년대 말에 이루어진다. 뚜렷한 자기 주체성 없이 서구건축의 무분별한 이식에 대한 비판적 인식으로 한국 현대건축의 자립성 모색을 위해 물리적, 사회적 영역으로서의 건축본질과 시대정신을 담는 문화적 고유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의식으로 자리 잡음으로서 한국건축의 지역성 개념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즉, 서양건축과 달리 모더니즘에 대한 반동으로서가 아니라 서구건축의 무분별한 수용에 대한 반발인 한국의 전통 계승으로 나타났다. 김수근의 부여박물관 전통문제와 강봉진의 「국립 종합박물관」은 올바른 전통계승에 대한 문제로 다뤄지면서 지역성 논의의 신호를 알린다.

여기에서는 국내의 지역성 논의가 어떻게 표현 되어 왔는지 사례조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크게 기본개념과 맥락적 개념, 구체적인 디자인 요소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3.1.1 이희태

이희태는 1925년 7월 10일 충북 제천군 배운면에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난 지 얼마 있지 않아 그의 집은 서울 옮겨 정착한다. 1942년 2월 경기공립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조선주택영단 건축과에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한다. 1946년 2월에는 이희태 건축연구소를 개설한다. 이후 혜화동 성당을 비롯한 메트로 호텔, 국립극장등 많은

SUNG KYUN KWAN UNIVERSITY

작품을 남기고 1981년 11월 별세한다.

1) 순교 복자 기념관(절두산 성당)

1964년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에 건립되었다. 이 작품은 주변 환경과 장소성에 대한 이해와 조화, 전통적 요소 도입, 수평축으로 공간분할이 설계의 기본 개념이다. 그리고 맥락적 개념으로는 주변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 지리적 특징이 기념성을 부각시키며 종교적 상징성, 전통적 조형성 부각과 동시에 협소한 대지에 강한 형태를 표현한 작품이다. 구체적인 디자인 요소를 살펴보면 전통적 지붕선의 재해석, 가로와 세로의 선을 통해 전통 건물의 전통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건물의 주재료인 노출 콘크리트를 통해 전통적 미를 부각시켰다.[표 2-1]

[표 2-1] 순교 복자 기념관(절두산 성당)

원경	근경	디테일
		

2) 국립극장

1967년 서울시 중구 장충동에 건립된다. 이 작품의 설계 기본개념은 자연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장소성을 갖는 곳에 위치한다. 또한 전통적인 표현을 의도하고, 힘차고 거친 구조체의 노출을 통해 대형 건축물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이 작품의

SUNG KYUN KWAN UNIVERSITY

맥락적 개념으로 자연과의 조화, 건축 형태 표현으로 지역성 강조, 형태적 통일감과 역동성을 동시에 표현, 조형적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그리고 디자인 요소는 전통 건축의 요소인 기단, 지붕의 형태, 열주를 도입하고 수직적 요소와 수평 띠에 의한 입면의 변화를 보여 준다.[표 2-2]

[표 2-2] 국립극장

원경	근경	기둥 디테일
		

3.1.2 김중업

1922년 평양에서 태어나 요코하마고등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여 파리 에꼴 데 보자르 출신의 나까무라 준뻬이교수 밑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그 후, 일본의 설계사무소에서 실무를 익힌 뒤 한국에 돌아와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1952년 베니스국제예술가 대회에 참가, 여기서 르꼬르뷔제를 만나 파리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일하게 되면서 현대 건축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축물을 설계되는 고정을 몸소 체험하게 된다. 1956년 한국으로 돌아온 후 자신의 사무실을 개설하면서 자신의 창조성을 보다 확대하고 작품 활동을 하였으나 당시 군사정권과 비타협적인 관계를 유지해오던 1971년 11월 거의 반강제적으로 출국, 프랑스로 추방되어 해외에서 유랑생활을 하다가 1978년 11월 영구 귀국 1988년 5월 66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난다. 그의 주요 작품으로는 부산대학교 본관 및 유수 대학의 건물들, 주한 프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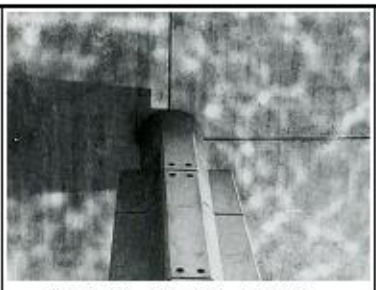
SUNG KYUN KWAN UNIVERSITY

스 대사관, 부산 충혼탑, 서울올림픽 기념비 등 국·내외에 200개의 프로젝트와 작품을 남겼다.

1) 주한 프랑스 대사관

1961년 서울시 서대문구 합동에 건립된 주한 프랑스 대사관은 지형에 순응하는 자유로운 배치, 지형에 따른 긴장과 이완으로서의 진입, 위상 기하학적 배치(시각적 배치)를 설계의 기본 개념으로 하고 있다. 맥락적 개념으로는 내·외부공간의 전이와 상호관입과 인간적 스케일을 적용하였으며, 기하학적 평면계획, 지붕선의 중첩으로 조형성 강조하였다. 구체적인 디자인으로 전통건축의 지붕선적인 요소 도입하였고 레벨 차에 의한 점진적 위계를 형성, 대사관저는 남성적, 업무동은 여성적으로 표현하였다.[표 2-3]

[표 2-3] 주한 프랑스 대사관

		
대사집무실, 출처 : 정인하, 「김중업건축론」, 2000	디테일, 출처 : 정인하, 「김중업건축론」, 2000	배치도, 출처 : 정인하, 「김중업건축론」, 2000

2) 한국 미술관

1967년 개인 저택으로 지어졌다가 이태리 대사관으로 쓰이다가 한국 미술관으로

SUNG KYUN KWAN UNIVERSITY

다시 사용되어지고 있다. 한국 미술관설계의 기본 개념은 주변맥락을 고려한 고전과 현대미를 구축하고 현대적 요소를 사용하여 전통적 요소들을 하나의 언어로서 표현하려 하였다. 맥락적 개념은 내부공간에 빛 도입과 전통 건축의 회랑을 이미지화 한 구조체, 전통 요소의 기하학적 추상화, 자유로운 평면과 투명성을 구성, 수평·수직적 요소를 통한 조형성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인 디자인 요소를 살펴보면 전통 한옥의 서까래를 기하학적으로 단순화하고 콘크리트의 가변성을 이용 변화 있는 시각적 분위기 유도, 완충공간의 인간적 스케일을 보여준다.[표 2-4]

[표 2-4] 한국미술관

		
근경-1	근경-2, 출처 : 건축문화, 1983	디테일, 출처 : 건축문화, 1983

3.1.3 김수근

김수근은 1931년 서울에서 태어난다. 1951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과2년 중퇴 후 일본으로 밀항하여 1958년 일본 동경 예술대학 건축학과를 졸업, 1960년에는 동경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다. 같은 해에 국회의사당 건축현상설계 1등 당선으로 귀국하며 1961년 김수근건축연구소를 개소 후 공간사옥, 경동교회, 자유센터, 워커힐 힐탑바 등의 많은 작품을 남긴다. 1986년 간암으로 사망한다.

SUNG KYUN KWAN UNIVERSITY

1) 문예회관

1979년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에 건립된 문예회관은 대지가 갖는 도시적인 의미와 맥락, 건물보다 장소로서의 의미 강조, 문화거리로서의 정체성 형성, 시각적 매스 분절의 조형성 강조를 기본 설계개념으로 계획되었다. 그리고 맥락적 개념으로 동선흐름을 통한 단위공간의 연속된 전개, 전통적 요소 도입(라운지 공간을 대청마루와 같은 기능 담당), 다양하게 중첩된 매스의 조형성, 매스의 분절은 인간적 척도를 가질 수 있도록 분절하였다. [표 2-5]

[표 2-5] 문예회관

		
근경-1	근경-2	내부

2) 청주박물관

1981년 충북 청주시 명암동에 위치한다. 기본 개념은 지형을 이용한 분산 배치 자연적 환경을 최대한 건물 내부로 끌어들이고 민가의 군집된 모습을 통해 전통성의 표현을 재해석 했으며, 각 동의 지붕은 전통적 요소의 직설적 이미지를 유추하게 한다. 맥락적 개념은 부지가 가지는 강한 장소가 설계에 반영되고 건물의 중첩에 의한 조형적 군집미, 지붕의 선적 이미지를 통한 조형성 강조, 인본적 장소로 건축을 바라보는 관념의 전환을 보여준다. 구체적인 디자인 요소는 중정 공간 형성,

SUNG KYUN KWAN UNIVERSITY

한오기와의 변형된 형태사용, 석축과 계단, 건물의 외벽의 일체로 자연과 건물군의 적절한 조화를 유도하고, 좌우 비대칭적 형태를 취한다.[표 2-6]

[표 2-6] 청주박물관

		
원경	근경, 출처 : 정인하, 「김수근건축론」, 1996	디테일, 출처 : 정인하, 「김수근건축론」, 1996

국내의 지역주의 건축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2-7]과 같다.

[표 2-7] 지역주의 건축의 특성-국내 사례

특징 / 건축가	배치	형태	공간	재료
이 희 태	지형을 이용한 상징적 기념성을 부각	전통적 지붕의 곡성과 기둥을 도입 수평선과 수직선으로 상징성을 부각	외부 기둥으로 회랑을 연상 공간의 깊이, 내·외부 공간의 상호 관입 (내·외부공간 확장)	현대적 재료를 변형하여 고전적 이미지 부각
김 수 근	지형을 이용한 분산 배치, 대지형상에 따른 진입동선	조형성, 군집성을 부각, 매스의 분절·겹침, 인간적 스케일	조형적 요소의 중정과 대청마루를 도입 전통한옥의 형태로 기능과 공간 분리	벽돌을 주재료로 사용, 조형성 부각
김 중 업	지역적 콘텍스트에 맞춰서 배치, 분절된 매스의 방향성	전통적 요소 도입 지붕의 곡선과 기둥, 기단 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	내·외부 공간의 상호 관입, 건물의 높이 차에 의한 위계성, 기능과 영역별로 분리하며 상호연관성을 가짐	노출콘크리트를 이용한 전통적 질감을 최대한 활용

SUNG KYUN KWAN UNIVERSITY

3.2 국외

국외의 지역성, 특히 유럽인 경우는 상술한 바와 같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 사조이다. 즉, 합리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환경에의 융합, 장소성의 존중, 전통의 고려, 자연주의, 설계에 심리적 · 감정적 요소의 도입, 건축행위의 인도주의적 이해 및 표현, 그리고 무형식을 표방하는 건축 등으로 합리주의의 결함을 보완하고자 나타났다.

여기서는 국외의 건축가와 그들의 작품을 통해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3.2.1 알바 알토 (Alvar Aalto,1898-1976)

알바알토는 1898년 2월 핀란드 쿠오르타네에서 출생하였다. 1916년 헬싱키 공과대학 건축과에 입학하고 1921년 졸업을 한다. 1923년에서 27년까지 유바스쿨라에서 설계사무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1928년 CIAM의 종신회원이 된다. 1933년에는 사무소를 헬싱키로 옮긴 후 비푸리의 시립도서관, 마이레아 저택, 파이미오 결핵요양원 등의 작품을 남기고 1976년 5월 세상을 떠난다.

1) 빌라 마이레아(Villa Mairea, 1938-41)

이 작품은 토속적인 재료의 사용으로 변화하는 생활공간을 창조 (목재를 사용한 자연재사용)하고 대지를 고려한 계획은 기능이 명쾌하게 구분하게 한다. 또한 핀라드의 전통성이 짙은 목재 사용으로 질감을 느낄 수 있는 건축을 추구하고 내부 인테리어의 목재 내장과 마감에서 보이는 나무의 사용은 건물 내·외부 전반에서 응용된다. 이러한 재료와 질감의 표현이 정원공간과 융합되어 주변경관과의 관계 속에서 유기적으로 처리되며 자연요소를 최대한 도입하여 인간과 자연경관 사이의 매

SUNG KYUN KWAN UNIVERSITY

개체로서의 건축 모습을 보여준다.[표 2-8]

[표 2-8] 빌라 마이레아

		
배치도, 출처 : c3a, 「Alvar Aalto」, 1995	근경, 출처 : c3a, 「Alvar Aalto」, 1995	디테일, 출처 : c3a, 「Alvar Aalto」, 1995

2) 무라찰로의 여름별장(Architect's Summer House, 1953)

전통적 건축 재료와 기술을 합친 다양성을 시도한 작품이다. 건물의 평면에 구형을 사용한 것은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형태를 채용한 것이며 내·외부 공간에 파티오를 설치하여 자연환경에 대한 전이 공간으로 활용했다.[표 2-9]

[표 2-9] 무라찰로의 여름별장

		
배치도, 출처 : 집문사, 「알바아알트 작품집」, 1980	근경, 출처 : c3a, 「Alvar Aalto」, 1995	디테일, 출처 : 집문사, 「알바아알트 작품집」, 1980

SUNG KYUN KWAN UNIVERSITY

3.2.2 찰스 꼬레아(Charles Correa, 1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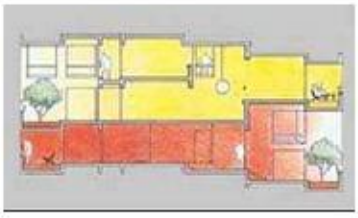
찰스 꼬레아는 미시간 대학과 M.I.T에서 건축을 공부했다. 1958년부터 봄베이에서 개인 사무소를 경영해오면서 사바르마티 아쉬람 Mahatma Gandhi 기념관, 자이푸르 칼라 켄드라, 마드야 프라데시의 주의회, 델리, 봄베이(뭄바이), 아메디바드 등 인도 여러 도시의 지역 개발과 프로젝트 등 다양한 분야의 작업을 해왔다.

제 3세계에서 저비용 주택 건립 사업의 선구자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찰스 꼬레아는 빈곤층을 위한 최적의 주택 양식 개발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1984년 영국 웨일즈 왕세자로부터 영국 왕립 건축가협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했으며, 1987년 인도 건축가협회 금메달, 1990년 국제 건축연맹 금메달, 1994년 일본 예술학회 건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현재도 작품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1) 칸잔중카 아파트(Kanchanjunga Apt, 1970-83)

인도의 문화와 기후, 삶에 대한 관계를 집합의 개념으로 해결한 작품이다. 더운 기후에 대응하는 테라스와 베란다를 만들어 모든 실에 적절한 빛과 신선함, 환기, 시각적 확장 등을 제공하였다. 또한 봄베이(뭄바이)의 더운 기후에 대응하고 적응하는 공간으로 하늘과 열린 공간과 Tube주택의 시스템을 제시하였다.[표 2-10]

[표 2-10] 칸잔중카 아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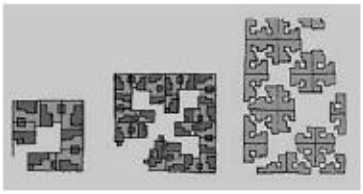
		
원경	근경, 사진 : c3a, 「찰스 꼬레아」, 2002	평면도, 사진 : c3a, 「찰스 꼬레아」, 2002

SUNG KYUN KWAN UNIVERSITY

2) 벨라푸르 집합주택(Incremental Housing at Belapur,1983-86)

지역민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평면과 인도의 전통적 공간개념도입하였다. 밀도 높은 연립주택에 여유를 줄 수 있게 하늘로 개방된 중정 공간을 소유한다. 전통적인 기하학적 외벽구성과 만다라를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아홉 개의 사각형으로 공간을 처리했다. 주재료인 흙벽돌로 된 위벽 위에 흰색 페인트를 사용하여 태양열을 반사시켜 단열효과를 주고 경사지에 적응한 경사지붕의 사용으로 주변 환경과 조화를 고려하여 주변의 맥락에 적응하고자 하였다.[표 2-11]

[표 2-11] 벨라푸르 집합주택

		
개념도, 출처 : 3a, 「찰스 꼬레아」, 2002	투시도 스케치, 출처 : c3a, 「찰스 꼬레아」, 2002	근경, 출처 : c3a, 「찰스 꼬레아」, 2002

이상의 국외 지역주의 건축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 [표 2-12]와 같다.

[표 2-12] 지역주의 건축의 특성-국외 사례

건축가	작품특징
알바알토	북유럽의 정신과 스타일 계승 재료의 비 물질화를 통한 양식과 전통의 은유적 정신 표현을 통한 촉각성의 강조 주변자연환경의 유기적 형태의 적용과 자연재의 사용 기능, 형태, 기하학, 유기적 요소가 통합된 형태표현
찰스 꼬레아	인도 고유의 유형과 거주형태 재현 인도 전통적 정신과 감성을 계승 발전 인도 전통의 재료, 색, 이미지 등을 현대적으로 재구축 재료와 질감, 표면, 색채 등의 인도 전통의 재료와 문양을 통한 촉각성 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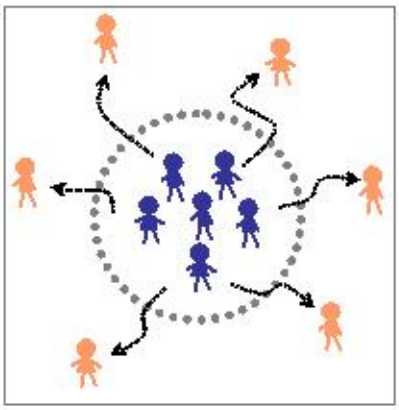
SUNG KYUN KWAN UNIVERSITY

Ⅲ. 제주도 건축에서 지역성 표현의 요소

SUNG KYUN KWAN UNIVERSITY

SUNG KYUN KWAN UNIVERSITY

1. 지역성의 개념이해



[그림 3-1] 지역성의 개념도

지역성(地域性)은 사전적 의미로 「한 지역의 특별한 성격」을 의미함과 동시에 「사물이나 장소의 특정 부위의 성격」을 얘기한다. 그래서 일정한 지역을 벗어난 곳에서는 지역성을 점차 잃어가기 마련이다.[그림 3-1]

다시 말해, 지역성은 그 지역만이 가지는 성격, 즉 정체성을 나타낸다. 정체성은 다시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하나는 동일성의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차별성 혹은 개별성의 개념이다.

「동일성」은 「~은 ~답다」혹은 「~은 ~같다」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개별성」 혹은 「차별성」은 「~은 ~와 다르다」혹은 「~은 ~같지 않다」의 의미이다.[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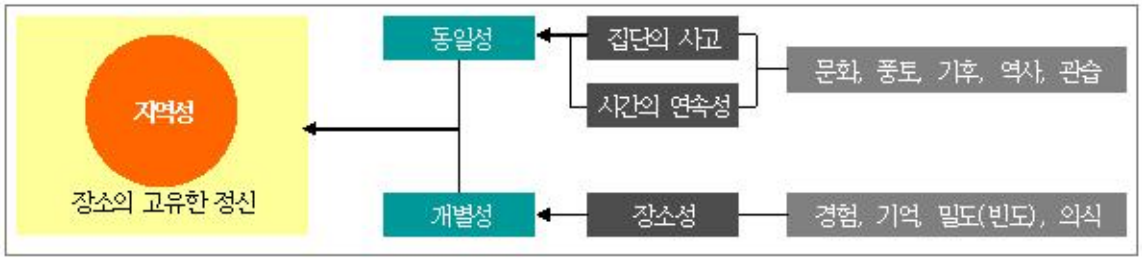
동일성은 집단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행위가 시간의 연속성과 만날 때 그 성격이 나타난다. 즉, 인간이 경험해 온 관습과 주변 환경이 조화를 이루어 그 지역에만 나타나는 현상이다. 여기서 관습은 서로 다른 인간과 인간이 만나면서 오랜 시간동안 어떠한 현상을 공감하는 행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사회, 역사, 문화적인 차원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주변 환경 즉, 기후, 지형, 경관, 풍토, 경계 등은 특정 지역에서 자연이 준 요소로 이해해야 한다. 이처럼 관습과 주변 환경은 오랜 시간이 지나야 그 특징이 나타나므로 변화과정 역시 더디다. 따라서 건축은 그 하나만의 독립된 객체로 생각해서는 이해하기 힘들며 그 곳의 관습과 주변 환경이 한데 어우러져 나타나야한다.

20) 우동주, 「부산 지역성의 존재」, 건축문화 9809, p.179.

SUNG KYUN KWAN UNIVERSITY

개별성 혹은 차별성은 타 지역과는 다른 그곳만의 고유성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고유성이 특정 지역이나 공간에 나타난다는 것은 「장소성」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지역은 경계를 만들게 되고 그 경계를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경계는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 공간이 고유성을 가지려면 인간의 경험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장소성」이다. 즉, 장소성은 공간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인간의 의식과 경험을 통해 특별한 의미를 갖는 공간으로 창출되는 것이다.

공간에 대한 경험 즉, 장소성은 자신이 태어나 자란 주변 환경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오랜 경험을 갖는 장소일수록 기억에 오래 남거나 자주 찾게 된다. 그래서 장소는 그러한 경험이 많을수록 특정 장소에 대한 빈도(밀도)가 높아지므로 장소는 빈도(밀도)에 의해 중심을 갖게 된다. 때문에 그를 위해서는 그 장소만의 특별한 성질을 찾아 채워 넣어야만 한다. 따라서 지역성에 대한 고려는 의미 있는 장소로 변화시켜 고유의 정신(고유성)을 살려내야 한다.[그림 3-2]



[그림 3-2] 지역성형성 개념도

이러한 지역성은 제주도에서는 「제주성」으로 나타난다. 즉, 장소성, 동일성, 개별성(차별성)은 고유성을 나타내는 요소이며 고유성이 제주도라는 지역에서는 제주도만의 정체성 즉, 제주성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SUNG KYUN KWAN UNIVERSITY

2. 제주성 형성의 주요 인자

이번 절에서는 앞서 살펴 본 지역성의 개념을 통해 「제주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주성을 형성하는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조건으로 오랫동안 육지와는 다른 가족제도와 풍습을 유지하여 왔다. 지리적 조건은 한반도와 다른 지리환경을 만들었고 가족제도와 풍습 등은 독특한 인문·사회 환경을 만들었다. 이러한 성격이 제주도가 육지와 다른 지역성을 보여주는 큰 이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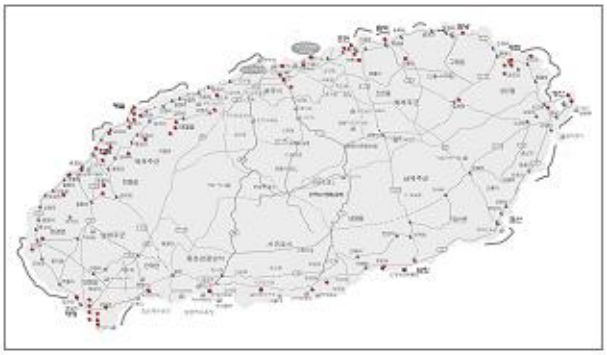
2.1 자연환경에 따른 특징

2.1.1 지형 및 지세

제주도는 한반도의 서남단과 동지나해의 북단에 위치한 한국 최대의 섬이다. 위도 상으로는 동경 126°08′에서 126°58′, 북위33°06′에서 33°00′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위치상의 특징이 제주도가 육지와는 다른 지역성을 보여주는 큰 이유 중의 하나다.

제주도의 크기는 동서로 73km, 남북으로 41km의 타원형으로 1,825㎢에 달한다. 이는 전체 남한 면적의 1.84%정도 이다. 고도 200m 이하의 해안지대 면적은 1,005.6㎢로 전면적중 55.3%를 차지하고 있다. 하천이 한라산을 비롯한 성판악, 어승생악 등에 의하여 남북으로 갈라져 내린다. 이들 하천은 거의 건천이기 때문에 한번 호우가 오면 일시에 물이 넘쳐흘러 내리다가 곧 말라 버리는 하천이다. 지표면은 투수성이 좋은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은 곧 지하로 빠져 해안선 근처에서 용출한다. 몇 달 전 태풍 「나리」에 의해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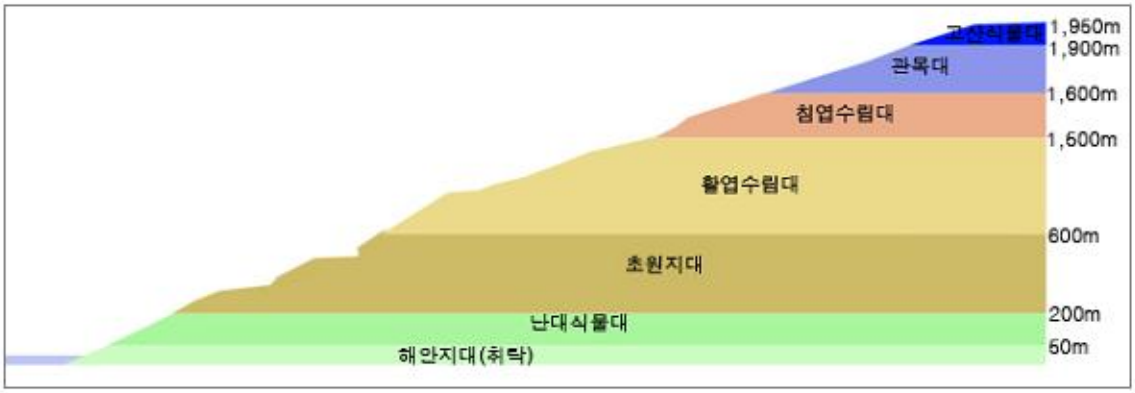
SUNG KYUN KWAN UNIVERSITY



[그림 3-3] 해안을 따라 분포된 마을

그때 피해를 본 대부분의 지역이 하천 주변이나 하천과 해안가가 만나는 곳이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해안지대는 산간지대나 중산간지대 보다 물을 구하기가 쉽다. 그래서 해안가는 옛 부터 농경지와 취락지로 이용되었고 제주도민의 중요한 생활 터전이었다.[그림 3-3]

해발 200m~500m인 508㎢의 중산간지대는 27.95%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절경과 목초지가 많아 목야지, 관광지, 유휴지가 되고 있다. 다음 [그림 3-4]처럼 고도에 따라 자생식물과 동물이 다르게 분포하기 때문에 빼어난 절경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그림 3-4] 제주도 고도에 따른 식물분포도

그래서 다음 [표 3-1]에서 보이는 것처럼 관광객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현상은 제주도를 관광지라는 이미지로 인식하게 되는 이유이며 제주성을 보여주는 예이다.

SUNG KYUN KWAN UNIVERSITY

[표 3-1] 관광객 수(출처 : 제주도, 「제주도 수치」, 2004)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관광객	계(명)	4,110,000	4,198,000	4,515,000	4,913,000	5,100,000
	내국인(명)	3,822,000	3,908,000	4,226,000	4,692,000	4,750,000
	외국인(명)	288,000	290,000	289,000	221,000	350,000
	증가율(%)	12.1	2.1	7.6	8.8	6.3

제주도 지형의 또 다른 특징은 화산활동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때문에 지형의 대부분은 화산암, 그 중에 현무암과 송이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현무암과 송이는 제주도민의 생활도구의 주재료나 건축재료[21]로 많이 쓰여 왔으며 지금도 많이 쓰고 있다. 특히 현무암은 건축재료 뿐만 아니라 생활도구, 농사기구 외에도 다음 [표 3-2]와 같이 제주도를 상징하는 형태(돌하르방[22], 연대, 방사탑 등)의 주재료로도 이용되어 왔다.

[표 3-2] 제주도 상징물

구 분	돌하르방[23]	방 사 탑	연 대
사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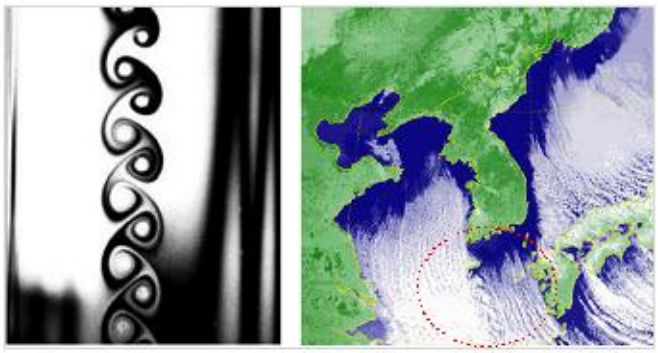
21) 제주도의 천연자원인 현무암을 가공한 제주석과 화산체인 송이를 가공한 송이벽돌과 송이타일이 있다.

22) 돌하르방 : 돌하르방이란 말은 근래에 생긴 명칭이고 원래의 이름은 우석목, 무석목, 벅수머리 등이다. 돌하르방이란 명칭은 돌 할아버지의 제주어로 1971년 문화재 이름으로 채택한 이래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돌하르방은 행정구역이 3분되었던 약500년 동안(1416~1914) 제주목, 대정진, 정의진 도읍지 성문 앞에 쌍쌍이 세워 졌었다. 모두 47기가 있었는데 경복궁 한국 민속 박물관으로 2기가 옮겨져 지금 제주도에는 45기가 남아있다.
47기의 돌하르방 형태는 조금씩 다르고 제주시의 것이 가장 커서 평균 신장 181.6Cm, 성읍리 141.4Cm, 대정 136.2Cm 인데 제주시의 것이 더욱 위용 있고 예술성 있게 조각 되었다. 돌하르방의 주요기능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즉, 수호신적 기능과 주술 · 종교적 기능, 위치표식기능이다.

SUNG KYUN KWAN UNIVERSITY

2.1.2 기후

기후는 인간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기후에 따라 주거문화가 지역마다 달라지고 의복과 산업 활동 등이 달라진다. 제주도는 지리적 위치, 난류의 영향, 해양의 섬 등의 이유로 해양성 기후를 나타낸다. 기온의 연교차나 일교차가 육지에 비하여 작으며 해륙풍의 발생빈도가 높고 주위 바다에는 안개 끼는 날이 많다. 한라산의 지형효과로 풍상측과 풍하측의 날씨가 상반되는 경우가 많으며 풍계에 따라 기온과 강수량에 많은 차이를 나타난다. 특히 경사도가 급한 남쪽과 북쪽사면의 날씨에 많은 변화가 나타난다.



[그림 3-5] Karman Vortex 개념도와 일기도

또한 산악효과로 풍하측에 수렴현상이 나타나고 겨울에 강한 북서풍이 불면 한라산 남쪽해상에 [그림 3-5]와 같은 Karman Vortex(원호현상) 구름형태가 자주 나타난다. 기온과 강수량 분포는 한라산 정상을 중심으로 한 타원형 등치선 형태를 보이며 고도가 높아지면서 식생분포가 다른 아고산성기후의 특성이 있다. 제주도 지역은 해양성 기후이기 때문에 기온의 변화가 완만하다.

2.2 인문·사회 환경

2.2.1 풍습

23) 출처 : 제주도, 「제주100년」, 제주도, 1996

SUNG KYUN KWAN UNIVERSITY

풍습은 그 지역에서 꾸준히 이어져온 삶의 모습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문화를 이루는 근간이며 지역성을 설명할 때 빠질 수 없는 요소이다.

제주도의 풍습은 탐라국 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기마다 그 나름대로 개성을 띠고 나타났던 문화 현상들을 관류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활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것은 어느 한 시기의 문화 현상으로 외세에 의한 강점 문화, 무역의 항로를 따라 자연스럽게 이입된 육지의 교류문화 등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지금도 제주도는 육지와는 다른 제주 특유의 풍습[24]들이 많이 발견된다.

제주도의 풍습은 다각적으로 고찰되어져야 하는데, 특히 정치적으로는 중앙에 종속되어 있고, 경제적으로는 최소한의 자급자족이 필요했던 제주도의 인문·사회 환경이 잘 반영되어 있다. 특히 제주도의 지표면(농사를 짓기 위한 땅)은 화산섬의 특성 때문에 척박하여 논농사에 적합하지 않아 밭농사에 매진해야 했다. 그래서 척박한 땅을 일궈낸 제주도민들은 독립심과 이웃 간의 결속력이 강하게 나타났는지도 모른다. 그것이 제주도민이 살아남는 길이었다. 제주도의 경제적인 특성은 제주도만의 독특한 풍습을 낳는 계기가 되었다.

자연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경제적인 삶의 지혜를 드러내 주는 예로서 연자매 관리집단을 들 수 있는데, 연자매는 대략 20-30호 정도의 이웃끼리 돈과 노력을 모아 동네별로 공동의 힘으로 의논하고, 관리하며 어려운 일을 같이 수행하는 것으로 이웃끼리의 인정도 깊어지는 공동체 형성의 중요한 요소였다.

용수집단의 형성도 물을 얻기가 어려운 상황을 공동협력과 질서를 통하여 이겨나가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초가지붕을 잇는 새(띠)를 얻기 위하여 「새왓」이라는 밭을 공동으로 관리해 왔는데, 새왓은 산간 지대의 토심이 얕은 한정된 곳에서 재배 된다. 그래서 제주도민들이 그것을 얻기 위해 공동으로 땅을 개간하고 공정하게 분배하는 공동체 의식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수눌음[25] 등도 이웃끼

24) 제주도의 특유한 풍습에는 「가문잔치」라는 결혼 풍습과 신구간에 이사해야 잘 산다고 하는 「이사 풍습」, 매년 음력 8월 초하루에 조상 묘를 성묘하는 「벌초 풍습」 등이 있다.

SUNG KYUN KWAN UNIVERSITY

리 서로 도와주고 연대감을 강화시키는 제도이다. 각종 계도 친목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증답(贈畓: 반테우기 혹은 그물테우기)같은 관행도 음식물의 분배, 금품의 부조, 기타 물품의 교환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들의 경제순환과 자급자족 체계의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었다.

이러한 지역 공동체의 인간관계는 적극적인 사회적 성향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고 지회 내에서의 인간관계는 개체성 보다는 어려운 삶의 조건을 극복하려는 공동체 운명 체제로 형성되었다. 이러한 공동체 의식은 사회적 규범으로 작용하여 개방적이고 진취적이면서도 이에 못지않게 폐쇄적인 이중적 성향을 보인다. 전통사회의 공동체 의식은 오늘날의 제주도에서도 타지방에 비하여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도서성(島嶼, insularity)」인데, 바다에 의한 고립과 한정된 영토라는 도서 환경에 의하여 생활양식에서 나타나는 문화의 특수성과 육지 중심지에서 시작되는 외래문화가 영향을 적게 미침으로서 지방 전통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다. 결국 제주도 문화는 이러한 두 가지 양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문화적 특수성이 존속했다고 할 수 있다.[26]

또한, 물리적 폐쇄성과 바다로 향한 개방성의 공존인 도서성은 제주도에서 이상문화와 실제문화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은 제주도 창제에 얽힌 「설문대할망(할머니) 설화」의 일부분이다.

> *옛날, 한라산을 베개 삼아 누우면 다리가 제주시 앞의 관탈섬(제주도 북쪽에 위치한 무인도)에 걸쳐졌고 빨래를 할 때면 한라산 꼭대기를 짚고 관탈섬에 빨랫감을 놓아 발로 문지르며 빨았다는 키가 엄청나게 크고 힘이 센 설문대 할망이 있었다. 할망은 바다 가운데에 제주도를 만들기로 마음먹고 치마폭으로 흙을 날랐다. 치마에서 떨어진 흙부스러기들은 수많은 오*

25) 「품앗이」를 나타내는 제주도 사투리.
26) 제주도 건축사회, 「제주건축 제2집-제주도 주거건축의 향토성에 관한 연구」, 정문사, 1992, pp.16~17.

SUNG KYUN KWAN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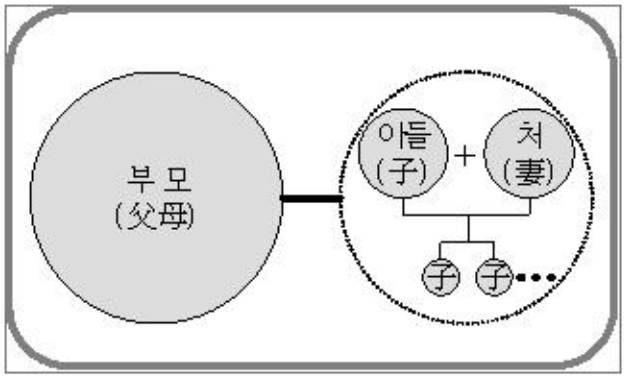
름이 되었고 날라 온 흙으로는 한라산을 만들었는데 산이 너무 높아 봉우리를 깎어 던지니 산방산이 만들어졌다.

할망은 속옷이 없어 제주 백성들에게 명주 100동(1동은 50필)으로 속옷을 한 벌 만들어 주면 육지까지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백성들이 명주를 99동밖에 모으지 못해 속옷을 지어주지 못하자, 할망은 다리를 놓다가 중단해 제주는 섬이 되었다고 한다. 조천읍 조천리와 신촌리 바닷가에 있는 바위섬들이 할망이 다리를 놓던 흔적이라고 한다.

다리를 놓아 육지가 되지 못한 제주도민의 안타까움이 신화에도 나타나 있듯이 제주도민들은 육지에 대한 이상 문화를 동경하였으나 끝내 이루지 못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단절된 육지와 다른 지역성을 형성한다.

이처럼 육지문화 혹은 유교문화에 대한 선망의식은 가구구조, 남녀관계, 민간신앙 등에 나타나며, 동시에 육지와 구별되는 이들 분야의 현실적인 유형과 물질문화는 도서 환경에 대한 적응과정의 결과이다.

육지의 가족제도에서는 주자가례에 의한 예의규범이 전파되면서 충효 중심의 사회 관습이 발전되었고 가부장적인 대가족 제도, 조상숭배 등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제주도민들은 이러한 유교정신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육지만큼 엄격히 사회 관습을 따르지는 않았다. 실례로 가족제도의 경우 제주도 특유의 형식이 나타나며, 엄격한 신분 제도에 따른 노비제도도 존재하지 않았다. 제주도에서는 「솥을 가른다」라는 말이 있다. 「솥을 가른다」는 가사 도구를 나눈다는 뜻인데 여기에는 두 살림이 한 울타리 안에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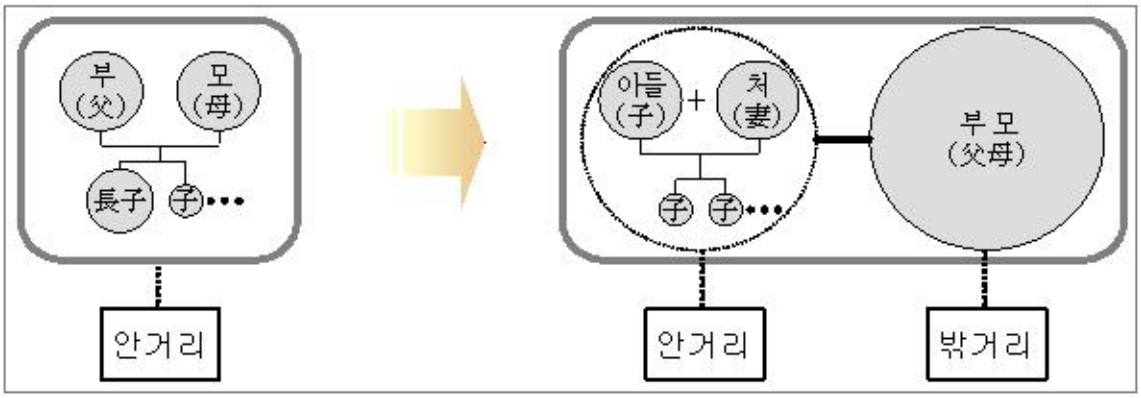
[그림 3-6] 제주도의 가족제도 개념도

SUNG KYUN KWAN UNIVERSITY

세대와 자식 내외 식구가 공존하면서 서로 독립성을 유지함을 뜻한다.[그림 3-6]

제주도에서는 경제권이 신부에게 주어져 있어야 살림살이가 시작되고, 분가를 해야만 혼인이 완성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여성 중심의 생활단위 분리는 울타리 밖으로 분가하지 않고도 취사와 경제권을 독립시켜 자신의 삶은 본인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즉 동거와 분리의 절충이 나타나고 있다.[27]

제주도에서는 이러한 특성은 주거건축에 반영되어 가족관계에서 여성의 지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생활영역은 타지방에 비하여 더 많은 공간이 할애되어 있다. 또한 제주도는 육지와 구분되는 특유의 핵가족 제도를 지니고 있는데 장남이 커서 결혼을 하면 바깥채에 별거하면서 부(父)의 가족과는 제각기 별개의 생활을 영위해 가고, 부모도 노령으로 취사능력이 없을 때까지 독립생활을 해나가지만 외형상으로는 직계가족임을 표방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척박한 생활환경, 머슴의 부재, 유교적 양반문화의 희박 혹은 결여 등에서 연유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주거단위로 보면 한 가족이나 경제적인 단위로는 두 가족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외형적으로는 대가족이나 실은 핵가족인 특이한 가족제도로서 이에 부합하는 주거 형태가 「안·밖거리형 주거형태」이다.[그림 3-7]



[그림 3-7] 장자(장남)의 분가를 통해 본 제주도의 가족제도 개념도

27) 제주도, 「속담으로 만나는 제주 여성어」, 제주여성문화 제주문화자료 총서8, 2001, pp.38~39.

SUNG KYUN KWAN UNIVERSITY



[그림 3-8] 김만덕 초상화
출처 : 김만덕 기념관

2.2.2 여성의 섬

제주도는 유난히 여성의 활약이 담긴 설화와 일화가 많다. 제주도 창조신인 설문대할망과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탄압과 강제 수탈에 저항 했던 해녀들의 이야기, 제주도에 기근이 있을 때 자신의 평생 모은 전 재산으로 쌀을 사들여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제했던 김만덕 할망[28]의 이야기는 아직도 제주도민들에게 구전되어 오고 있다.[그림 3-8]

[표 3-3] 제주도와 전국의 성비 비교(출처 : 통계청)

지역 / 년도	제 주	전 국
1925	86.60	104.65
1930	85.40	103.58
1935	83.60	103.05
1940	87.50	101.12
1945	85.70	99.38
1950	82.08	102.10
1955	108.06	100.03
1960	87.41	107.79
1966	90.92	101.44

제주도는 왼쪽 [표 3-3][29]에서 보여 지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여성 인구가 남성인구보다 많다. 출생 시 자연성비는 인종에 관계없이 대체로 105 전후를 기록한다. 남자가 여자보다 약 5%정도 많이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성비가 점차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남성의 사망률이 여성보다 높기 때문이다.[30]

그런데 다음 [표 3-4][31]에서 보듯이 제주도에서는 1925년부터 1949년까지 전 기

28) 김만덕은 정조 19년 제주에 기근이 일어났을 때, 평생 모은 재산으로 쌀을 사들여 제주도민을 구제했던 분이다. 일찍 부모를 여의고 의지와는 상관없이 기녀 생활을 해야 했지만 관에 탄원하여 기적에서 이름을 지우고 나서는 결혼도 않고 자식도 없이 홀로 살았다고 한다. 그렇게 한 평생 홀로 지내며 모은 모든 재산으로 2년에 걸친 기근 속에 죽어간 1만 8천여 명의 도민 중 1천 1백여 명을 살렸다고 한다. 이 사실이 조정에 알려져 정조는 당시 국법으로 제주의 여자는 제주도를 떠나지 못하게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으로 불러들여 의녀 반수의 벼슬을 내리고 그녀의 소원이었던 금강산 유람을 허락한다. 그리고 좌의정 채제공은 만덕에게 「너는 제주도에서 성장하여 백록담의 물을 떠 마시고 이제는 금강산도 편답하였으니 이는 천하에 수많은 남자들도 다 못하는 일이다.」 라며 만덕의 일을 적어 「만덕전」이라 이름하고 주었다고 한다.

29) 1970년대 이후는 제주도의 전·출입 인구 비율이 높으므로 1970년으로 한정한다.

30) 이창기, 「제주도의 인구와 가족」,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9

SUNG KYUN KWAN UNIVERSITY

간을 통해서 청장년층의 성비가 갑자기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노년기와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성비가 갑자기 낮아지는 15세부터 49세까지의 연령층은 50세 이후보다도 더 낮은 성비를 기록하고 있어서 제주도 인구구조의 한 특징을 이루고 있다. 이것은 이 연령층의 남성인구 결손이 매우 심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그 주된 원인은 일제 강점기의 과도한 도외이출과 4·3사건에 의한 희생에서 찾을 수 있다. 일제강점기의 도외이출과 4·3사건에 의한 희생이 참으로 오랫동안 제주도의 인구구조에 많은 영향을 남기고 있다.[32]

[표 3-4] 제주도의 연령별 성비 추세(출처 : 이창기, 「제주도의 인구와 가족」,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9, p.76에서 재구성함.)

연령 \ 년도	1925	1930	1935	1940	1944	1949	1955	1960	1966
0-4	104.6	102.5	102.9	106.8	104.3	99.1	112.6	104.4	103.0
5-9	109.1	105.2	104.4	107.8	106.6	99.1	103.9	103.5	105.3
10-14	100.6	101.8	105.6	108.6	108.6	103.5	107.7	106.1	104.2
15-19	78.5	82.6	90.5	86.5	84.0	84.0	124.9	114.9	110.7
20-24	70.3	69.4	70.3	68.0	60.4	67.1	78.2	111.4	119.5
25-29	70.0	66.6	64.2	62.4	57.1	68.3	79.2	89.9	103.4
30-34	75.2	69.9	66.2	64.6	57.8	66.8	74.3	69.3	97.5
35-39	80.2	74.9	71.9	72.0	67.3	63.2	71.2	61.2	70.8
40-44	84.5	80.6	78.6	77.6	75.2	65.6	61.4	65.3	61.8
45-49	80.3	80.1	82.0	82.5	84.5	70.0	64.8	59.8	64.6
50-54	85.2	84.5	86.0	83.5	83.4	74.8	65.0	60.2	57.9
55-59	79.2	78.7	80.1	83.7	80.0	72.2	66.9	60.0	57.3
60-64	77.3	78.5	81.3	77.5	76.3	72.8	65.9	60.5	56.0
65-69	76.0	75.4	76.9	75.5	76.3	68.6	63.6	56.5	53.1
70-74	66.0	66.2	67.8	71.4	74.0	64.0	62.1	58.1	51.0
75+	57.8	57.6	58.7	63.6	63.7	55.5	53.5	50.1	44.2

31) 1970년대 이후는 제주도의 전·출입 인구 비율이 높으므로 자료 그 이전에 한정한다. 또 1955년의 수치는 군인들을 상주지로 환원시켜 재집계한 것임.(전체 성비 8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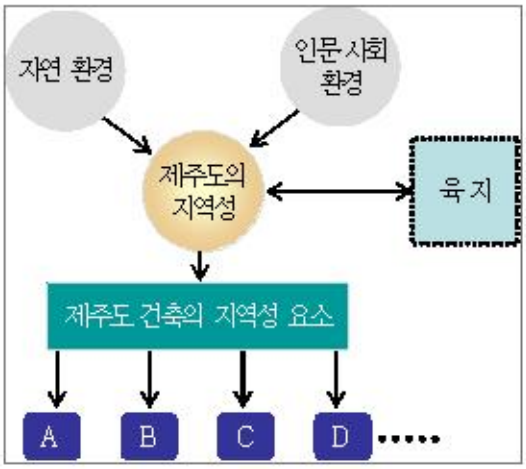
32) 박정희, 「제주도 여성 문화에 관한 고찰」, 제주대학교 대학원 지리교육 석사논문, 2004, p.8.

SUNG KYUN KWAN UNIVERSITY

이 외에 여성의 인구가 많다고 전해 내려오는 이유는 과거 제주의 남자들이 바다로 나가 어로작업 중 많은 조난, 사망하여 여자가 수적으로 많았던 데 연유한다.

이런 제주의 여성에 대한 설화와 일화, 통계 자료만 보더라도 제주도에는 육지와는 달리 여성의 힘이 상대적으로 컸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상술한 바와 같이 육지와 다른 제주도만의 가족제도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주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인문·사회 환경이다.

3. 제주도 건축의 지역성 요소



[그림 3-9] 제주도 건축의 지역성 표현 요소 형성과정 개념도

제주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의 자연 환경과 인문·사회 환경을 통해 육지와는 다른 지역성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지역성은 인간의 삶에 반영되기 마련이다. 즉, 건축은 인간의 삶을 담는 그릇과도 같은 것이다. 그래서 건축에도 큰 부분 영향을 미쳤을 지역성 요소를 정리·고찰해 보고자 한다.[그림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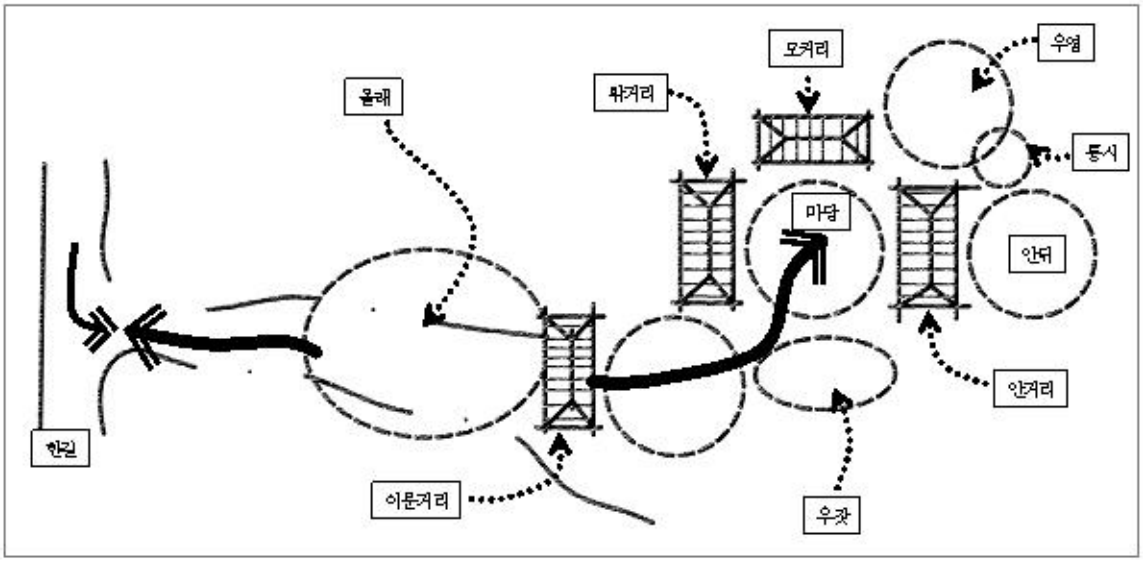
3.1 민가의 고찰을 통한 지역성 표현 요소

어느 나라든 그 나라의 전통 건축에는 그 곳의 문화가 반영되어 나타난다. 문화는 인간이 자연환경에 대응하여 얻어진 학습지식이 시간의 연속성과 만나 이뤄지는

SUNG KYUN KWAN UNIVERSITY

것이다. 지역성 요소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 문화가 전통 건축에 반영된 요소를 찾는다면 지역성 표현 요소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제주도의 전통 민가를 고찰하여 그 요소를 찾아보고자 한다.

3.1.1 배치방식



[그림 3-10] 제주도 전통 주거의 일반적인 배치 스케치

제주도의 전통주거 배치방식이 육지와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마당을 중심으로 별동의 배치이다. 안거리와 밖거리가 서로 마주보며 배치되고 이외에 부속건물과 시설들은 마당을 중심으로 주변에 배치된다. 이러한 이유는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상술한 바와 같이 경제적인 이유에 의해 생겨난 가족제도의 특성이 위 [그림 3-10]과 같은 배치방식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배치방식에서 또 하나의 큰 특성은 진입공간에서 찾을 수 있다. 올래(올레)[33]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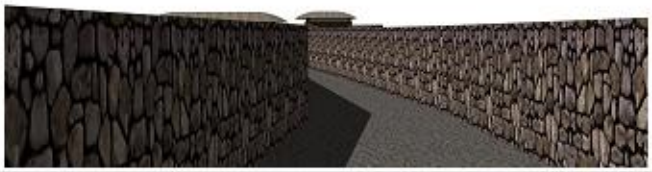
33) 「올래」와 「올레」를 모두 표기하나 여기서는 올래라고 표기한다.

SUNG KYUN KWAN UNIVERSITY

[표 3-5] 올래를 통한 진입에 따른 시각변화



1. 한길에서 본 모습



2. 한길과 올래가 만나는 결절점(먼올래)에서 본 모습



3. 먼올래과 올래 사이에서 본 모습



4. 올래에서 본 모습



5. 올래목과 올래의 결절점(이문간)에서 본 모습



6. 근접하여 본 모습

대변되는 진입도로는 길이가 보통 2-18m[34]까지 다양하며 대부분 구부러져 있다. 이렇게 구부러진 이유로 왼쪽 [표 3-5]에서 보이는 것처럼 시각에 의한 공간 변화를 가져오고 사생활을 보호함과 동시에 공간의 위계를 결정한다. 올래는 크게 먼올래, 올래, 올래목으로 나뉘어 구성된다. 먼올래는 한길이라는 마을의 생활도로와 접하는 곳으로 마을내 결절점의 큰 요소로서 이웃간의 커뮤니티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이다. 올래목에는 간혹 팽나무가 심어진다. 이런 곳은 일을 하다 땀을 식히거나 동네 어르신들이 장기를 두는 등 다양한 행위가 일어남에 따라 마을의 커뮤니티 형성의 주요 요소로 작용한다. 먼올래와 올래목 사이에 위치하는 올래는 진입도로의 중심부이다. 보통 2m 내외의 폭과 1.5m[35] 정도의 높이로

34) 제주도건축사회, 「제주건축 제 2집-제주도 주거건축의 향토성에 관한 연구」, 정문사, 1992, p.25에 의하면 진입도로의 길이는 2-18m 임을 밝히고 있다.

SUNG KYUN KWAN UNIVERSITY

돌담을 쌓는다. 이곳은 집주인의 농·수산물을 건조하거나 집주인이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웃이 사용한다. 또한 동네 아이들이 놀이 행위가 일어나는 곳으로 사적공간이면서도 공적공간으로 작용한다. 이를 통해 제주도민들이 사유재산을 나누고 그를 통해 공동체의 결속을 더욱 굳건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상은 현재 제주도의 도시 내 건축설계를 할 때 많이 쓰이는 개념 중의 하나이다. 중소기업지원센터, 서귀포월드컵경기장, 소리섬박물관(구 제주관광센터)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올래목은 마당과 접하는 곳으로 주거 부분으로 진입하는 결절점이 된다. 이곳은 먼 올래에서 보여 지는 많은 행위가 일어나는 결절점이기 보다는 사적영역으로 들어가는 결절점이기 때문에 정적인 공간이면서 동시에 전이공간으로 작용한다.

진입공간과 같은 외부공간은 별동배치를 통해 다양한 기능을 갖는 공간들이 형성된다. 우영, 우잣, 눌굽 등이 그것이다. 안거리를 중심으로 하여 밖거리, 목거리, 눌굽은 사국형성의 요소가 되고 있다. 그 외에 안거리, 밖거리, 목거리의 각 동은 규모나 재료의 위계성은 있으나 높이에 따른 위계는 미약하고 성별에 따른 영역의 분화가 뚜렷하지 않다.[36]

이렇게 배치방식의 개념은 제주도민의 삶과 함께 오랫동안 존재해온 제주성이다. 올래를 설명할 때 조금 언급했지만 전통민가의 배치방식은 건축설계를 행할 때 작가의 재해석을 통해 좋은 건축설계나 도시계획의 개념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3.1.2 의장

제주도 전통주거의 의장은 육지와 비교해서 입면 요소는 지붕과 벽체, 재료적인 측면의 요소는 돌, 송이, 새 등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입면의 높이에서도 그 특성을

35) 제주도, 「제주의 문화재」, 제주도, 1998에 의하면 2m 내외의 폭과 1.5m 정도의 높이 임을 밝히고 있다.
36) 제주도건축사회, 「위의 책」, p.25.

SUNG KYUN KWAN UNIVERSITY

찾아 볼 수 있다. 이는 제주도의 독특한 자연환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제주도 전통 건축에서 제주성을 나타내는 큰 특징이다.

1) 지붕



[그림 3-11] 제주도 초가의 고삿매기

제주도의 지붕은 자연환경, 특히 바람에 견디기 쉽거나 빗물의 떨어짐에 유의하여 만들었다. 그래서 지붕의 물매가 가파르거나 유선형으로 만들어 바람이나 비에 대응하였다.

우리나라의 지붕의 물매는 보통 40°내외인데 반해 제주도의 지붕 물매는 30°정도이다. 제주 민가의 지붕은 비에 대한 고려보다는 바람에 대한 고려에 더욱 치중하였다.[37] 때문에 위의 [그림 3-11]과 같이 고삿매기를 해야 지붕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거나 바람에 견딜 수 있었다.



[그림 3-12] 울릉도의 우데기. 출처 : 안종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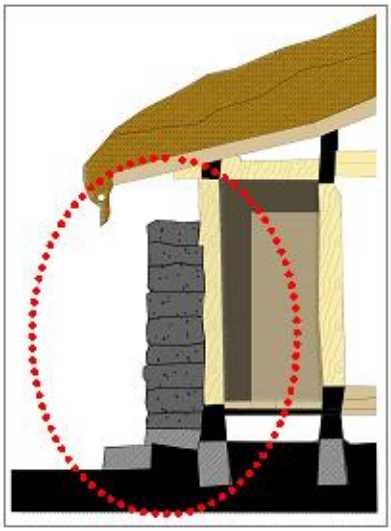
고삿매기는 새를 재료로 새끼줄을 꼬아 길게 늘어뜨린 것으로 지붕에 바둑판 모양으로 엮은 것을 말한다. 고삿매기를 재해석하여 건축에 디자인 요소로 차용한 사례로 통일관을 들 수 있다.

2) 벽

섬 지역은 많은 풍·우·설의 영향으로 내력벽 보다 장막벽이 오히려 더 발달한다. 위의 [그림 3-12]와 같이 울릉도의 우데기가 장막벽

37) 송성대, 「한국 도서지방 초옥민가의 지역성」, 경희대 박사논문, 1989, pp.57~59.

SUNG KYUN KWAN UNIVERSITY



[그림 3-13] 제주도 전통민가의 단면

의 일종이고 벅령도는 「가적」, 원산도는 「띠우작」이 그것이다.

제주도에서는 1.9m 가량 현무암을 재료로 왼쪽 [그림 3-13]과 같이 장막벽을 덧붙음으로 2중벽을 구성한다. 석벽 혹은 축담이라고 일컫는 이것은 15-30 ㎝ 정도의 두께이고 10㎝ 내외의 기울기로서 상부로 갈수록 들여쌓아 시각적으로 건물의 안정감을 준다.[38] 그리고 목구조인 내벽이 물이나 병충해에 의해 썩는 것을 방지한다. 이처럼 축담은 실용적인 측면과 미적 효과를 겸하고 있다.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과 문예회관 등에서 입면계획의 개념 요소로 사용되었다.

3) 재료

제주도의 주변재료는 초가지붕을 만드는데 주로 쓰이는 새와 축담이나 기단, 돌담 등을 쌓는데 쓰이는 현무암이 있다. 그리고 두 재료보다 쓰이기 시작한 역사는 짧지만 새롭게 각광 받는 송이가 있다.

근대 이후 건축의 대표적인 재료로 콘크리트가 각광을 받는다. 케네스 프램톤에 의하면 새와 현무암 같은 그 지역의 주변재료를 사용하는 것은 지역의 오랜 역사와 인간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그래서 그는 그 지역의 주변재료를 사용하는 것은 지역성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방법임을 밝히고 콘크리트보다 선호한다. 굳이 그의 얘기를 따르지 않더라도 인간의 주거역사를 보면 주변 재료가 주거문화 형성에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38) 제주도건축사회, 「위의 책」, p 33.

SUNG KYUN KWAN UNIVERSITY

가. 돌



[그림 3-14] 현무암

제주도는 온통 돌로 뒤덮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옛 부터 제주를 일컬어 「삼다」라고 불었는데 거기에 돌이 포함된다. 이처럼 제주도는 돌을 떼어내고는 지역성을 설명하기가 힘들다. 왼쪽 [그림 3-14]와 같이 제주도의 돌은 현무암이다. 현무암은 다공질이라 물이 잘 빠지고 강도가 약하다는 특성을 갖는다.

제주의 옛 선인들에게 있어 들판에 널려있는 돌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의 고민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다. 돌은 제주도의 거센 바람으로부터 농작물의 피해를 줄이고 경계와 영역을 구분 짓거나 제주도 민가를 구축할 때 주재료로 사용되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돌은 제주도민들에게 오래전부터 아주 특별한 가치와 의미를 지니며 다음 [표 3-6]과 같이 다양한 돌의 문화가 형성·발달시킨다.

[표 3-6] 제주의 돌과 문화

주요어	내 용	사 진	
밭담	농작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밭의 경계를 따라 높이 1.2m 내외의 돌을 쌓음 이웃한 밭과의 경계를 나타내는 역할을 함		
산담	영혼의 영역을 나타내는 경계 구실 소나 말의 출입을 제한하고 주위에 불이 날 경우 불에 의한 피해를 방지 함		

SUNG KYUN KWAN UNIVERSITY

초가(민가)의 돌	초가집의 기단이나 축담의 재료로 사용 민가의 주 생활공간 외에도 외부공간을 구성하는 공간요소의 주애료로 사용		
동자석	망자의 영혼을 지키는 석상 신앙적인 측면에서 조상을 섬기기 위한 방법으로 세움 하늘과 땅, 자신(인간)을 연결시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음		
당	당신을 위해 굿을 하는 곳 영등신을 모시는 곳이 많은 부분 차지함		
원담	원시적인 어로수단 해안마을 중 살짝 만을 이루는 곳에서 흔적을 찾을 수 있음 마을에 따라 원, 개, 통으로 불림		

때문에 제주의 돌은 근대 이후에도 외벽의 마감이나 내부 구조의 보호를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다. 현재는 제주석이라는 상품으로 개량하여 외부 마감 재료로 많이 사용한다.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소리섬박물관(구 제주관광센터 및 면세점), 구대정면사무소, 세화리사무소(구 구좌면사무소) 등에 사용되었다.

나. 송이

다음 [그림 3-15]에 보이는 송이는 화산분출물의 일종으로 기공이 많고 가벼우며

SUNG KYUN KWAN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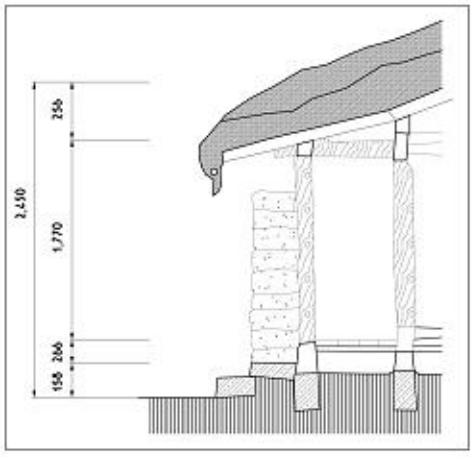


[그림 3-15] 송이

색깔은 적갈색, 황갈색, 흑색 및 암회색을 띤다. 요즘은 물리화학적 특성이 입증돼 실생활에 많이 쓰이고 있다.

송이는 건축에서도 많이 쓰이는데 외벽과 지붕의 마감 재료로 사용하면서 시각적 즐거움을 준다. 그리고 송이와 콘크리트를 혼합하여 만든 벽돌과 타일이 생산되면서 그 쓰임이 다양해졌다. 건축물에 쓰인 예로는 한림공원 휴게소 및 안내소, 탐라도서관, 삼성어린이집 등이 있다.

3.1.3 높이



[그림 3-16] 제주도 전통 민가 단면도

왼쪽 [그림 3-16]에서 보이는 것처럼 제주도 전통 민가의 높이는 육지의 그것 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1998년도에 대한건축학회 논문집에 실린 김미령의 논문에 의하면 기단높이는 육지민가에 비해 30-45cm정도 낮은 평균 15.8cm, 마루높이는 24-25cm이상 낮은 26.6cm를 나타낸다. 마루위에서 처마도리위까지의 높이는 평균 1.77m로 육지와 비교하여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그러나 민가가 바람에 대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용마루까지의 높이를 낮추는 방법을 취해 전체적인 높이를 낮추었다. 따라서 가로에 대한 세로의 길이 즉, 비례가 작으므로 전체적인 스케일이 작다. 케네스 프램톤의 비판적 지역성에 의하면 작은 스케일 혹은 소규모 건축물이 지역성을 표현하는데 더 적합하다고 하는 얘기와 맥을 같이한다.

SUNG KYUN KWAN UNIVERSITY

3.1.4 오브제에 의한 표현

오브제의 사전적 의미는 「보여 지거나 만져지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인식 되는 것, 또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과 주제가 인지할 수 있는 물질적 또는 정신적인 것」 이다. 라틴어 오브젝툼(objecturn)이 어원으로 일반적으로 객체 또는 대상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어떤 물체나 객체가 우연적이거나 필연적 효과에 따라 작품의 소재가 될 때 그 본래의 용도나 기능을 잃게 되고, 새로운 물성을 가지고 예술 작품화 될 때 이 물체를 오브제라 한다. 즉, 대상과 이미지 사이의 인습적인 관계에서 탈피하여 현실을 물리적으로 환원시킨 원초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39]

오브제는 구석기시대의 동굴벽화나 이집트의 예술품들 같이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모든 회화적 요소에서 표현되어 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서는 입체파에 의해 개념이 설정 되고 다다이즘에서 실재적이고 독립적인 오브제로 발전을 하게 된다.[40]

건축에서는 형태와 공간 표현을 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존재해 오던 전통 상징물이나 자연 숭배물, 신앙 표현의 상징물 등을 오브제로 표현한다. 그래서 오브제가 지역성의 한 요소가 된다.

제주도 건축에서는 오브제가 공간 구성의 방법 보다 형태 표현의 방법으로 해석되어 표현된다. 전통적으로 제주도에서는 방사탑, 연대, 오름, 제주도의 형태가 제주도를 상징하는 형태이다. 다시 제주도를 상징하는 요소들은 각각 간단한 기호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기호학을 통해 오브제의 의미를 살펴보는 이유는 인간의 언어, 사고, 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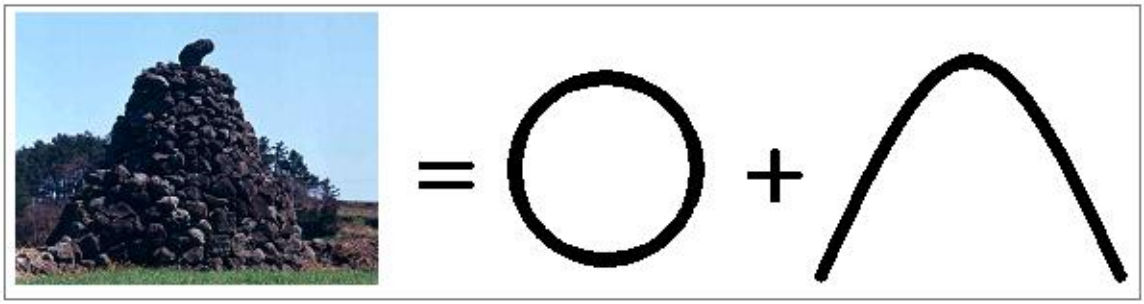
39) 고서영, 「현대미술에 있어서 오브제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 p.4.
40) 배연준, 「공간과 오브제의 상호작용성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석사논문, 2006, p.8.

SUNG KYUN KWAN UNIVERSITY

위 간의 관계에 대한 보편적 관심으로부터 싹트기 시작한 것으로 문화를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41] 따라서 제주성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제주도의 전통 상징물을 기호로 표현하고 그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1) 방사탑

방사탑은 「답(탑)」이라고 하는데, 육지의 솟대나 장승에 해당한다. 방사탑은 마을의 인명, 재산, 가축 등을 보호하기 위해 풍수 지리적으로 허하거나 약하여 궂은 것이 들어온다거나, 불길한 징조가 비치는 곳에 집단의 생존과 안녕을 기원하기 위하여 마을 공동으로 쌓아 올린 것이다. 탑은 대체로 밑변이 넓은 원통형으로 쌓은 돌무더기 탑 모양이거나, 돌무더기 위에 돌하르방이나 동자석 같은 석상, 또는 새모양의 자연석 또는 석상을 세운 모습이다.



[그림 3-17] 방사탑과 기호

방사탑을 간단한 기호로 나타내면 위의 [그림 3-17]처럼 원과 포물선으로 나타낼 수 있다. 즉, 평면은 원이고 입면은 포물선의 기호로 나타낼 수 있다. 옛 부터 동·서양 모두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라는 우주관이 있었다. 여기서 둥근 하늘은 「영원함」을 상징한다. 따라서 방사탑의 둥근 기호는 「영원함」을 상징하고

41) 송효섭, 「문화 기호학」, 민음사, 1997, p.14.

SUNG KYUN KWAN UNIVERSITY

이는 상술한 제주도민들의 집단적 사상과 맥이 통한다. 그리고 여성의 젖가슴을 상징하는 포물선은 다산을 의미한다.

이처럼 방사탑은 척박한 땅을 일궈 얻은 생산물의 풍요로움을 기원하고 바다에 나가 거친 파도와 싸워 생계를 이끌어 가는 남성들의 무사 안녕을 바랬던 여성의 염원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방사탑을 모티브로 한 건축물은 제주시 탑동해변공연장이 있다.

2) 연대

연대는 횃불과 연기를 이용하여 정치·군사적으로 급한 소식을 전하던 통신수단을 말한다. 봉수대와는 기능면에서 차이가 없으나 연대는 주로 구릉이나 해변지역에 설치되었고 봉수대는 산정상에 설치하여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횃불을 피워 신호를 보냈다. 제주목 대정현에 소속되었던 당포연대는 제주 서귀포시 하예동 해안 북쪽 구릉에 있다. 횃불과 연기로 평상시에는 1개, 수상한 배가 나타나면 2개, 육지로 가까이 접근하면 3개, 육지에 침범하면 4개, 전투가 시작되면 5개를 올렸다고 한다.



[그림 3-18] 연대와 기호

연대를 간단한 기호로 나타내면 위의 [그림 3-18]과 같이 정방형을 띈다. 정방형은 사각형의 일종으로 사각형에서 각 선분의 길이가 동일한 것을 말한다. 사각형은 공간 위의 4점을 차례로 선분으로 연결한 4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이다. 이때 4점 중 평면 위의 어느 3점도 1직선 위에 있지 않아야 한다.

동양에서 정방형은 완전성 면에서는 원에 미치지는 못하나 평면 공간의 중요 요

SUNG KYUN KWAN UNIVERSITY

소를 모두 갖춘 도형이며 더욱 발전과 전개를 암시하는 도형이다. 또한 안전성을 암시하는 도형이기도 하다.



[그림 3-19] 만다라의 상징. 출처 : 공간. 공간, 1972

특히 우주적 공간 개념을 가진 만다라[42]에서 정방형은 원형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만다라의 기본구조를 그대로 따라 설계된 석굴암의 평면구조에서도 사천왕에 의해 도량의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상징하고, 굴의 앞부분은 4방형으로 되어 있고, 그 안 쪽 본존을 모신 공간은 원형으로, 불, 보살의 거처는 완전성을 지닌 곳임을 상징하고 있다.[그림 3-19]

따라서 연대는 거친 자연환경을 이겨내고 안전함을 바라는 제주도민의 정신이 스며있다. 연대를 모티브로 한 건축물은 제주영상미디어센터(구 제주민속관광타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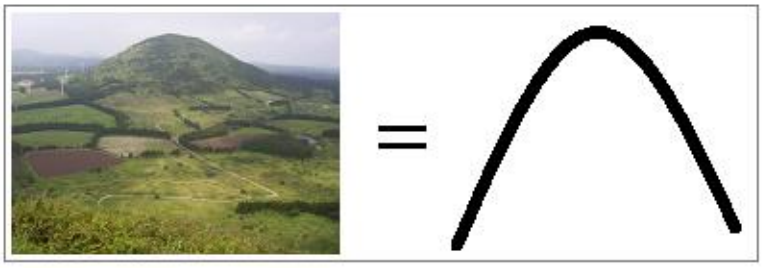
3) 오름

오름은 「오르다」의 제주도 방언이다. 오름은 지질학적으로 기생화산, 혹은 산봉우리를 일컫는다. 제주도에는 이런 오름이 360여개가 있는데 한라산, 산방산, 송악산을 제외하고 ~봉, ~오름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모두 오름이라고 보면 된다.

---

42) 신성한 단(壇:성역)에 부처와 보살을 배치한 그림으로 우주의 진리를 표현한 것이다. 원래는 「본질(maa)을 소유(la)한 것」이라는 의미였으나, 밀교에서는 깨달음의 경지를 도형화한 것을 일컬었다. 그래서 윤원구족(輪圓具足)으로 번역한다. 윤원구족이란, 낱낱의 살[輻]이 속바퀴측[轂]에 모여 둥근 수레바퀴[圓輪]을 이루듯이, 모든 법을 원만히 다 갖추어 모자람이 없다는 뜻으로 쓰인다.
만다라는 크게 「대일경(大日經)」을 중심으로 하는 태장계(胎藏界)만다라와, 「금강정경(金剛頂經)」을 중심으로 하는 금강계(金剛界)만다라로 나뉜다. 태장의 세계는 모태(母胎) 중에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듯이, 만물을 내장(內藏)하는 진리 자체의 세계를 석가로 구현화한 것이고, 금강계는 석가의 인식은 경험계를 초월한 인식이지만 그 같은 인식을 근거로 하여 경험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실천체계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또, 극락정토(極樂淨土)의 모습을 그린 정토변상(變相)을 흔히 정토만다라라고 부른다. 이러한 만다라는 관상(觀想)의 대상이기도 하며, 예배의 대상이기도 하다.

SUNG KYUN KWAN UNIVERSITY



[그림 3-20] 오름과 기호

오름은 대부분 종형인데 간단한 도형으로 나타내면 [그림 3-20]처럼 포물선의 형태를 보인다.

앞서 방사탑의 기호를 설명하면서 서술하였듯이 포물선은 다산을 상징한다. 그리고 오름은 풍수 지리적으로 보면 명당인 곳이다. 그래서 무덤이 오름에 많이 분포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오름에 무덤이 많다는 것은 조상의 보살핌을 통해 후손들의 무사안녕을 바라는 제주도민의 의식이 잘 나타나 있는 예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름의 기호와 풍수지리를 통해 보면 오름은 제주도민들이 풍요롭게 살아가기 위한 염원이 담긴 상징물이기도 하다. 오름을 모티브로 한 건축물은 서귀포월드컵경기장이 있다.

3.1.5 바람

삼다[43]는 제주도를 부르는 또 다른 명칭이다. 삼다 중 바람은 제주도민들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 맞서 이겨내야만 했던 보이지 않는 두려운 존재이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조선시대 제주도 바람의 성격을 보여주는 대목이 있다.

> *실록 곳곳에는 「금년 풍수(風水)의 재해(災害)가 혹심하여 곡식이 거의 없으며 제주에 사는 사람들은 겨울 전에 반드시 구황(救荒)하지 못한다면, 장차 살아나기가 어려울 」, 「제주 진상품을 싣고 가는 배(進貢船)가 바람을 만나 패몰(敗沒)하여 빠져 죽은 자가 백여 명이나 된다.」, 「제주·정의·대정에 구풍(風)이 크게 불고 소나기가 마구 쏟아졌으며 마축(馬畜)이*

43) 「바람」, 「여자」, 「돌」이 많음을 뜻함.

SUNG KYUN KWAN UNIVERSITY

많이 죽고, 백성들도 또한 엄사자(死者)가 있었다.」, 「광풍(狂風)과 폭우가 일시에 쏟아져서 하루 밤 사이 큰물이 급히 평창하여 다리와 성(水口虹城), 누각이 무너져 바다로 떠내려갔고, 무너진 민가도 많아서 죽은 자가 6인이나 되었다. 한낮에도 어두컴컴하고 성난 파도가 눈 뿌리듯이 관물 비로 온통 산야를 덮었다…초목이 소금에 잠긴 것과 같아서 귤유(橘柚)·소나무·대나무도 말라서 죽고, 각종 나무 열매도 떨어졌으며, 피·조·콩은 즐기가 말라버렸으니 백성들은 곳곳에 모여서 소리 내어 울 뿐이다', 「제주·대정·정의에 대풍우(大風雨)가 내려 파도에 산악은 잠기고 수목은 꺾이고 가옥은 무너졌는데 그 수가 2천여 호이며, 깔려죽은 사람 많았고 우마(牛馬)가 죽은 것이 4백여 필이다.」

이처럼 제주도의 바람은 매우 험악한 인상을 가졌다. 그러나 때로는 제주도민들은 바람과의 조화를 통해 바람을 극복해만 했던 존재이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바람은 아주 중요하다.

제주도에서 바람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이 「바람」을 부르는 이름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제주도의 ᄇᆞ롬[44]들 - 동쪽에서 부는 ᄇᆞ롬, 「샛ᄇᆞ롬」. 서쪽에서 부는 ᄇᆞ롬, 「갈ᄇᆞ롬」. 남쪽에서 부는 ᄇᆞ롬, 「마ᄇᆞ롬」. 북쪽에서 부는 ᄇᆞ롬, 「하늬ᄇᆞ롬」.

이외[45]에도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과 지역에 따라 부르는 이름도 가지가지이다.

---

44) 「바람」의 제주 방언.

45) 동북풍을 「놉ᄇᆞ름」, 「놉하니ᄇᆞ름」이라 하고, 동북동풍을 「놉새」, 서북풍을 「놉하니ᄇᆞ름」, 「놉하니」, 「섯하니ᄇᆞ름」이라 부른다. 동남풍을 「동마ᄇᆞ름」, 「든샛ᄇᆞ름」이라 하고, 서남풍을 「늦ᄇᆞ름」, 「든마ᄇᆞ름」, 「섯마ᄇᆞ름」 등으로 불렀다. 또 남쪽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건들마」, 늦가을 음산한 날 서북

SUNG KYUN KWAN UNIVERSITY

또한 제주도의 바람은 많은 문학작품에서 주요어로 사용된다. 강문신의 「억새」, 강통원의 「바람과 억새꽃」, 고명호의 「영농일기」[46] 등에서 바람은 제주도민의 삶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감성의 함축어로 주로 표현된다.

이와 같이 바람은 제주성을 설명하는데 빠질 수 없는 요소이다. 따라서 이번 절에서는 제주도의 바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바람의 특성

제주는 풍세(風勢)가 큰 지역으로 강풍다풍(強風多風)의 섬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여름에 비해 겨울이 대륙과 해양의 기압차가 크기 때문이다. 제주 평균풍속(2003년 기준)은 3.1m/s이고, 풍세가 가장 강한 지역은 고산을 중심으로 하는 산서지역(山西地域)으로 풍속 6.9m/s이다. 대체로 풍세가 강한 지역은 겨울 계절풍의 영향을 크게 받는 섬의 북서 해안지대이고, 약한 지역은 남동 해안지대이다. 계절별 풍세의 분포를 보면 봄에 바람이 강하게 부는데, 장마전선이 제주도로 올라오기 전까지 겨울 계절풍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는다.
고산(2003년) 지역의 풍속은 1월 중순이 가장 강한데 초속 9.7m 정도이고, 6월 중순과 7월 하순이 가장 약한 초속 4.7m 정도를 보인다.

소형선박이 항해 불가능한 최대풍속은 8m/s 이상의 강풍이 부는 경우로, 이러한 강풍(強風)은 1년 중 10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한 달 중 10일 이상 나타난다. 동중국해(東中國海)를 거쳐 제주도에 기착하거나 인근 지역으로 표류하는 상당 부분이 이 겨울의 북서풍을 만나는 경우이다. 그러나 5월부터 9월까지는 강풍일이 적어 9

쪽의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도지」, 초겨울에 갑자기 부는 바람을 「도지주제」, 회오리 바람을 「돗궤이」, 「돗공잇주제」, 「돗챙잇주제」라 명명했다. 산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산두새」, 휘파람을 「샛부름」, 양쪽에서 동시에 부는 바람을 「양숨」, 「양두새」, 어스름 바람(저녁이나 새벽의 어스레한 때 부른 바람)을 「어두엣부름」이라 했다.

46) 본 작품은 제주문인협회, 「제주문학전집」, 학문사, 1997에 실린 문학작품을 참고하였다.

SUNG KYUN KWAN UNIVERSITY

월의 경우 평균 6일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바람의 방향은 계절에 따라 크게 변한다. 제주해협(濟州海峽)은 1월부터 3월까지는 북서에서 북풍에 속하는 바람이 가장 많은데, 그 중 북북서풍의 출현빈도가 높다. 4월부터 6월까지 봄철에는 뚜렷한 주풍(主風)이 없고 사방에서 바람이 부나, 7월부터 10월까지 여름과 가을에는 북북동에서 남풍까지의 바람이 우세하다. 또 11월은 북북동에서 북서의 바람이, 12월은 북풍에서 서북서의 바람이 가장 많이 출현한다.

바다를 생활터전으로 삼고 사는 제주 사람들에게 바람은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극복해야 할 자연 현상이다. 때문에 제주도민들은 음력 2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바람의 신」이라 불리는 「영등할망」을 모시는 기간으로 정하여 「영등굿」을 지내는 등 정성을 다하고 있다. 이때는 해상활동을 삼가고 그 해의 해사(海事)에 대한 안전과 풍어 등을 기원한다.

2) 영등대왕(영등할망)

제주성에서 「바람」은 전해 내려오는 신화(神話, myth)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바로 「연등대왕」 혹은 「영등할망」이라고 부르는 신(神)에 관한 이야기이다. 바다를 생활터전으로 삼았던 제주도민들에게는 그 어떤 신보다도 중요하게 여긴다. 신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신화 속에는 그 지역 주민의 삶이 녹아있어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전해 내려오는 영등할망의 이야기이다.

> *영등대왕은 원래 성은 황씨요 이름은 영등이었다. 민간 사람, 저승사람, 용왕(龍王, 용궁)의 사람도 아니었다. 음력 2월이 가까운 어느 추운 날 영등이 큰 고동나팔을 불며 놀고 있었는데, 바다 위에서 큰 바람이 이는 소리가 들렸다. 황급히 바다 위로 올라와 보니 한림(翰林)읍 한수(翰洙)리 어*

SUNG KYUN KWAN UNIVERSITY

부들이 탄 배가 풍랑에 휩쓸려 사람을 잡아먹는 외눈박이 거인들의 땅으로 떠밀려 가는 것이다. 이를 본 영등대왕은, 선원들을 숨겨주었다가 배 뒤로 순풍을 불어주어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했다. 한수(翰洙)리 어부들이 무사히 고향에 도착할 때 쯤, 외눈박이들이 개를 데리고 나타나 영등을 세 도막으로 찢어 죽여 바다에 던져버렸다. 영등의 다리는 한수(翰洙)리 바다로 올라왔고, 잔등은 지금의 성산(城山)인 청산으로, 머리는 우도(牛島)로 떠밀려왔다.

영등은 몸은 죽었지만 영혼은 살아 제주에 봄바람을 불어 보내주는 신이 됐다. 제주 사람들은 이때부터 그를 영등대왕이라고 부르며, 영등이 죽은 음력 2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동안 영등대왕의 은공을 기려 영등굿을 지내게 됐다.[47]

영등굿이 있는 달을 「영등달」이라고 하며 이 무렵에 부는 차갑고 사나운 바람을 「영등바람」이라 한다. 눈으로 볼 수는 없으나 영등은 해마다 다른 모습을 하고 제주를 찾아온다. 주민들은 영등제를 지내는 날이 청명하면 마음씨는 좋지만 의복이 남루한 영등, 추우면 옷을 많이 입은 영등, 비가 오면 우장 쓴 영등이 들어온 것이라 믿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영등과 친숙해진 사람들은 영등하르방, 영등할망, 영등나장, 영등도령 등으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영등신」을 부르게 됐다.

3) 바람과 제주도민의 생활

제주도민이 바람을 이겨낸 생활의 지혜는 상술한 바와 같이 여러 방법이 있었다. 태풍을 이겨낸 초가와 살짝 밀기만 해도 넘어질 것 같은 돌담, 방풍시설 등이 그 예라 하겠다. 일본의 역사 소설가로서 소설작품보다는 「가도를 가다.」등 41권의

47) 김순이, 「제주도의 신화전설(1)」, 제주문화, 2001

SUNG KYUN KWAN UNIVERSITY

기행문시리즈로 더 유명한 시바 료타로(1923~ 1996)는 1986년 펴낸 탐라기행에서 다음과 같이 제주도 초가와 돌담에 대해 얘기 하고 있다.

> *오래된 집들이 땅에 납작 웅크리듯 하고 있는데 이는 바람을 피하기 위해서다. 또한 바람막이를 위하여 돌담으로 에워싸다...돌담은 틈새가 많다. 살며시 밀기만 하여도 허물어질 것 같은데 끄떡없이 견디니 참으로 명인의 솜씨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제주도민이 바람을 이겨낸 사실은 이국인의 눈에도 신기했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훌륭한 지혜가 숨겨져 있음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4. 제주도 건축에서 지역성 표현의 요소 정리

[표 3-7] 제주도의 지역성

지역성 형성의 요소	지역성의 요소		지역성 요소의 건축적 표현
자연환경	지 형		형태에 의장적 표현 – 지붕 – 입면
	지 세		
	기 후		
인문사회환경	풍 습	연자매 관리집단	공간 및 배치 방식에 표현 – 전통주거의 배치방식 – 여성 공간(정지–부엌)
		용수집단	
		수눌음(품앗이)	
		기 타	
	여 성	가족제도	
	장 자		
	신 화	오 브 제	상징적인 형태로 표현

지금까지 제주도 건축에서 지역성 표현의 요소를 살펴보았다.

제주도의 지역성은 제주도만의 독특한 자연환경과 인문·사회 환경에 의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렇게 형성된 지역성은 제주도민의 삶에 반영될 뿐만 아니라 건축에도 큰 영

SUNG KYUN KWAN UNIVERSITY

향을 주었다. 왼쪽 [표 3-7]은 제주도 건축에 지역성의 표현 방법에 관한 사항이다.

이를 토대로 제주도 건축에서 지역성 표현의 요소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 [표 3-8]과 같다.

[표 3-8] 제주도 건축에서 지역성표현의 요소

지역성 표현방법	
표현요소	표현방법
① 배치방식	관습에 의한 배치방식
	자연에 대한 순응
② 개념 해석	자의적 해석을 통해 표현
③ 외벽의 특성	제주의 주변 재료 사용
④ 지붕의 특성	자연환경에 대한 해석
⑤ 오브제	전통 오브제의 해석
⑥ 환경표현	바람에 대한 대응
⑦ 높이	가로에 대한 세로의 높이

① 배치방식은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제주도 전통민가의 배치방식을 차용하거나 재해석하여 배치하는 방법과 나머지 하나는 제주도의 주변(자연)환경에 순응하여 배치하는 방법이다.

② 개념 해석은 제주의 자연환경이나 관습, 전통민가의 배치방식 등을 모티브로 작가의 상상력 혹은 합리적인 설계 프로세스를 통해 재해석하여 건축적으로 표현한 방법이다.

③ 외벽의 특성은 외벽의 의장적 표현방법, 특히 재료와 전통민가의 입면 특성을 해석을 통한 표현 방법을 뜻하며

④ 지붕의 특성은 지붕의 재료와 지붕이 자연(특히, 비와 바람을 말함.)에 효과적인 대응 형태를 표현한 방법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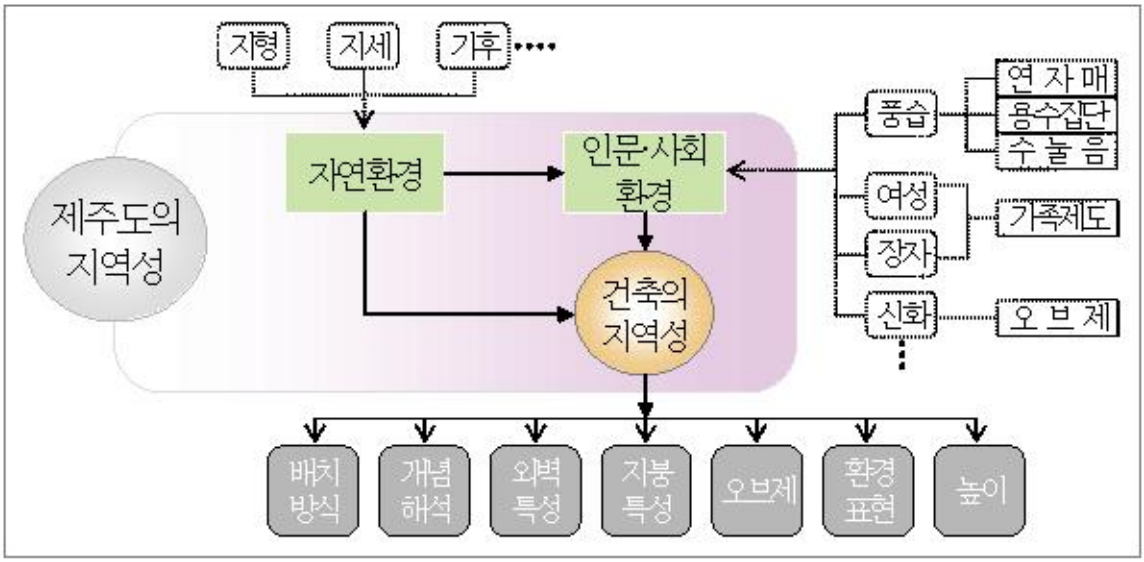
⑤ 오브제는 제주도의 전통 상징물들을 통한 건축의 오브제화를 얘기한다.

⑥ 환경표현은 바람에 대한 대응방법이 형태적 공간적으로 어떻게 해석하여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⑦ 높이는 스케일에 관한 사항으로 가로에 대한 세로의 높이를 얘기한다.

지금까지의 사항을 총 정리하여 보면 다음 [그림 3-21]과 같다.

SUNG KYUN KWAN UNIVERSITY



[그림 3-21] 제주도 건축에서 지역성 표현의 요소 개념도

SUNG KYUN KWAN UNIVERSITY

SUNG KYUN KWAN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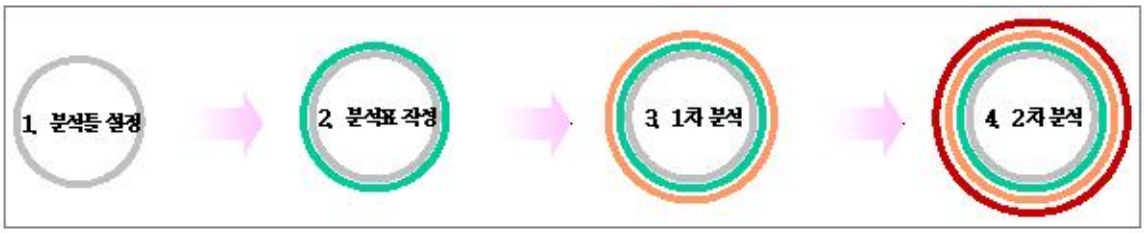
Ⅳ. 제주성 표현 요소를 통한 건축물 분석

SUNG KYUN KWAN UNIVERSITY

SUNG KYUN KWAN UNIVERSITY

1. 분석의 방법

본 장에서는 「Ⅲ장」까지의 연구를 토대로 제주도 건축의 지역성을 표현요소 즉, 배치 방식이나 개념 해석, 오브제 등을 통해 대상 건축물을 선정하고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그림 4-1]



[그림 4-1] 분석 프로세스(process)

첫째, 분석틀 설정.

「3장」에서 지역성의 표현요소를 분석의 잣대로 삼고 [표 4-1]과 같이 분석의 틀을 설정하였다.

[표 4-1] 지역성 분석의 틀

지역성 표현방법						
① 표현요소	② 표현방법	③ 지역성 결여 → 지역성 충족				
		1	2	3	4	5
배치방식	관습에 의한 배치방식					
	자연에 대한 순응					
개념 해석	자의적 해석을 통해 표현					
외벽의 특성	제주의 주변 재료 사용					
지붕의 특성	자연환경에 대한 해석					
오브제	전통 오브제의 해석					
환경표현	바람에 대한 대응					
높이	가로에 대한 세로의 높이					

SUNG KYUN KWAN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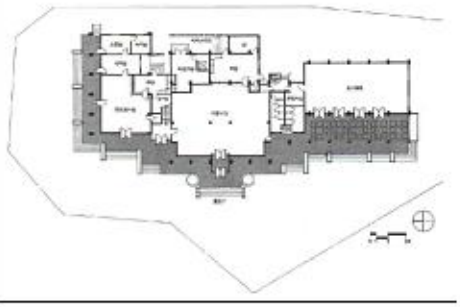
분석틀에서 ① 표현요소는 3장까지 진행된 연구에서 도출한 7까지 지역성 요소이다.

② 표현방법은 표현요소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③은 왼쪽(1번)으로 갈수록 「지역성의 직설적 표현」으로 정의 하였고 오른쪽(5번)으로 갈수록 「지역성의 재해석적 표현」으로 정의한다.

둘째, 분석표 만들기.

분석의 틀을 통해 대상 건축물을 [표 4-2]와 같이 각각 분석표를 설정하여 [부록-2]와 같이 체크하고 표현하였다.

[표 4-2] 제주도 건축의 지역성 분석 틀

① 건축개요			지역성 표현방법						
대지위치		제주시구좌읍월정리	표현요소	표현방법	결	여	→	충	족
					1	2	3	4	5
면적	대지면적	2,527.00㎡	배치방식	관습에 의한 배치방식	●				
	건축면적	665.90㎡		자연에 대한 순응	●				
	연 면 적	899.55㎡	개념 해석	자의적 해석을 통해 표현	●				
규모	지 상	2층	외벽의 특성	제주의 주변 재료 사용					●
	지 하		지붕의 특성	자연환경에 대한 해석					●
설계자(담당)		김창우	오브제	전통 오브제의 해석					
준공년도		1985	환경표현	바람에 대한 대응	●				
			높이	가로에 대한 세로의 높이				●	
내용참조			그림출처						
② 사 진			③ 도 면						
									

SUNG KYUN KWAN UNIVERSITY

④ 내 용
본 건물에서 가장 특이한 건물의 지붕은 제주도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현무암 잡석을 사용하였다. 원래 제주도 민속 가옥들이 다 그러하듯이 한라산과도 같은 15도 경사의 완만한 지붕처리가 특징인 점에 유의하여 이를 수용한 것이다. 현대건축물이 이러한 제주 민속주택과 같은 지붕처리를 일률적으로 해야 할 정도의 성질은 아니지만 관광지의 휴게소로서 제주관광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바람과 돌로 일컬어지는 제주의 환경에 순응한다고 할지_ 생활환경과 풍토에 어울리는 모습으로써 건물의 성격을 대변해 주고 있다. 이 건물의 재료는 전체적으로 현무암이다. 현무암의 어두운 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만, 콘크리트 몰탈 위에 잡석(현무암)을 입혀 제주 건축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다.

① 건축개요는 각 해당 건축물의 일반적인 사항을 기술하였다.

②, ③은 각각 사진과 도면은 답사나 문헌, 일반 건축전문지 등을 통해 첨부하였다. ④ 내용은 인터뷰와 문헌, 일반 건축전문지에서 비평한 내용 등을 인용하여 자료의 객관화를 꾀하였다.

셋째, 1차 분석.

분석표를 참고로 1차 분석을 한다. 제주도 지역에 근대 이후 세워진 건축물들의 분포를 파악한다. 1차 분석은 현황분석이다. 즉, 모든 대상 건축물의 분석표를 참고로 종합분석표를 설정한다. 이렇게 설정된 종합분석표를 정리·분석한다. 그 후 각 분석요소에 따라 종합하고 정리·분석한다. 전자가 총체적인 분석이었다면 후자는 부분을 참고로 구체적인 분석이다. 현황이 분석되었으면 다음은 시기별 분석이다.

넷째, 2차 분석.

2차 분석은 1차 분석을 참고로 제주도의 시기별 분석과 사회 및 도시의 변화를 시기별로 분석한다. 그 후 각 유형 분류를 통해 소결의 과정을 갖는다.

SUNG KYUN KWAN UNIVERSITY

2. 대상 건축물 선정

제주도의 근대 이후 세워진 비 주거건축물은 부록1과 같다. 그 중 본 연구를 위해 대상 건축물을 선정하였다. 선정 기준은 답사와 문헌 등에 의해 선정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주도에서 근대 이후 세워진 비 주거건축물
② 제주도, 「제주도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보고서」, 제주도, 2003에 조사된 비 주거건축물
③ '99건축문화의해조직위원회, 「전국건축문화자산-제주」, '99건축문화의해조직위원회, 1999에 조사된 비 주거건축물
④ 제주도 내 건축상 중 입상한 비 주거건축물
- 제주시 건축상(1995-2006)
- 서귀포시 칠십리 건축상(-2006)
- 제주 건축문화 축제(2006년부터 시행)
⑤ 일반 건축전문지
- 건축문화, C3_Korea, 공간, 플러스 등
⑥ 현존하는 건축물
- 단, 부서졌지만 자료가 충분하고 연구에 가치가 있는 건물은 포함하였다.
⑦ 답사
⑧ 설계사무실에서 발행한 포트폴리오

위 내용을 토대로 선정된 대상 건축물은 다음 [표 4-3]과 같다.

SUNG KYUN KWAN UNIVERSITY

[표 4-3] 연구 대상 건축물

연번	코드번호	건물명(옛 건물명)	주 소	준 공	설계자	구 조	용 도 (옛 용도)	규모				지붕형태	마감재료	비고
								층수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01	A 01	강병대교회	남제주군 대정읍 상모리 3846	1952	국군 공병대	조적조	교육시설	지상 1층	-	595.05	595.05	박공지붕	현무암	
02	A 02	시흥초등학교 교사	남제주군 성산읍 시흥리 1001	1958	-	석 조	(교육시설)	지상 1층	7,933.92	343.81		박공지붕	현무암	
03	A 03	모슬포교회 사랑의 집 (모슬포교회 예배당)	남제주군 대정읍 하모리 805	1954	-	석 조	종교시설	지상 1층	-		119.01	박공지붕	현무암	
04	A 04	대정보건소 (대정면사무소)	남제주군 대정읍 상모리 3862-1	1955	-	조적조	업무시설	지상 2층	-	152.07	297.53	우진각지붕	제주석	
05	A 05	펜크스 골프클럽하우스	남제주군 안덕면 상천리 산 62-8	1998	이타미 준	철근콘크리트	상업시설	지상 2층	878,665.00	2,295.00	2,295.95	박공지붕	적삼목 우드 사이딩	
06	A 06	제주 영화박물관	남제주군 남원읍 남원리	1997	김석원	철근콘크리트	전시시설	지상 2층, 지하 1층	-		2,106.00	반돔형지붕	현무암 롬쉰	
07	B 01	서화리사무소 (구좌면사무소)	북제주군 구좌읍 서화리 1465-1	1950	-	석 조	업무시설	지상 1층	-	-	-	우진각지붕	현무암	
08	B 02	금능 영성수련장 (천주교 한림성당 금능공소)	북제주군 한림읍 금능리	1964	임 마르티치오	콘크리트 피널(3安式)	종교시설	지상 1층	-	-	-	-	노출콘크리트	
09	B 03	대한예수교 고산교회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 2192	1964	-	석 조	종교시설	지상 1층	-		125.62		현무암	
10	B 04	남읍리 새마을 도정공장	북제주군 이월읍 남읍리	1970	-	석 조	공업시설	지상 1층	-	-	132.24	박공지붕	현무암	
11	B 05	이기풍 선교회관	북제주군 조천읍 와흘리 산 14	1990년대	-	철근콘크리트	교육시설	지상 2층, 지하 1층	-	-	6,412.27	박공지붕	제주석 + 솜이	
12	B 06	한림공원 휴게소 및 안내소	북제주군 한림읍 협재리 2487	1986	김창우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지상 1층	-	-	-	돔형지붕	현무암	
13	B 07	이월문화체육관	북제주군 이월읍 고내리 1356번지	1994	김석윤	철근콘크리트	체육시설	-	48,567.00	2,279.00		등근지붕	현무암 + 수성페인드	
14	B 08	한장굴 휴게소	북제주군 구좌읍 월정리	1985	김창우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지상 2층	2,527.00	665.90	899.55	등근지붕	현무암	
15	C 01	제주 제일고등학교	제주시 노형동 810	1950	김상식	철근콘크리트	교육시설	-	-	-	-	평지붕	드라이비드	
16	C 02	서문시장 (제주 시청사)	제주시 삼도2동 1042	1959	박진후	조적조	상업시설 (업무시설)	지상 2층	-	581.82	1,150.42	우진각지붕	시멘드 몰 탈뷔 페인드	
17	C 03	제주시 시민회관	제주시 이도1동 1700-1	1964	김태식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집회시설	지상 3층, 지하 2층	1,675.10	-	2,669.45	평지붕+박공지붕	타일 + 시멘드 몰 탈뷔 페인드	
18	C 04	동문시장·시네하우스 (동문시장·동양극장)	제주시 일도1동 1146	1965	김한섭	철근콘크리트	상업시설	지상 2층, 극장부 3층	-	-	8,680.00		노출콘크리트 + 타일	
19	C 05	제주교육대학교 본관	제주시 화북1동 4810	1971	김한섭	철근콘크리트	교육시설	지상 4층	-	-	4,498.00	평지붕 + 외 박공지붕	시멘드 몰탈 뷔 페인드	
20	C 06	제주교육청사	제주시 연동 811-46	1978	김희수	철근콘크리트	교육시설	지하 1층, 지상 4층	-	-	1,627.00	평지붕	제주석	
21	C 07	제주도청	제주시 연동 312-1	1978	김희수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지상 4층	-	-	-	우진각지붕	제주석 + 시멘드 몰탈 뷔 페인드	
22	C 08	제주대학교 캠퍼스	제주시 아라1동 산1	1979	이광노	철근콘크리트	교육시설	-	-	-	-	평지붕	현무암 외	
23	C 09	신제주성당	제주시 연동 280-19	1981	김석윤	철근콘크리트	종교시설	지상 2층, 지하 1층	-	-	2,009.00	박공지붕	제주석 + 시멘드 몰탈 뷔 페인드	
24	C 10	제주 민속자연사 박물관	제주시 일도2동 996	1983	김홍식	철근콘크리트	전시시설	지상 2층, 지하 1층	-	-	5,299.00	우진각지붕	제주석 + 시멘드 몰탈 뷔 페인드	

SUNG KYUN KWAN UNIVERSITY

25	C 11	제주 우당도서관	제주시 건입동 818	1984	김종성	철근콘크리트	교육시설	지상 4층	-	-	-	우전각지붕	시멘트 몰탈 위 페인드	
26	C 12	제주시 공무원교육원	제주시 아라동 868-20	1984	김석윤	철근콘크리트	교육시설	지상 3층	-	-	6,909.65	등근지붕+평지붕	제주석 + 시멘트 몰탈 위 페인드	
27	C 13	문예회관	제주시 일도2동 852	1988	김홍식, 김삼식	철근콘크리트	전시 및 집회시설	지상 3층, 지하 1층	16,685.72	4,271.84	5,811.56	우전각지붕	제주석	
28	C 14	제주도 의회의사당	제주시 연동 811-45	1989	강요준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지상 4층, 지하 1층	-	-	5,909.64	우전각지붕	제주석 + 시멘트 몰탈 위 페인드	
29	C 15	탐라도서관	제주시 노형동 1479	1989	김석윤	철근콘크리트	교육시설	지상 3층, 지하 1층	-	-	4,220.70	우전각지붕+평지붕	송이벽돌	
30	C 16	대한항공 제주지점 사옥	제주시 이도1동 1690-2외 3필지	1990	김성래	철근콘크리트	상업시설	지상 6층, 지하 2층	3,543.70	2,402.29	16,685.30	평지붕	한사 복층유리	
31	C 17	제주도 노인복지회관	제주시 삼도2동 44-1	1993	김석윤	철근콘크리트	의료시설	지상 2층, 지하 1층			1,216.00	등근지붕	송이벽돌	
32	C 18	탑동 해변공연장	제주시 삼도2동 1262번지	1995	김용원	철근콘크리트	집회시설	지상 3층, 지하1층	9,917.25	1,970.36	5,071.49		대리석	
33	C 19	세기건설 사옥	제주시 노형동 977-1	1996	김용원	철근콘크리트	상업시설	지상 9층, 지하 1층	888.95	526.64	6,149.47	평지붕	대리석	
34	C 20	제주 영상미디어센터 (제주 관광민속 타운)	제주시 일도 2동 887-20	1996	김희수	현골 철근콘크리트	상업시설	지상 2층, 지하 1층	24,455.00	8,468.45	5,599.27	평지붕	제주석	
35	C 21	제주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제주시 이도2동 890	1996	허영주	현골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지상 5층, 지하 2층	4,588.60	2,142.09	18,804.58	평지붕	대리석	
36	C 22	제주교육박물관	제주시 이도2동 589-14	1996	강행심	철근콘크리트	전시 및 집회시설	지상 2층, 지하 1층	-	-	2,854.89	우전각지붕	제주석	
37	C 23	제주학생회관 ·제주도립도서관	제주시 이도2동 414	1996	강행심	철근콘크리트	교육시설	지상 3층, 지하 1층	24,730.00	4,167.00	7,644.00	평지붕+등근지붕	수성페인드 + 타일	
38	C 24	제주 삼성어린이집	제주시 이도1동 1692-22	1997	삼우	철근콘크리트	상업시설	지상 3층, 지하 1층	-	-	982.10	등근지붕+평지붕	송이타일	
39	C 25	제광교회	제주시 도남동 919-8	1997	김석윤	철근콘크리트	종교시설	지상 3층, 지하1층	-	-	-	평지붕	화강석	
40	C 26	신광빌딩	제주시 도남동 83-54	1998	오용화	철근콘크리트	상업시설	지상 6층, 지하 1층	223.40	133.96	800.56	평지붕	대리석	
41	C 27	예치과 의원	제주시 도남동 75-3	1998	임성추	철근콘크리트	상업시설	지상 6층, 지하 1층	477.00	284.84	1,595.00	착공평지붕	붉은 사암	
42	C 28	제주산업정보대학 학생회관	제주시 영평동 2235	1998	김유봉	철근콘크리트	교육시설	지상 3층, 지하 1층	72,465.00	982.77	8,398.19	평지붕	제주석	
43	C 29	제주시 기적의 도서관	제주시 이도2동1128-1	2004	정기용	철근콘크리트	교육시설	지상 2층	-	-	-	경사지붕	수성페인드	
44	C 30	다음 글로벌미디어 센터	제주시 오등동 1730-8	2006	유석연	철근콘크리트	상업시설	지상3층, 지하1층	9,917.25	1,970.36	5,071.49	평지붕	적삼목 우드 사이딩	
45	C 31	제주대학교 병원	제주시 아라동	2009 (진행중)	삼 우	철근콘크리트	의료시설	지상5층,지하3층	-	-	75,553.00	평지붕	-	
46	C 32	성내교회	제주시 삼도 일동 905	1990년대	-	철근콘크리트	종교시설	지상 2층				착공지붕	제주석	
47	C 33	제주해우	제주시 외도동 1921	1990년대	한동신	철근콘크리트	상업시설	지상 4층, 지하 1층	-	-	761.60	물결지붕	수성페인드	
48	C 34	탐라교육원 연수동	제주시 오라동 산100	1992	강행심	철근콘크리트	교육시설	지상 2층, 지하 1층	880.00	1,027.85	1,510.70	우전각지붕	현무암+송이	
49	C 35	현대해상화재보험 제주사옥	제주시 연동	2000	간 삼	현골 철근콘크리트	상업시설	지상 16층, 지하 6층	-	-	20,825.20	평지붕	유리커튼월	
50	C 36	호텔하니크라운 (제주관광호텔)	제주시 이도1동 1815	1968	김태식	철근콘크리트	숙박시설	지상 4층, 지하 1층	-	-	1289.00	평지붕	현무암 + 수성페인드	
51	C 37	구 제주대학교 본관	제주시	1964	김중업	철근콘크리트	교육시설	지상 2층	-	-	-	되운 평지붕	노출콘크리트	

SUNG KYUN KWAN UNIVERSITY

52	C 38	제주 전문건설회관	제주시 노형동 710-10	2005	이충기	철근콘크리트	상업시설	지상 9층, 지하 2층	1,070.00	685.07	4,851.55	점지붐	라임스톤	
53	D 01	소라의 성	서귀포시	1969	김중업	철근콘크리트	상업시설	지상2층	-	-	-	돔형지붐	현무암 + 수성페인드	
54	D 02	구 남제주군청사	서귀포시	1964	김한섭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지상 2층	-	-	925.00	점지붐	현무암 + 시멘드 몰탈 뮈 페인드	
55	D 03	기당 미술관	서귀포시 남성로 32	1984	김홍식	철근콘크리트	전시시설	지상 2층	-	-	-	돔형지붐	제주석	
56	D 05	제주 컨벤션센터	서귀포시 중문동	2002	주) 공 간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집회시설	지상 5층, 지하 2층	54,876.00	15,866.00	62,013.22	돔근지붐	유리커튼월	
57	D 06	강정교회	서귀포시 강정동 4400-4	1998	김재권	철근콘크리트	종교시설	지상 3층	-	-	820.90	계단식점지붐	노출콘크리드 + 시멘드 몰탈	
58	D 07	서귀포시 월드컵 경기장	서귀포시 법환동 914 일원	2001	일건건축	철근콘크리트	체육시설	지상 4층, 지하 2층	13,041.22	2,061.75	6,068.87	점지붐	노출콘크리드	
59	D 08	제주 밀레니엄관	서귀포시 중문동 2572번지외	2008	현신 건우	철근콘크리트	집회시설	지상 2층, 지하1층	27,881.00	4,449.88	7,129.58	점지붐 + 솟을지붐	화강석	
60	D 09	서귀포 기적의 도서관	서귀포시	2004	정기용	철근콘크리트	교육시설	지상 2층	-	-	-	-	-	

○ C25-제광교회는 자료 물증분으로 제외하기 때문에 총 59개의 대상건축물이 연구대상임.

[표 4-4] 시군 분포 현황 분류

시·군	교육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공업시설	집회시설	전시집회	종교시설	업무시설	상업시설	체육시설	전시시설	계
제주시	12	2	1	-	2	2	2	8	12	-	1	87
서귀포시	1	-	-	-	2	-	1	1	1	1	1	8
남제주군	2	-	-	-	-	-	1	1	1	-	1	6
북제주군	1	-	-	1	-	-	2	3	-	1	-	8
계	16	2	1	1	4	2	6	8	14	2	3	59

[표 4-5] 건립연대 유형별 분류

시·군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이후	계
제주시	2	4	4	7	15	5	87
서귀포시	-	2	-	1	1	4	8
남제주군	4	-	-	-	2	-	6
북제주군	1	2	1	2	2	-	8
계	7	8	5	10	20	9	59

[표 4-6] 유형 및 건립연대 현황

시·군	교육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공업시설	집회시설	전시집회	종교시설	업무시설	상업시설	체육시설	전시시설	계
1950년대	3	-	-	-	-	-	1	2	1	-	-	7
1960년대	1	-	1	-	1	-	2	1	2	-	-	8
1970년대	3	-	-	1	-	-	-	1	-	-	-	5
1980년대	3	-	-	-	-	2	1	3	-	-	1	10
1990년대	4	1	-	-	1	1	2	1	8	1	1	20
2000이후	2	1	-	-	2	-	-	-	3	1	-	9
계	16	2	1	1	4	3	6	8	14	2	2	59

[표 4-7] 건립연대 및 구조 유형별 분류

시·군	철근콘크리드	조적조	석조	철골조	철근콘크리드+철골	철골·철근	콘크리드패널	계
1950년대	1	3	3	-	-	-	-	7
1960년대	5	-	1	-	1	-	1	8
1970년대	4	-	1	-	-	-	-	5
1980년대	10	-	-	-	-	-	-	10
1990년대	18	-	-	-	-	2	-	20
2000이후	7	-	-	-	1	1	-	9
계	45	3	5	-	2	3	1	59

○ 현재 제주도의 행정체제는 2005. 5부터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기존에 행정체제(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 북제주군)를 참고하고 있다.

SUNG KYUN KWAN UNIVERSITY

3. 종합분석표를 통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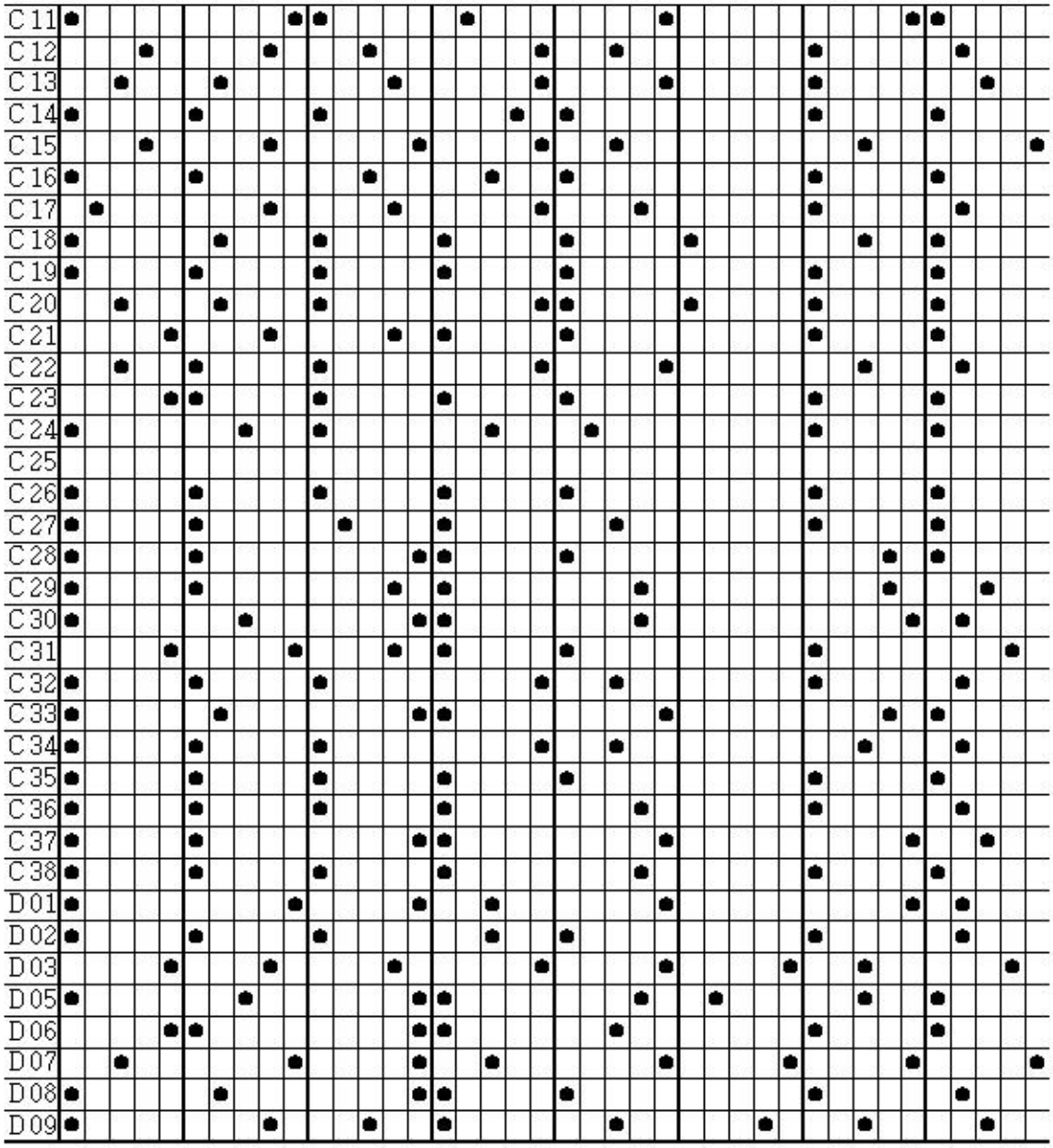
3.1 종합분석

분석틀을 토대로 [부록-2]와 같이 분석표를 만들고 종합하여 「종합분석표」를 작성하면 다음 [표 4-8]과 같다.

[표 4-8] 종합분석표

코드	패치방식										개념 해석					외벽의 특성					지붕의 특성					오브제					환경표현					높 이				
	관 습					자 연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A01	●					●					●									●			●								●					●				
A02	●					●					●									●				●							●					●				
A03	●					●					●									●		●										●					●			
A04	●					●					●									●			●								●					●				
A05	●								●				●			●									●				●					●					●		
A06	●									●					●					●					●					●							●				
B01	●					●					●									●				●							●					●				
B02	●					●					●					●									●							●					●				
B03	●					●					●									●		●									●							●			
B04	●					●					●									●			●								●							●			
B05				●					●		●									●					●							●								●	
B06	●					●							●							●					●					●					●						
B07				●			●								●					●			●								●								●		
B08	●					●					●									●					●							●							●		
C01	●									●	●					●					●											●					●				
C02	●					●					●								●		●											●					●				
C03	●					●					●					●						●										●					●				
C04	●					●					●					●								●								●									
C05	●					●					●					●						●										●							●		
C06	●					●					●								●		●											●					●				
C07	●					●					●								●		●											●					●				
C08			●							●	●							●			●											●							●		
C09	●									●					●					●				●				●											●		
C10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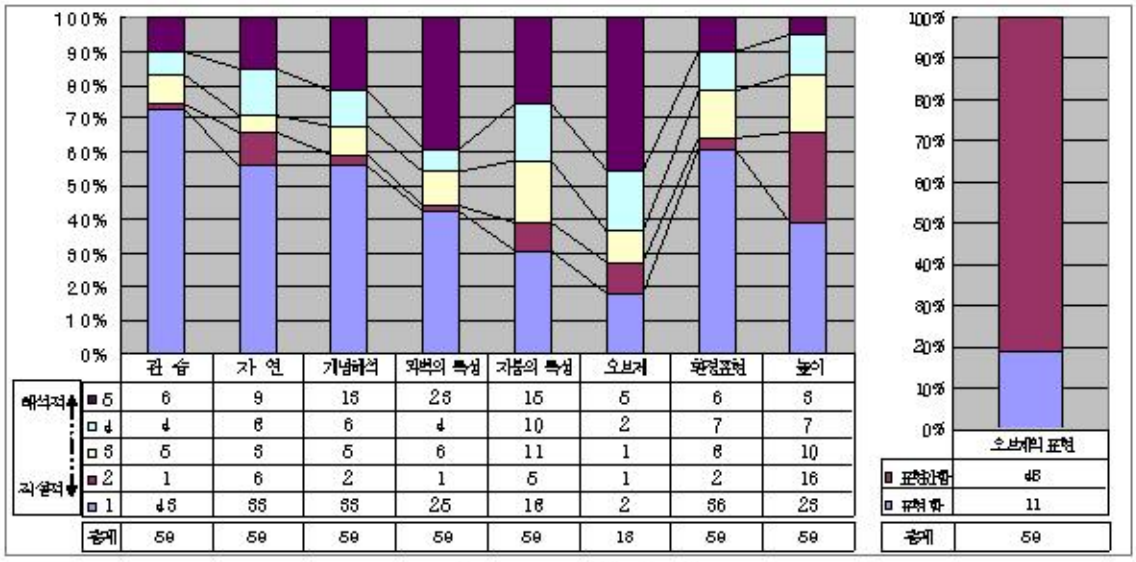
SUNG KYUN KWAN UNIVERSITY



본 연구의 대상건축물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배치방식에 있어 관습에 의한 배치와 자연에 순응한 배치 모두 대부분 1번에 표시되어 치우치는 경향이지만 C08부터 C23까지는 몇몇이 4번과 5번 쪽으로 표시되어 표현 되었다. 개념해석도 배치방식과

SUNG KYUN KWAN UNIVERSITY

비슷한 경향을 보이며 반대로 외벽의 특성과 지붕의 특성은 5번으로 치우친다. 오브제에 대한 표현은 A05를 비롯해 몇 개의 건물이 표현하고 있으나 나머지 대부분은 표현하지 않는다. 환경표현에서는 A01에서 B06까지, C28에서 D09까지는 5번 쪽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나머지 부분은 1번 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다. 높이는 5번 쪽과 1번 쪽 모두 고루 나타나고 있다. 종합분석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다음 [그림 4-2]와 같이 그래프로 표현하였다.



[그림 4-2] 종합분석 그래프

이상에서 보면 제주도 건축에 지역성 표현은 작가가 개념을 재해석하여 표현하기 보다는 외벽과 지붕의 형태와 재료를 건축물에 직접적으로 표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제주도 건축에서 지역성 표현은 건축의 리얼리티를 추구하는 것으로 형태의 감각적(특히 시각적 표현) 표현이라 분석해 볼 수 있다. 물질 혹은 재료의 리얼리티(물성)는 감각을 통해 느낄 수 있는 중요한 특성이고 재료의 본질을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공간 혹은 개념의 리얼리티(reality)를 통

SUNG KYUN KWAN UNIVERSITY

해 작가의 재해석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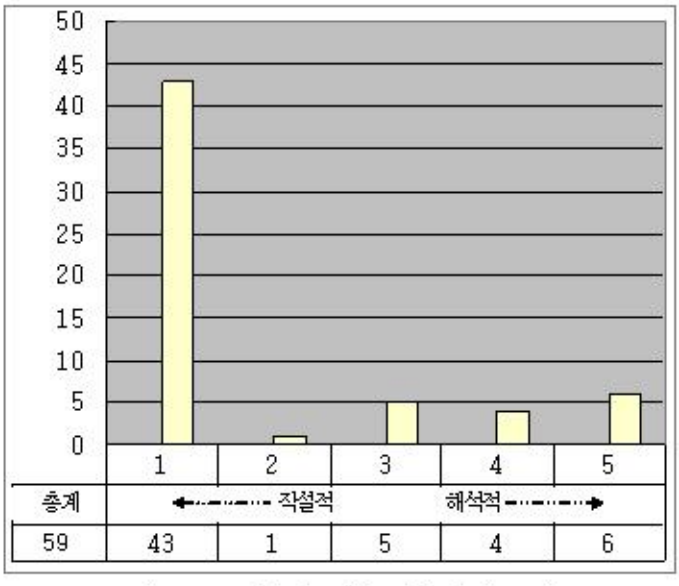
3.2 요소별 현황 분석

이번 절에서는 종합분석을 토대로 구체적인 분석을 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각 요소를 세분화 하였고 이를 그래프로 만들어 정리하고자 한다.

3.2.1 배치방식

배치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관습에 의한 배치이다. 관습에 의한 배치는 「Ⅲ장」에서도 언급했지만 제주도민의 삶과 뗄 수 없는 요소이므로 삶의 방식과도 직접 연결된다. 그리고 자연에 대한 순응이다. 근대건축에서 간과한 자연은 현재 그 중요성에 의해 비판받고 있다. 특히 장소성의 회복을 통한 장소의 의미를 중요시 여기게 되면서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자연을 중요한 자원으로 여기는 제주도에서는 두 말할 것도 없다.

오른쪽 [그림4-3]은 배치방식 중 관습에 의한 배치 방식이다.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 59개의 건물 중 43개가 1번에 해당하며 2번은 1개 3번은 5개가 해당 한다. 이것에서 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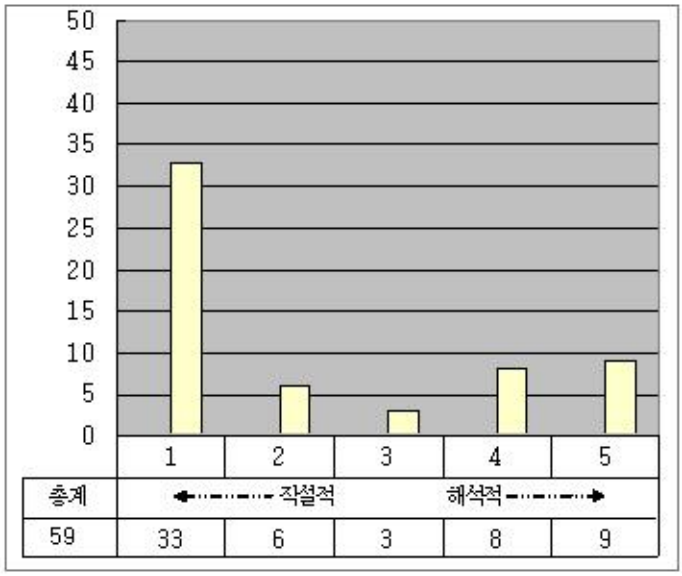


[그림 4-3] 관습에 의한 배치 방식 그래프

SUNG KYUN KWAN UNIVERSITY

수 있듯이 44개 이상이 지역성의 직설적 표현 쪽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4번이 4개 5번이 6개 나타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성의 해석적 표현은 10개가 조금 넘는다. 따라서 관습에 의한 건물의 배치보다는 다른 요소에 의한 배치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른쪽 [그림 4-4]는 배치 방식 중 자연에 대한 순응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 59개의 건물 중 33개가 1번에 해당하고 2번은 6개 3번은 3개가 해당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성의 직설적 표현이 35개가 넘고 있다. 반면에 4번이 8개 5번이 9개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역성의 해석적 표현은 17개 이상이다. 따라서 자연에 대한 순응하는 지역성 표현의 배치보다는 다른 배치 요소에 의해 배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4] 자연에 대한 순응으로서 배치 그래프

[그림 4-3]과 [그림 4-4]를 비교하여 보면 전체적으로 지역성의 직설적 표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관습에 의한 사회적 환경이나 자연에 의한 자연적 환경 이외에 다른 요인에 의한 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2.2 개념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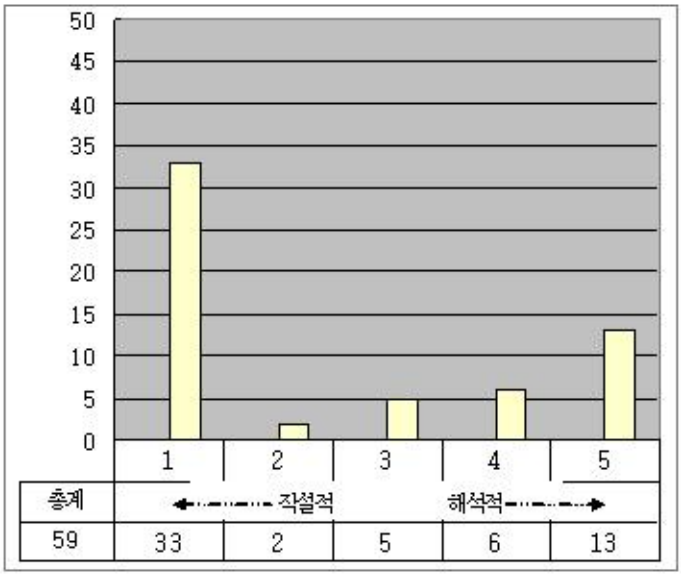
개념(Concept)은 작가가 건축설계 프로세스(Process)에서 논리체계를 형성하는 가장 기초가 되며 가장 먼저 설정해야 하는 설계 프로세스의 요소 중 하나이다.

SUNG KYUN KWAN UNIVERSITY

개념에서 지역성은 그 지역과 관계를 가질 때에만 나타난다. 제주도에서는 바람과 같은 자연환경이나 상징물, 전통 민가의 배치방식이나 올래, 초가의 지붕, 오름, 전통 띳목인 테우의 그물 등을 개념으로 설정한다. 설정된 개념은 작가의 재해석이나 직설적 표현을 통해 형태로 구체화된다.

오른쪽 [그림4-5]는 개념해석에 대한 그래프이다. 총계 59개 중 1번과 2번이 각각 33개, 2개이고 3번이 5개이다. 따라서 지역성의 직설적 표현은 35개 이상으로 나온다. 4번과 5번은 각각 6개, 16개로 지역성의 해석적 표현은 22개 이상 나온다.

대상건축물의 개념 해석의 특징을 살펴보면 크게 물리적인 것과 비 물리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특성을 시기별로 분석해 보면 다음 [표 4-9]와 같다.



[그림 4-5] 개념 해석 그래프

[표 4-9] 시기별 개념 해석

구 분	시 기	코드번호	개 념	해 석
물리적	1950년대	-	-	-
	1960년대	C37	기계	웅비하는 비행기 혹은 선박의 이미지를 재해석
	1970년대	-	-	-
	1980년대	D03	눌	몸체 - 눌의 이미지를 재해석
			초가	지붕 - 조가 지붕의 이미지를 재해석
		B06	눌	눌의 이미지를 재해석
	1990년대	C18	방사탑	방사탑의 이미지를 직설적으로 표현
		C20	연대	연대의 이미지를 직설적으로 표현

SUNG KYUN KWAN UNIVERSITY

	2000년 이후	D05	제주도	제주도의 이미지를 직설적으로 표현
		D07	오름	본체 – 오름의 이미지를 재해석
			테우	지붕 – 테우의 그물을 이미지화 하여 형태표현
		D08	주상절리, 한라산	주상절리와 한라산의 이미지를 재해석하여 형태로 표현
		D09	오름	오름의 이미지를 재해석
비 물리적	1950년대	–	–	–
	1960년대	D01	바람	바람에 대한 대응으로 형태표현
	1970년대	–	–	–
	1980년대	C09	바람	바람에 대한 대응으로 형태표현
		C10	전통요소	안마당의 기능적 구심을 재해석
		C12	올래	전통 민가의 특성인 올래를 공간으로 재해석
		C13	전통요소	전통민가의 배치를 전시공간의 기능에 맞게 재해석
		C15	전통요소	전통민가의 배치를 공간으로 재해석
	1990년대	C16	바람	바람에 대한 대응으로 형태표현
		C17	전통요소	전통민가의 배치를 공간으로 재해석
		C21	올래	올래를 공간으로 재해석
		C22	전통요소	전통민가의 배치를 본 건축물의 배치로 직설적 해석
		C23	전통요소	전통민가의 배치를 본 건축물의 배치로 직설적 해석
		A06	바람	바람에 대한 대응으로 형태표현
		D06	올래	올래를 공간으로 재해석
		C28	바람	바람에 대한 대응으로 형태표현
		B07	전통요소	전통민가의 배치를 본 건물의 배치로 재해석
		C33	바람	지붕의 형태를 바람에 대한 대응으로 재해석
	2000년 이후	D07	바람	바람에 대한 대응으로 형태표현
		C29	바람	바람에 대한 대응으로 형태표현
		C30	바람	바람과의 조화
		C31	전통요소	전통민가의 배치를 본 건물의 배치로 재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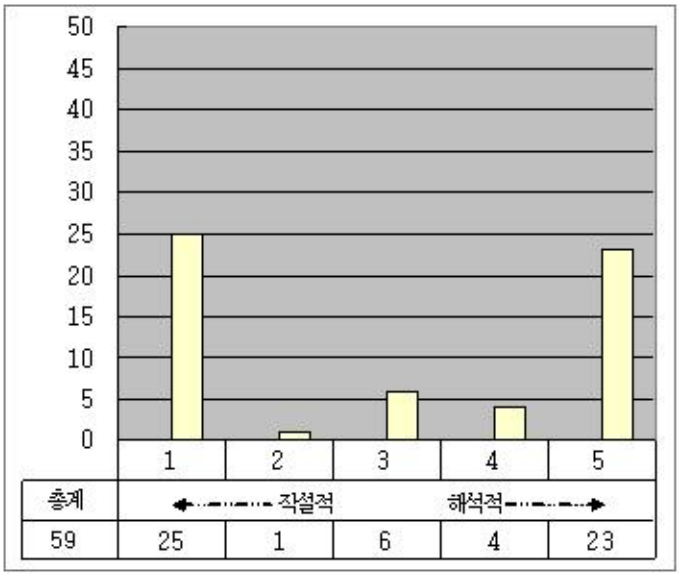
3.2.3 외벽의 특성

외벽은 건축 의장요소의 하나이다. 제주도 건축에서 외벽의 특성은 전통 민가의 입면(장막벽)을 재해석 한다든가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본 연구의 대상건축물들은 대개 후자에 속하고 있다.

다음 [그림 4-6]은 외벽의 특성 그래프이다. 여기서 외벽의 특성이라 함은 주변재료의 사용 유무나 부분적 사용과 민가의 입면을 재해석한 것을 뜻한다. 총 59개

SUNG KYUN KWAN UNIVERSITY

의 대상 건축물 중 1번이 25개, 2번이 1개 3번이 6개로 지역성의 직설적 표현은 26개 이상이 나온다. 그리고 4번은 4개, 5번은 23개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지역성의 해석적 표현은 27개 이상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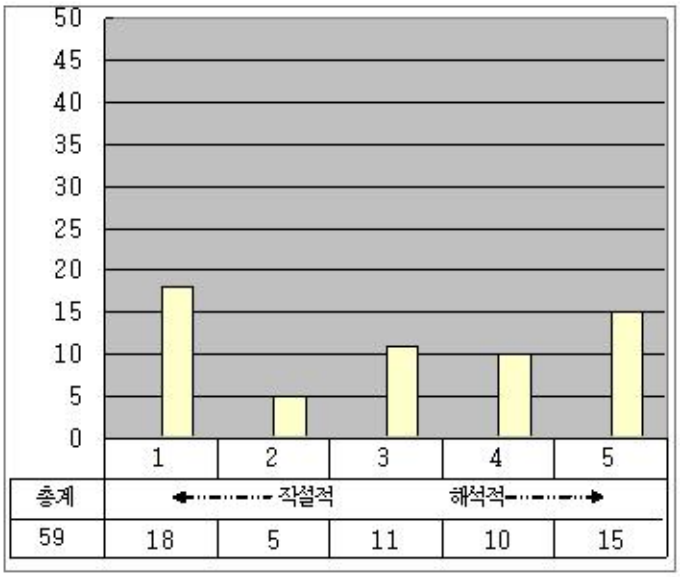


[그림 4-6] 외벽의 특성 그래프

3.2.4 지붕의 특성

지붕은 외벽과 마찬가지로 의장요소의 하나이다. 제주도 건축에서 지붕은 많은 비를 지상으로 떨어트리기 위해 물매를 가파르게 하거나 바람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선형으로 만든다. 본 연구에서는 지붕의 특성을 주변재료의 사용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전통민가의 지붕을 작가는 어떻게 재해석 하여 형태로 구체화 하였는지에 관한 것이다.

오른쪽 [그림 4-7]은 지붕의 특성 그래프이다. 연구 대상건축물 총 59개 중 1번에 해당하는 건물은 18개, 2번에 해당되는 건물은 5개 3번은 11이므로 지역성의 직설적 표현은 23개



[그림 4-7] 지붕의 특성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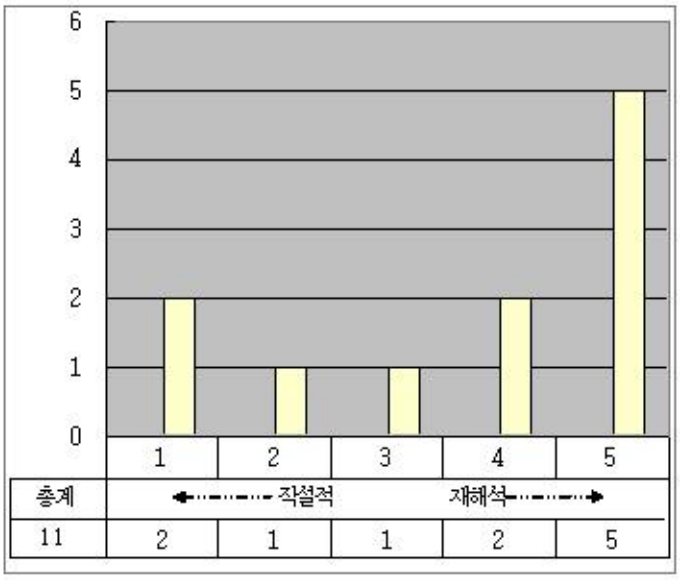
SUNG KYUN KWAN UNIVERSITY

이상이다. 반면 4번에 해당되는 건물은 10개이고 5번에 해당되는 건물은 15개이므로 지역성의 해석적 표현은 25개 이상임을 알 수 있다.

3.2.5 오브제

제주도 건축에서 오브제의 표현은 보통 오름, 연대, 방사탑, 제주도, 테우의 그물 등을 상징화 하여 표현되고 있다. 오브제의 표현은 모든 건축물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따라서 [그림 4-1] 종합분석 그래프의 오른쪽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그 표현은 전체 59개의 대상건축물 중 11개 즉, 18.3%정도로 미미하다. 그러나 작가가 그것을 의도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면 충분히 작가의 재해석이 필요하다.

오른쪽 [그림 4-8]은 오브제의 표현 그래프이다. 이 그래프는 오브제를 표현한 작품만을 통해 나타낸 그래프이다. 왼쪽, 1번으로 갈수록 직설적 표현이다. 즉, 오브제를 작가가 해석 없이 직설적으로 건축 형태화 한 것을 말하면 이를 지역성의 직설적 표현으로 본다. 반면 오른쪽, 5번으로 갈수록 작가가 오브제를 재해석하여 건축 형태화 한 것을 말하며 이를 지역성의 해석적 표현으로 본다.



[그림 4-8] 오브제의 표현 그래프

그래프를 보면 총 11개의 대상건축물 중 1번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2개, 2번이 1개, 3번이 1개로 3개 이상이 지역성의 직설적 표현을 보여 지고 4번이 2개 5번이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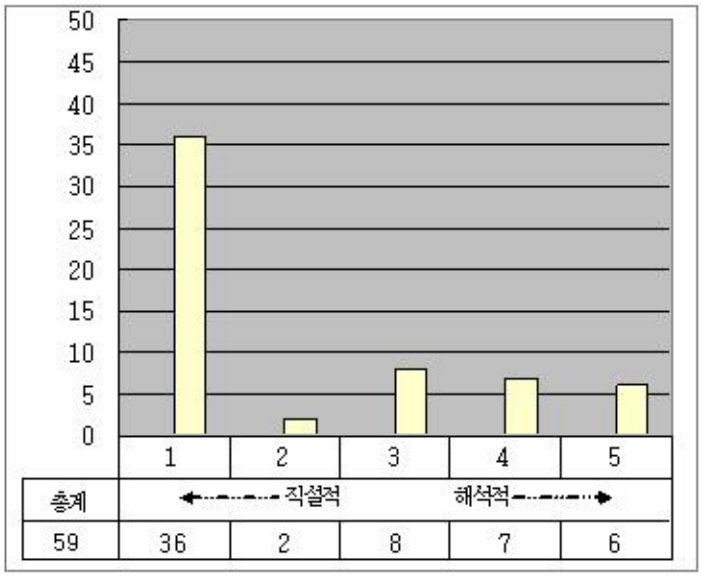
SUNG KYUN KWAN UNIVERSITY

개로 지역성의 해석적 표현으로 보여 진다.

3.2.6 환경표현

제주도의 자연환경은 무척 척박하여 제주도민은 그것을 이겨내야만 했다. 자연환경 중에서도 바람은 농작물에 피해를 주었으며 생계를 이끌어 가기 위해 어획을 하러 바다로 나간 남자들과 해산물을 캐러 바다로 들어가(물질)는 잠녀들에게는 두려움에 존재였다. 또한 민가의 지붕을 날려버리기도 하였다. 따라서 제주도민의 삶은 바람을 이겨내는 곳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바람을 이겨내어 제주도민들이 살아가기 위한 지혜는 제주도 곳곳에서 보여 진다. 돌담, 낮은 초가, 구불구불 구부러진 올래 등이 그렇다.

오른쪽 [그림 4-9]는 환경표현 그래프이다. 즉, 대상건축물이 바람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석하여 작품을 구체적으로 형태화 하였는지에 대한 것이다. 총 59개의 대상건축물 중 1번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36개이고 2번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2개 3번에 해당되는 건축물이 6개이므로 지역성의 직설적 표현은 38개 이상임을 알 수 있다. 반면 4번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7개이고 5번은 6개이므로 지역성의 해석적 표현은 12개 이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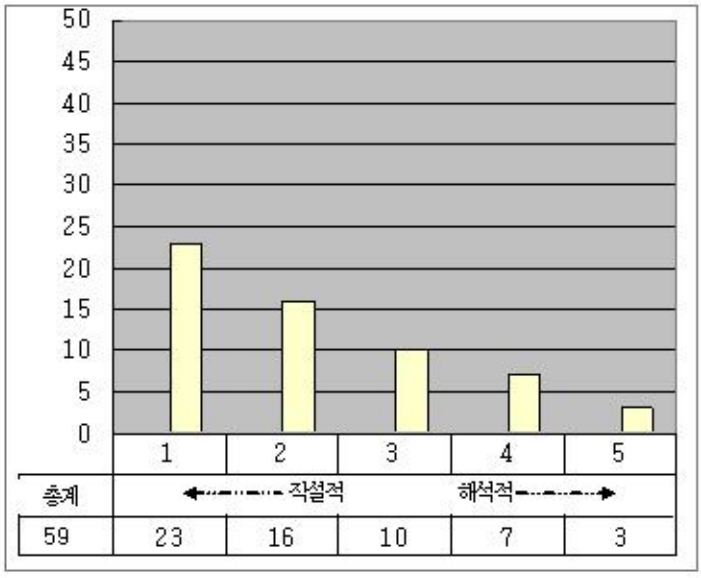


[그림 4-9] 환경표현 그래프

SUNG KYUN KWAN UNIVERSITY

3.2.7 높이

제주도의 민가는 바람의 영향을 덜 받기위해 육지의 민가보다 높이가 낮다. 층고는 비슷하나 용마루를 낮추는 방법으로 전체적인 높이를 줄였다. 근대 이후에도 그러했는데 특히 제주도 건축조례에는 층고가 5층을 넘겨서는 안 된다. 는 조항이 있었을 정도였다. 이는 제주의 자연환경을 고려한 지역적 특성을 보존하기 위함이다. 케네스 프램톤도 자신의 저서에서 높은 건물보다 낮은 건물이 더욱 지역성을 잘 표현한다고 언급한다.



[그림 4-10] 높이표현 그래프

위의 [그림 4-10]은 높이표현 그래프이다. 가로에 비해 건축물의 전체 층고나 높이가 낮을 수 록 5번 쪽인 지역성 충족, 반대 입장은 지역성 결여로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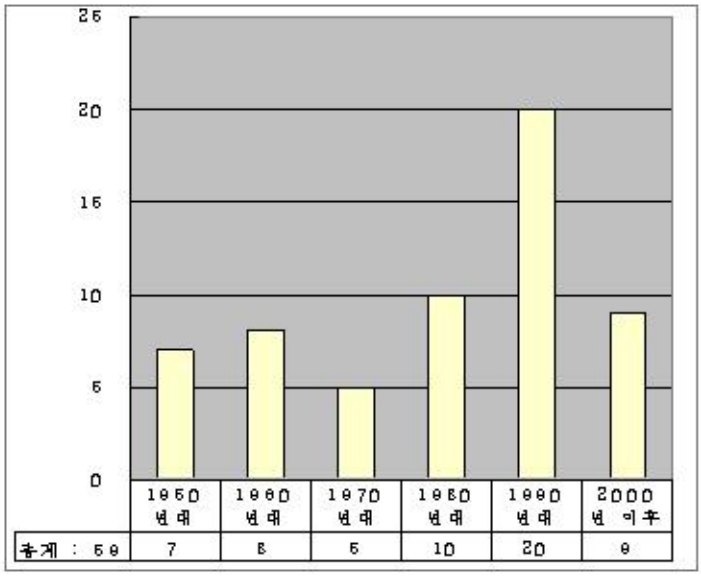
그래프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59개의 건축물 중 1번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23개, 2번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16개 3번에 해당되는 건축물이 10개로 39개 이상이 지역성의 직설적 표현이다. 반대로 4번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7개, 5번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3개로 지역성의 해석적 표현은 10개 이상이다.

3.3 시기별 지역성표현 양상의 현황 및 분석

이번 절에서는 대상건축물을 시기별 지역성표현 양상을 알아보고자 한다. 시기별

SUNG KYUN KWAN UNIVERSITY

로 나누어 보는 것은 제주도 건축에서 지역성 표현의 흐름과 변화과정을 알 수 있으므로 중요하다. 여기에서 각 시기를 10년 단위로 나누어 살펴본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국토개발과 같은 정책이 10년 단위로 이루어졌으며 지방인 제주도는 중앙정부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950년대부터 2000년 이후 까지 10년 단위로 현황 및 분석한다. 오른쪽 [그림 4-11]은 시기별 대상건축물의 수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총 59개 대상 건축물 중 1950년대는 7개, 1960년대는 8개, 1970년대는 5개, 1980년대는 10개, 1990년대는 20개, 2000년 이후는 9개로 지역성의 표현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이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990년대에 가장 많이 표현된다. 위의 그래프 [그림 4-11]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준다면 이후부터는 구체적으로 시기를 설정하여 제주도 건축의 지역성표현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림 4-11] 시기별 건축물의 수 그래프

3.3.1 1950년대

1950년대는 7개의 대상건축물이 있다. 전체의 11.9%를 차지하고 있다. 이 시기의 대상건축물을 나열해 보면 다음 [표 4-10]과 같다.

SUNG KYUN KWAN UNIVERSITY

[표 4-10] 1950년대 대상건축물 목록

코드번호	건물명 (원 건물명)	준 공	설계자	용 도 (원용도)	층수	연면적(㎡)	지붕 형태	마감재료	비고
B 01	세화리사무소 (구좌면사무소)	1950	-	업무	1층	-	우진각	현무암	
C 01	제주 제일고등학교	1950	김상식	교육		-	평	-	
A 01	강병대교회	1952	국군공병대	교육	1층	595.05	박공	현무암	
A 02	시흥초등학교 교사	1953	-	(교육)	1층	-	박공	현무암	
A 03	모슬포교회 사랑의 집 (모슬포교회 예배당)	1954	-	종교	1층	119.01	박공	현무암	
A 04	대정보건소 (대정면사무소)	1955	-	업무	2층	297.53	우진각	제주석	
C 02	벼룩시장 (제주시청사)	1959	박진후	업무 및 상업	2층	1,150.42	우진각	페인트	

위의 표와 [부록-2]에서 건축물 특성을 정리한 것을 함께 비교해 보면 지역성표현은 대체로 외벽의 특성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표 4-11」에 보이는 건축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부분 제주도의 주변 환경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현무암으로 외벽을 마감하였다. 지붕의 특성은 우진각 지붕과 박공지붕으로 대부분 경사지붕이다. 경사지붕은 제주도의 자연환경인 바람과 비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형태이다. 그리고 층수를 살펴보면 2층 이하로 낮은 높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 또한 바람과 비에 대응하기에 적합하다.

[표 4-11] 1950년대 주요건축물

		
A01-강병대교회	A02-시흥초등학교 교사	A04-대정보건소

SUNG KYUN KWAN UNIVERSITY

3.3.2 1960년대

1960년대에는 5개의 대상건축물이 있다. 전체의 13.6%를 차지하고 있다. 이 시기의 대상건축물을 살펴보면 다음 [표 4-12]와 같다.

[표 4-12] 1960년대 대상건축물 목록

코드번호	건물명 (원 건물명)	준 공	설계자	용 도 (원용도)	층수	연면적(㎡)	지붕 형태	마감재료	비 고
C 36	호텔하니크라운 (제주관광호텔)	1963	김태식	숙박	4층, -1층	1289.00	평	현무암 +페인트	
B 02	금능 영성수련장 (금능공소)	1964	임 파트리치오	종교	1층	-	-	-	
B 03	대한예수교 고산교회	1964	-	종교	1층	125.62	-	현무암	
C 03	제주시 시민회관	1964	김태식	집회	3층, -2층	2,669.45	평 +박공	타일 + 페인트	
C 37	구 제주대학교 본관	1964	김중업	교육	3층	-	띄운 평	-	
D 02	구 남제주군청사	1964	김한섭	업무	2층	925.00	평	현무암 +페인트	
C 04	동문시장·시네하우스 (동문시장·동양극장)	1965	김한섭	상업	2층	3,680.00	-	-	
D 01	소라의 성	1969	김중업	상업	2층	-	돔형	현무암 +페인트	

위의 [표 4-8]과 [부록-2]에서 건축물의 특성을 비교하여 보았다. 외벽의 마감재료가 주로 현무암인 것으로 보아 1960년대도 1950년대와 마찬가지로 지역성 표현은 외벽의 특성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 [표 4-13]에서 보이는 것처럼 지붕의 특성은 평지붕과 박공지붕 형태를 취한다. 특히 C37과 D01의 지붕은 바람에 대응하는 좋은 사례로 작가의 설계 감각 및 독특한 개념해석을 볼 수 있다. 또 C04의 연속되는 아치지붕과 극장부 지붕은 바람에 의해 생성된 파도의 형상화를 보여준다. 이러한 형태는 시각적 즐거움을 동시에 보여주는데 건축가의 개념해석에 대한

SUNG KYUN KWAN UNIVERSITY

독특한 감각을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 층고는 1950년대와 비슷한 2층 높이 내외이지만 약간 높아진 감이 있다.

[표 4-13] 1960년대 주요건축물

		
C37-구 제주대학교 본관	D01-소라의 성	C04-동문시장·시네하우스

이 시기에는 50년대와는 달리 일본과 같은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실무를 쌓아 돌아온 우리나라 건축가들에 의해 다수의 작품이 세워진다. 제주도에도 그런 특징이 보여 진다. 특히, 김한섭은 제주도 출신이면서 후에도 몇 개의 작품을 제주도에 남긴다. 또한 그의 대를 이어 후손들 까지도 제주도 건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김중업은 한국 건축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제주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3.3.3 1970년대

1970년대에는 8개의 대상건축물이 있다.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시기별로 나누어 봤을 때 가장 적은 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 시기의 대상건축물을 살펴보면 다음 [표 4-14]와 같다.

SUNG KYUN KWAN UNIVERSITY

[표 4-14] 1970년대 대상건축물 목록

코드번호	건물명 (원 건물명)	준 공	설계자	용 도 (원용도)	층수	연면적(㎡)	지붕 형태	마감재료	비 고
B 04	납읍리 새마을 도정공장	1970	-	공업	1층	132.24	박공	현무암	
C 05	제주교육대학교 본관	1971	김한섭	교육	4층	4,498.00	평+외박공	페인트	
C 06	제주교육청사	1978	김희수	교육	1층, -4층	1,627.00	평	제주석	
C 07	제주도청	1978	김희수	업무	5층	-	우진각	제주석 +페인트	
C 08	제주대학교 캠퍼스	1979	이광노	교육	-	-	평	현무암 외	

위의 표와 [부록-2]에서 건축물의 특성을 비교하여 보았다. 이 시기에는 전 시기보다는 대형 건축물이 많아 졌다. 층고를 보면 전 시대에 2-3층 이하였으나 이때에는 4-5층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붕의 특성은 전체적으로 경사지붕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때에도 외벽의 특성으로 재료만큼은 현무암을 사용하므로 지역성을 나타내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개념해석이나 환경표현요소에 대한 표현이 미흡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다음 [표 4-15]에서 보이는 것처럼 C06과 C07을 설계한 건축가 김희수는 두 작품을 통해 이러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C08을 설계한 건축가 이광노는 위의 특징과 더불어 C08의 배치를 자연에 순응하게 설계함으로 지역성을 충족시키고 있다.

[표 4-15] 1970년대 주요건축물

		
C06-제주교육청사	C07-제주도청	C08-제주대학교 캠퍼스

SUNG KYUN KWAN UNIVERSITY

3.3.4 1980년대

1980년대에는 10개의 대상건축물이 있다. 전체의 16.9%를 차지하고 있다. 전 시기와 비교해 보면 2배의 증가율을 보인다. 이 시기의 대상건축물을 살펴보면 다음 [표 4-16]과 같다.

[표 4-16] 1980년대 대상건축물 목록

코드번호	건물명 (원 건물명)	준 공	설계자	용 도 (원용도)	층수	연면적(㎡)	지붕 형태	마감재료	비 고
C 09	신제주성당	1981	김석윤	종교	2층, -1층	2,009.00	박공	제주석 +페인트	
C 10	제주 민속자연사 박물관	1983	김홍식	전시 및 집회	2층, -1층	5,299.00	우진각	제주석 +페인트	
C 11	제주 우당도서관	1984	김종성	교육	3층, -2층	6,609.18	우진각	페인트	
C 12	제주시 공무원교육원	1984	김석윤	교육	3층	6,909.65	둥근 +평	제주석 +페인트	
D 03	기당 미술관	1984	김홍식	전시	1층	960.30	돔형	제주석	
B 08	만장굴 휴게소	1985	김창우	업무	2층	899.55	둥근	현무암	
B 06	한림공원 휴게소 및 안내소	1986	김창우	업무설	1층	-	돔형	현무암	
C 13	문예회관	1988	김홍식, 김상식	전시 및 집회	3층, -1층	5,811.56	우진각	제주석	
C 14	제주도 의회의사당	1989	강요준	업무	4층, -1층	5,909.64	우진각	제주석 +페인트	
C 15	탐라도서관	1989	김석윤	교육	3층, -1층	4,220.70	우진각 +평	송이벽돌	

위의 표와 [부록-2]에서 건축물의 특성을 비교하여 보았다. 전체적으로 지역성을 나타내는 요소들이 이전 시기보다 많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벽의 특성에서 현무암과 새롭게 송이벽돌이 나타나고 있으며 층고는 보통 2-3층 정도의 높이를 보

SUNG KYUN KWAN UNIVERSITY



[그림 4-12] 눌, 출처 : 제주도 「제주도 민속지」, 제주시 우당도서관

이고 있는데 이전 시기들과 비교 해보면 연면적에 비해 상당히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또 지붕의 형태도 대부분 경사를 이루는 형태로 비와 바람에 대응하기 좋다. 특히 다음 [표 4-17]에서 보이는 것처럼 D03과 B06의 지붕은 바람에 대응하는 형태를 취함과 동시에 건축가가 왼쪽 [그림 4-12]와 같이 상징물(눌)을 재해석하여 오브제화 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D03과 B06이 오브제화하여 바람에 대응하는 형태로 재해석되어 나타났다면 C09는 평면형태(삼각형의 기하학형태)가 전체 매스와 지붕의 물매에 영향을 주면서 불어오는 바람에 대응하는 형태로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다. 이렇게 C09는 프로세스에서 개념해석부터 외벽의 특성, 지붕의 특성 등에 이루기까지 제주도에서 바람이 상징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건축가는 보여주려 하였던 것이다.

[표 4-17] 1980년대 주요건축물-1

		
D03-기당 미술관	B06-한림공원 휴게소 및 안내소	C09-신제주성당

건축의 형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전통 민가의 배치를 재해석하는 사례가 나타나는데 다음 [표 4-18]에서 보이는 것처럼 C10, C12, C13, C15가 이에 해당되는 건

SUNG KYUN KWAN UNIVERSITY

축물이다. 그리고 자연에 순응한 배치방식으로 C11이 있다.

[표 4-18] 1980년대 주요건축물-2

		
C10-제주 민속자연사 박물관	C13-문예회관	C15-탐라도서관

특히 이시기에 주목할 만한 것은 제주출신의 건축가들이 자기의 건축언어를 제주도의 지역성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다. 김홍식, 김석윤, 김창우 등이 있다. 그리고 김상식은 김홍식과 같은 사무실 소속으로 그 또한 제주도 건축의 지역성을 건축언어로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3.4 1990년대

1990년대에는 20개의 대상건축물이 있다. 전체의 33.9%를 차지하고 있다. 전 시기와 비교해 보면 2배의 증가율을 보이며 가장 많은 대상건축물을 보유하고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대상건축물을 살펴보면 다음 [표 4-19]와 같다.

[표 4-19] 1990년대 대상건축물 목록

코드번호	건물명 (원 건물명)	준 공	설계자	용 도 (원용도)	층수	연면적(㎡)	지붕 형태	마감재료	비 고
C 16	대한항공 제주지점 사옥	1990	김성래	상업	6층, -2층	16,685.30	평	유리	

SUNG KYUN KWAN UNIVERSITY

C 34	탐라교육원 연수동	1992	강행생	교육	2층, -1층	1,510.70	우진각	현무암+송이	
C 17	제주도 노인복지회관	1993	김석윤	의료	2층, -1층	1,216.00	둥근	송이벽돌	
B 07	애월문화체육관	1994	김석윤	체육	2층	2,279.00	둥근	현무암 +페인트	
C 18	탑동 해변공연장	1995	김용철	집회	3층, -1층	5,071.49	-	대리석	
C 19	세기건설 사옥	1996	김용철	상업	9층, -1층	6,149.47	평	대리석	○
C 20	제주 영상미디어센터 (제주 관광민속 타운)	1996	김희수	상업	2층, -1층	5,599.27	평	제주석	
C 21	제주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1996	허영주	업무	5층, -2층	13,304.58	평	대리석	
C 22	제주교육박물관	1996	강행생	전시 및 집회	2층, -1층	2,854.89	우진각	제주석	
C 23	제주학생회관 ·제주도립도서관	1996	강행생	교육	3층, -1층	7,644.00	평 +둥근		
A 06	제주 영화박물관	1997	김석철	전시	2층, -1층	2,106.00	반돔형	페인트+현무암 뿜칠	
C 24	제주 삼성어린이집	1997	삼 우	상업	3층, -1층	982.10	둥근 +평	페인트+송이 타일	
C 25	제광교회	1997	김석윤	종교	3층, -1층	-	평	-	
A 05	핀크스 골프클럽하우스	1998	이타미 준	상업	2층	2,295.95	박공	-	
C 26	신광빌딩	1998	오용화	상업	6층, -1층	800.56	평	대리석	○
C 27	예치과 의원	1998	임성추	상업	6층, -1층	1,595.00	박공형	붉은사암	○
C 28	제주산업정보대학 학생회관	1998	김유봉	교육	3층, -1층	3,398.19	평	-	
B 05	이기풍 선교회관	1990 년대	-	교육	2층, -1층	6,412.27	박공	제주석+송이	
C 32	성내교회	1990 년대	-	종교	2층	-	박공	제주석	
C 33	제주테우	1990 년대	한동신	상업	4층, -1층	761.60	물결	-	
D 06	강정교회	1998	김재관	종교	3층	820.90	계단식평	노출콘크리트 +시멘트 뿜칠	

비고란에 ○는 제주시 건축상에서 수상은 하였으나 지역성을 표현하지 못한 건축물임.

SUNG KYUN KWAN UNIVERSITY

위의 표와 [부록-2]에서 건축물의 특성을 비교하여 보았다. 외벽의 특성 중 중요한 요소였던 마감 재료가 1990년대 들어서도 계속적으로 현무암이나 송이가 그 특성을 이어가고 있으나 대리석, 붉은 사암 등이 쓰이는 경우도 많아진다. 특이하게 A06과 같은 경우는 현무암을 붙이거나 쌓는 형식을 취하지 않고 뿜칠을 통해 지역성을 보여준다. 다음 [표 4-20]에서 보이는 것처럼 지붕의 특성을 보면 A06은 바람에 대응하는 형태로서 건축가가 재해석하여 표현 하였다. C33인 경우는 바람에 대응하는 형태를 파도에 비유하여 물결형태의 지붕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D06의 지붕인 경우는 올래의 개념을 재해석하였는데 지면에서부터 지붕에 이루기까지 연극의 시나리오를 쓰듯 유기적인 동선의 흐름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것에 의한 생명력 있는 공간을 탄생시킨다.

[표 4-20] 1990년대 주요건축물-1

		
A06-제주 영화박물관	C33-제주테우	D06-강정교회

올래와 같은 지역성 요소를 공간으로 표현한 건축물은 D06뿐만 아니라 다음 [표 4-21]에서 보이는 것처럼 C21과 A05에서도 나타난다. D06이 지붕에 이루는 과정으로 올래를 재해석 하였다면 C21은 올래를 공간의 요소로 재해석하여 표현하였다. 즉, 진입과정의 한 요소인 올래를 건축물의 내부까지 깊게 끌어들여 표현한 것이다. A05는 오름과 건축물의 주변 자연환경을 의식한 차경효과를 통해 공간으로 표현한다.

SUNG KYUN KWAN UNIVERSITY

[표 4-21] 1990년대 주요건축물-2

		
C21-제주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A05-핀크스 골프클럽하우스-1	A05-핀크스 골프클럽하우스-2

다음 [표 4-22]에서 보이는 것처럼 배치표현에서는 C17, B07, C22, C23이 관습에 의한 배치를 보인다. C17과 B07, C23은 안거리와 밖거리를 재해석 하였다. 즉, 채나눔을 통해 기능을 분산하여 기능에 맞게 형태를 표현하였다. C22는 주변 환경에 순응하는 배치를 보여준다. 그리고 전통 민가의 배치형식이 마당을 구심점으로 분동 배치를 보여주는데 이런 특징이 중앙 홀을 중심으로 표현된다.

[표 4-22] 1990년대 주요건축물-3

		
C17-제주도 노인복지회관	B07-애월문화체육관	C22-제주교육박물관

1980년대의 오브제의 표현은 이 시기에도 꾸준히 나타난다. 다음 [표 4-23]에서 보이는 것처럼 C18과 C20이 각각 방사탑과 연대를 모티브로 직설적으로 형태화한

SUNG KYUN KWAN UNIVERSITY

다. C18은 장소의 의미를 되짚어 봄으로 그 의미를 해석하고 장소에 맞는 형태를 상징물을 통해 오브제화 한 반면 C20은 역사적인 사실이나 장소의 의미를 간과하여 표현하였다.

[표 4-23] 1990년대 주요건축물-4

		
C18-탑동 해변공연장	C20-제주 영상미디어센터-1	C20-제주 영상미디어센터-2

3.3.5 2000년대 이후

2000년대 이후는 9개의 대상건축물이 있으며 전체의 15.3%를 차지하고 있다. 대상건축물이 계속 증가 하는 현상으로 보아 앞으로 더 많은 건축물이 세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기의 대상건축물을 살펴보면 다음 [표 4-2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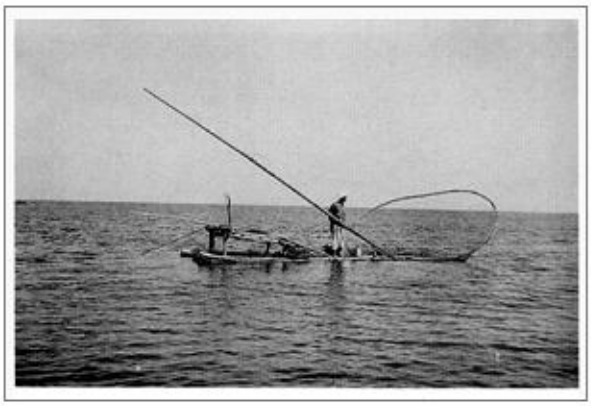
[표 4-24] 2000년대 이후 대상건축물 목록

코드번호	건물명 (원 건물명)	준 공	설계자	용 도 (원용도)	층수	연면적(㎡)	지붕 형태	마감재료	비 고
C 35	현대해상화재보험 제주사옥	2000	간삼	상업시설	16, -6층	20,825.20	평	유리커튼월	
D 07	서귀포시 월드컵 경기장	2001	일건건축	체육시설	4층, -2층	6,063.87	반돔형	노출콘크리트	
D 05	제주 컨벤션센터	2002	주) 공간	집회시설	5층, -2층	62,013.22	둥근	유리커튼월	

SUNG KYUN KWAN UNIVERSITY

D 08	제주 밀레니엄관	2003	현신종합 건우종합	집회시설	2층, -1층	7,129.58	평 +솟을	-	
C 29	제주시 기적의 도서관	2004	정기용	교육시설		-	경사		
D 09	서귀포 기적의 도서관	2004	정기용	교육시설		-	뚫린 경사		
C 38	제주 전문건설회관	2005	이충기	상업시설	9층, -2층	4,851.55	평	라임스톤	
C 30	다음 글로벌미디어 센터	2006	유석연	상업시설	3층, -1층	5,071.49	평	적삼목 우드사이딩	
C 31	제주대학교 병원	2009 완공	삼우	의료시설	5층, -3층	75,553.00	평	-	

위의 표와 [부록-2]에서 건축물의 특성을 비교하여 보았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전 시기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인다. 외벽의 특성인 마감 재료가 현무암이나 송이가 아닌 다른 재료를 많이 쓰고 있다. 지부의 특성도 제주도 환경에 부 적합한 평지붕이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층고도 상당히 높아졌으며 규모 또한 커졌다. 이와는 반대로 개념해석은 풍부해졌음을 알 수 있다. 즉, 한 건축물에 몇 개의 개념이 중첩되어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다음 [표 4-25]에 보이는 것처럼 D07은 바람에 대응하여 지하로 계획하고 개념을 재해석함과 동시에 오름이라는 상징물을 오브제화 하며 지붕은 위의 [그림 4-15]에서 보이는 「테우의 그물」을 형상화하고 있다. D08은 주변의 자연환경이 주상절리와 한라산을 모티브로 하여 중앙의 그것을 솟을지붕으로 형상화하여 형태로 표현하였다.



[그림 4-15] 테우, 출처 : 제주도 「제주도 민속지」, 제주시 우당도서관

SUNG KYUN KWAN UNIVERSITY

C29와 C30은 모두 바람에 관한 대응을 재해석하여 지역성을 표현하였는데 C29는 바람을 가르며 날아가는 기러기 떼의 삼각형모양을 평면에 도입하고 매스와 건축물 형태로 구체화 하여 지역성을 표현한다. 그리고 C30은 비 물리적인 성질을 물리적 형상으로 표현한다. 즉, 바람의 유동적 성질을 건축물 입면에 굽이치는 물결모양으로 구체화한다. 또 사이공간을 통해 바람을 느낄 수 있도록 바람의 길목을 계획함으로 공간을 통해 바람을 느낄 수 있도록 재해석하여 표현한다.

[표 4-25] 2000년 이후 주요건축물

		
D07-서귀포시 월드컵경기장	C29-제주시 기적의 도서관	C30-다음 글로벌미디어 센터

이상의 내용들을 정리하기 위하여 각 지역성 요소마다 절대값을 설정하고 평균값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4-26]과 같다.

[표 4-26] 지역성 표현요소의 절대 값

시 기	코 드	준공	지역성 표현요소							
	번 호		관습 배치	자연 배치	개념 해석	외벽 특성	지붕 특성	오브제	환경 표현	높이
1950년대	B 01	1950	1	1	1	5	4	0	1	1
	C 01	1950	1	5	1	1	1	0	1	2
	A 01	1952	1	1	1	5	3	0	4	4
	A 02	1953	1	1	1	5	4	0	1	4
	A 03	1954	1	1	1	5	2	0	2	3

SUNG KYUN KWAN UNIVERSITY

	A 04	1955	1	1	1	5	3	0	1	1
	C 02	1959	1	1	1	4	1	0	1	1
	계 7	평균	1.0	1.6	1.0	4.3	2.6	0.0	1.6	2.3
1960년대	C 36	1963	1	1	1	1	4	0	1	1
	B 02	1964	1	1	1	1	5	0	4	2
	B 03	1964	1	1	1	5	2	0	1	3
	C 03	1964	1	1	1	1	2	0	1	1
	C 37	1964	1	1	5	1	5	0	5	3
	D 02	1964	1	1	1	3	1	0	1	2
	C 04	1965	1	1	1	1	4	0	1	2
	D 01	1969	1	5	5	3	5	0	5	2
	계 8	평균	1.0	1.5	2.0	2.0	3.5	0.0	2.4	2.0
1970년대	B 04	1970	1	1	1	5	3	0	1	2
	C 05	1971	1	1	1	1	2	0	1	3
	C 06	1978	1	1	1	4	1	0	1	1
	C 07	1978	1	1	1	4	1	0	1	1
	C 08	1979	3	5	1	3	1	0	1	3
	계 5	평균	1.4	1.8	1.0	3.4	1.6	0.0	1.0	2.0
1980년대	C 09	1981	1	5	5	5	4	3	5	3
	C 10	1983	5	5	2	5	5	5	3	5
	C 11	1984	1	5	1	2	5	0	5	1
	C 12	1984	4	4	3	5	3	0	1	2
	D 03	1984	5	4	4	5	5	5	3	4
	B 08	1985	1	1	1	5	5	0	1	4
	B 06	1986	1	1	3	5	5	5	4	2
	C 13	1988	3	2	4	5	5	0	1	3
	C 14	1989	1	1	1	4	1	0	1	1
	C 15	1989	4	4	5	5	3	0	3	5
	계 10	평균	2.6	3.2	2.9	4.6	4.1	1.8	2.7	3.0
1990년대	C 16	1990	1	1	3	3	1	0	1	1
	C 34	1992	1	1	1	5	3	0	3	2
	C 17	1993	2	4	3	5	4	0	1	2
	B 7	1994	4	2	5	5	3	0	1	2
	C 18	1995	1	2	1	1	1	1	3	3
	C 19	1996	1	1	1	1	1	0	1	1
	C 20	1996	3	2	1	5	1	1	1	1
	C 21	1996	5	4	4	1	1	0	1	1
	C 22	1996	3	1	1	5	5	0	3	2
	C 23	1996	5	1	1	1	1	0	1	1
	A 06	1997	1	5	5	5	5	5	4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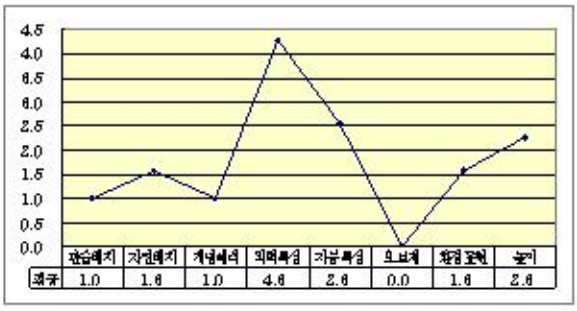
SUNG KYUN KWAN UNIVERSITY

	C 24	1997	1	3	1	3	2	0	1	1
	C 25	1997	–	–	–	–	–	–	–	–
	A 05	1998	1	4	3	1	5	4	1	4
	C 26	1998	1	1	1	1	1	0	1	1
	C 27	1998	1	1	2	1	3	0	1	1
	C 28	1998	1	1	5	1	1	0	4	1
	B 05	1990년대	4	4	1	5	5	0	2	4
	C 32	1990년대	1	1	1	5	3	0	1	2
	C 33	1990년대	1	2	5	1	5	0	4	1
	D 6	1998	5	1	5	1	3	0	1	1
	계 20	평균	2.2	2.1	2.5	2.8	2.7	0.6	1.8	1.7
2000년 이후	C 35	2000	1	1	1	1	1	0	1	1
	D 07	2001	3	5	5	3	5	5	5	5
	D 05	2002	1	3	5	1	4	2	3	1
	D 08	2003	1	2	5	1	1	0	1	2
	C 29	2004	1	1	4	1	4	0	4	3
	D 09	2004	1	4	3	1	3	4	3	3
	C 38	2005	1	1	1	1	4	0	1	1
	C 30	2006	1	3	5	1	4	0	5	2
	C 31	2009(진행중)	5	5	4	1	1	0	1	4
	계 9	평균	1.7	2.8	3.7	1.2	3.0	1.2	2.7	2.4

위의 표를 각 시기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195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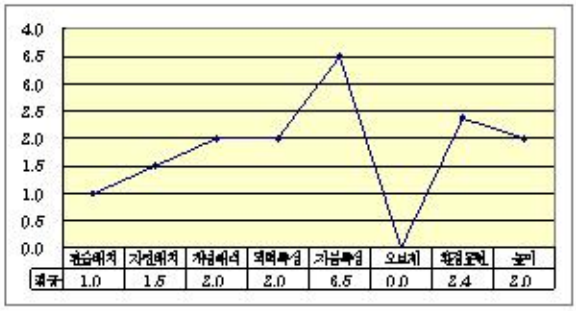
1950년대에는 오른쪽 [그림 4-16]과 같이 지역성 표현은 외벽의 특성에서 재료를 통해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지붕의 특성과 높이에서도 지역성 표현이 보이고 있다.



[그림 4-16] 1950년대 지역성 표현요소의 절대값 그래프

SUNG KYUN KWAN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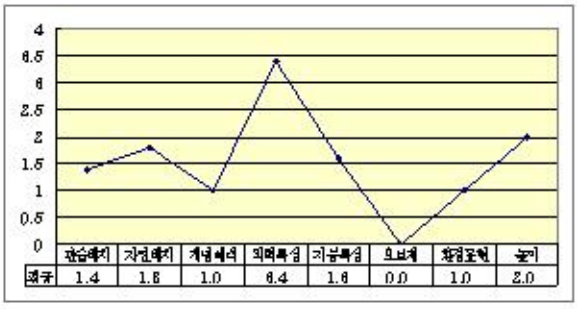
2) 1960년대



[그림 4-17] 1960년대 지역성 표현요소의 절대값 그래프

1960년대에는 아래의 [그림 4-17]과 같이 지역성 표현은 지붕의 특성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대상 건축물을 살펴보면 이때의 지붕의 특성은 지붕에 대한 건축가의 재해석의 차원이 아니라 기능적인 면에 의한 특성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환경표현이 지역성 표현의 요소로 작용하는데 이때의 환경요소도 지붕에 의한 바람의 대응으로 나타나고 있다.

3) 197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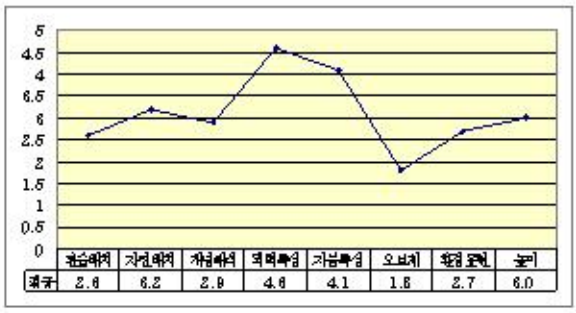
[그림 4-18] 1970년대 지역성 표현요소의 절대값 그래프

오른쪽 [그림 4-18]을 보면 1970년대는 1950년대처럼 다시 외벽의 특성이 지역성의 표현요소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 자연에 순응한 배치와 지붕의 특성, 높이의 표현도 한 몫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다지 많은 영향을 주고 있지 않는다.

SUNG KYUN KWAN UNIVERSITY

4) 198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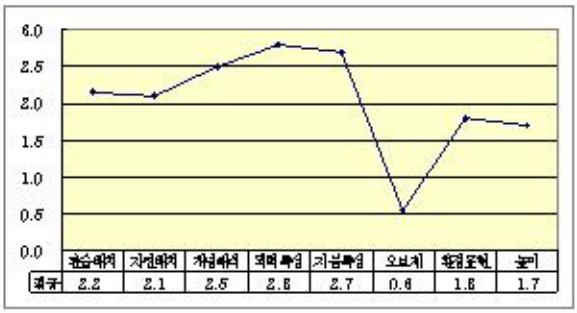
1980년대에는 오른쪽 [그림 4-19]와 같이 전체적으로 지역성 표현의 요소가 상승하여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외벽의 특성이 지역성 표현의 요소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시기에는 송이를 재료로 하는 마감 재료의 사용이 나타나는 시기이기도 하다. 동시에 지붕의 특성, 배치방식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 오브제에 의한 지역성의 표현이 처음 나타나고 있다.



[그림 4-19] 1980년대 지역성 표현요소의 절대값 그래프

5) 1990년대

1990년대에는 오른쪽 [그림 4-20]과 같이 외벽의 특성과 지붕의 특성이 지역성 표현의 요소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지붕의 특성은 기능적인 면에서 형태적인 면으로 나타나는데 초가지붕의 재해석, 한라산의 경사도와 지붕 경사도의 연관성을 표현하려는 성향이 나타나난다.



[그림 4-20] 1990년대 지역성 표현요소의 절대값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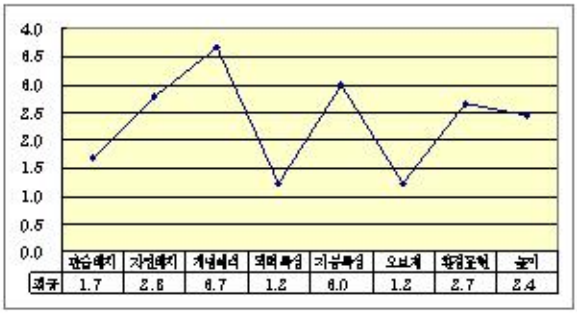
개념해석에 관한 표현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개념해석은 지붕의

SUNG KYUN KWAN UNIVERSITY

특성과 환경 표현의 요소에 많은 영향을 줌으로 지역성 표현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1980년대에도 이러한 성향은 나타나는데 이 시기까지 영향을 미친다.

6) 2000년 이후

2000년 이후에는 오른쪽 [그림 4-21]과 같이 개념해석이 지역성 표현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성향은 다른 요소에도 큰 영향을 줌으로 앞으로 지향할 요소이다. 건축의 질을 향상시키는 요소가 됨으로 제주도라는 지역에서 독창적인 건축물이 계속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림 4-21] 2000년 이후 지역성 표현요소의 절대값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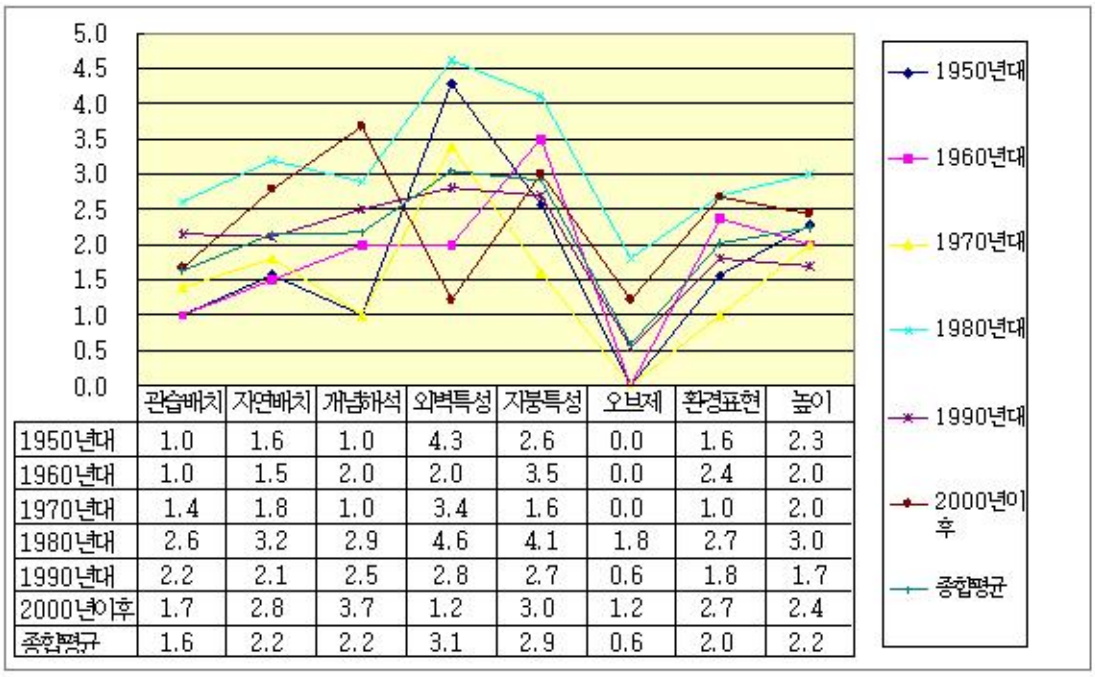
3.4 제주도 사회의 변화와 지역성

「3.3 시기별 지역성표현 양상의 현황 및 분석」에서 각 시기마다 지역성 표현의 요소가 건축물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를 종합하여 나타낸 그래프가 다음 [그림 4-22]이다.

그래프에서 보면 지역성의 표현 요소가 1980년대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건축의 오브제 표현도 이때 나타나며 높이에 의한 지역성 표현은 50년대 이후 줄곧 지역성의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지역성의 표현 요소가 시기별로 다르

SUNG KYUN KWAN UNIVERSITY

게 나타나거나 꾸준히 나타나게 되는 이유를 시기의 변화 즉, 제주도의 사회 변화 및 도시 변화와 어떤 관계와 영향이 있는지 알아봄으로 지역성 표현의 특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관습배치	자연배치	개념해석	외벽특성	지붕특성	오브제	환경표현	높이
1950년대	1.0	1.6	1.0	4.3	2.6	0.0	1.6	2.3
1960년대	1.0	1.5	2.0	2.0	3.5	0.0	2.4	2.0
1970년대	1.4	1.8	1.0	3.4	1.6	0.0	1.0	2.0
1980년대	2.6	3.2	2.9	4.6	4.1	1.8	2.7	3.0
1990년대	2.2	2.1	2.5	2.8	2.7	0.6	1.8	1.7
2000년이후	1.7	2.8	3.7	1.2	3.0	1.2	2.7	2.4
종합평균	1.6	2.2	2.2	3.1	2.9	0.6	2.0	2.2

[그림 4-22] 시기별 종합 그래프

3.4.1 1950년대 제주도의 사회와 지역성

1950년대의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이하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쟁을 치른다. 그래서 1950년대는 6·25사변이 일어난 해로 기억한다. 1950년대의 제주도는 4·3사건의 여파와 전쟁의 피해로 많은 도민들이 죽고 땅이 황폐해진다. 광복 이후 제주도(濟州島)는 전라도에서 독립을 하고 제주도(濟州道)로 행정 개편을 하게 된다. 행정 개편과 함께 제주도는 종전 이후 황폐해진 땅을 개간

SUNG KYUN KWAN UNIVERSITY

하고 필요한 도시 인프라(infrastructure) 재건을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당시의 제주도는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더딘 발전을 보이게 되므로 건축에서는 관공서나 교육시설의 기능을 갖는 공공건축물이 많이 세워지게 된다.

1950년대의 건축물을 보면 설계자가 미상인 경우거나 건축가에 의해 설계된 건축물은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지역성을 표현하기란 힘들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즉, 당시는 제대로 교육 받은 건축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일제강점이 길었기 때문에 건축에서 지역성을 표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건축의 지역성 표현은 개념해석과 환경의 대응 등 건축가의 재해석을 통한 표현 보다 직설적 표현으로 외벽, 지붕 등에 지역성을 갖는 재료를 쓰거나 환경에 대응하는 기능적인 측면으로 건축물에 표현한다.

[부록-2]에서 1950년대 대상 건축물은 B1-세화리사무소, A1-강변대교회, A2-시흥초등학교 교사 A4-대정보건소(구 대정면사무소)등이다. 이들은 대부분 현무암을 가공하여 구조의 재료로 사용한다. 그리고 외벽은 구조를 그대로 노출시켜 현무암으로 마감하고 비, 바람에 대응하기 위해 지붕을 경사지게 하거나 처마 길이를 짧게 하여 지역성을 표현한다.

3.4.2 1960년대 제주도의 사회와 지역성

1960년대에도 1950년대처럼 정부는 종전의 재건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제주도를 국제관광지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반조성을 계획한다. 당시 국가재건최고위원회 의장인 박정희의 지시에 따라 「제주도건설개발연구위원회」가 설치되어 제주도 전역에 걸친 자유지역설정 또는 대안으로서 제주시에 국한된 자유지역화를 검토한 것이 시발이다.

이 때 세워진 건축물들을 보면 관광을 목적으로 오는 이용객의 숙박을 해결하기 위한 시설 즉, 호텔이 많은 부분 차지하게 되는데 대상건축물 중에는 C36-호텔 하

SUNG KYUN KWAN UNIVERSITY

니크라운(구 제주관광호텔)이 있다.

호텔 하니크라운은 제주도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본격적인 호텔건축이다. 진입부의 반대편에 정원을 설치함으로 독립적인 외부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전면도로가 확장되면서 주출입구 부분의 여유 공간이 부족하고 인접된 삼성혈(문화재) 등의 문화시설에 대한 건축적 인식이 약한 점이 아쉽게 느껴진다. 외벽에 부분적으로 현무암을 마감 재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가로에 비해 세로의 높이가 다소 높다. 또 평지붕을 사용하고 환경에 대응으로서의 형태와는 거리가 멀다.

1960년대 한국의 건축계는 유학을 다녀온 건축가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는 시기이다. 이때는 근대건축의 특징을 몸소 배운 건축가에 의한 건축물들이 탄생하게 되는 시기이다. 김수근의 워커힐 설계, 김중업의 블란서 대사관, 김정수의 장충체육관 등이 있다. 따라서 그들은 한국건축의 근대화를 이끈 세대이기도 하다.

제주도에도 유학을 다녀온 건축가들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당시의 제주도에 영향을 미친 건축가들을 보면 김태식, 김한섭, 김중업이 있다. 특히 김중업 같은 경우는 김수근과 함께 한국건축계의 거장으로 칭송을 받으며 한국의 지역성을 고찰하여 건축의 형태로 표현함으로 뛰어난 조형미를 보여준다. 이러한 그의 특징은 제주도에서도 어김없이 보여준다.

김중업은 제주도의 지역성을 재해석하여 뛰어난 조형미를 보여주는 건축물을 설계한다. [부록-2]를 참고하여 보면 그가 설계한 건축물은 C37-구 제주대학교 본관, D1-소라의 성이 있다. 두 작품은 모두 장소에 대한 이해, 바람에 대응하는 형태에 대한 재해석 등 개념 해석이라는 지역성 요소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재료에 있어 현무암을 쓰고 지붕의 특성도 제주도 자연환경에 적응하기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지역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배치에 있어 관습에 의한 배치가 미흡하다.

3.4.3 1970년대 제주도의 사회와 지역성

SUNG KYUN KWAN UNIVERSITY

한국의 어려운 경제여건은 잘살기 운동인 「새마을 운동」으로 발전한다. 취락구조의 개선, 농촌 환경 개선 및 농촌주택 개선 등 농촌과 지방, 지역적으로 다양한 정책이 세워지지만 제주도에서 이 시기는 1960년대에 설정한 국제관광화 추진이 본격화 되는 시기이다. 이때는 관광산업의 성장과 인구증가에 따라 도시개발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당시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국가의 관광개발정책과 밀접한 관련 속에서 개발이 계획되고 추진된 점이다. 1971년의 「제주도 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이 수립되었고 1973년 청와대 관광기획단이 제주도를 국제수준의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목표로 「관광종합개발계획」이 작성되었으며 1975년에는 관광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제주도 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의 일환이 1970년대 말부터 추진된 신시가지 조성이다. 신제주로 일컫는 신시가지 계획은 관광사업의 확대뿐만 아니라 지역 간 균형발전과 구제주시의 인구증가와 지가상승 억제, 주택난 해결 등 도시팽창에 따른 문제점 해결하기 위한 계획이다.

그러나 신제주는 처음부터 관광산업에 초점을 맞춰 구획정리를 하였고 제주도의 지역성을 고려한 배치와 건축물의 설계가 고려 없이 추진된다. 따라서 지역성 없는 숙박시설과 유흥업소의 난립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건축에도 반영되어 나타난다. 본 연구의 대상 건축물의 개수가 가장 적은 것만으로도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몇 개의 대상건축물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역성의 요소를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희수는 C6-제주교육청사와 C7-제주도청의 의장 요소로 현무암을 마감 재료로 사용하고 이광노는 C8-제주대학교 캠퍼스의 배치를 자연에 순응하게 함으로 지역성을 표현한다. 또한 제주도 출신의 건축가 김한섭은 1960년대 C4-동양극장·시네하우스(구 동문시장·동양극장), 구 남제주군청사 등에 이어 이때에도 건축 작품을 남긴다.

C5-제주교육대학교 본관은 자연에 순응하는 배치 즉, 자연 질서를 인공 구조물이 깨트리지 않는다. 이를 위해 건물의 규모가 위압감을 주지 않도록 인간적인 척

SUNG KYUN KWAN UNIVERSITY

도를 가진다. 그리고 재료의 사용과 시공능력은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계획되었다.

3.4.4 1980년대 제주도의 사회와 지역성

이 시기는 10·26, 12·12, 5·16등 많은 사건이 일어난 시기이자 민주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한 시기이기도 하다. 또한 1988년에는 서울올림픽이 개최된다. 그래서 이 시기는 아마도 서울 올림픽을 통한 한국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한 해이다. 당시 한국의 이미지를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매스미디어(mass media)에 주로 사용되는 슬로건 중 「한국 것이 최고다」를 강조하는 대목이 많이 나온다. 이러한 현상은 건축계에도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1970년대 말부터 유행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잘못된 수용은 전통계승의 많은 문제점을 낳게 되면서 이 시기에는 한국 건축의 정체성에 대한 자각을 새롭게 다지게 된다. 따라서 전통의 직설적 표현이 아닌 재해석 표현을 하게 됨으로 이전 시기의 전통 해석 보다 나은 성과를 얻는다.

제주도의 건축계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맞이한다. 1970년대 말 지나친 관광주도의 정책은 신시가지의 조성에 따른 문제점과 제주도 지역성 상실의 원인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무비판적인 개발과 지역성 상실의 문제점을 자각하여 제주도의 지역성을 표현한 건축물 계획에 관심을 가진다.

이 시기의 대상건축물은 대부분 제주도의 자연재료를 마감 재료로 사용하고 전통 민가의 특성을 재해석하여 건축에 표현한다. C10-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C15-탐라도서관은 제주도 전통 민가의 배치방식, 외벽의 특성, 지붕의 특성을 재해석하여 건축물에 표현한다. 또한 D3-기당 미술관, B6-한림공원 휴게소 및 안내소는 제주도 전통 상징물을 오브제화 하고 또한 전통 민가의 지붕을 재해석하여 건축물의 형태로 표현한다.

특히 김석윤은 C9-신제주성당을 통해 제주도의 지역성을 바람이라 보고 바람에

SUNG KYUN KWAN UNIVERSITY

대응하는 형태로 표현한다. 즉, 개념 해석의 지역성을 보여준다.

3.4.5 1990년대 제주도의 사회와 지역성

이 시기는 전시기의 연장으로 바라볼 수 있다. 지역성을 표현한 건축물이 시기적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통해 지역성에 대한 자각이 더욱 커졌음을 알 수 있다.

1980년대가 개념 해석에 있어 전통에 대한 직설적 표현이었다면 이 시기는 다양한 개념 해석을 통한 형태 표현과 공간 표현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은 위의 [표 4-9]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공간 표현에 있어서 아직은 미흡한 단계지만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실험작들이 하나 둘 나타나게 되면서 지역성을 통한 건축의 질이 한 단계 향상된 시기라 할 수 있다.

C28-제주산업정보대학 학생회관과 C33-제주테우는 모두 바람에 대한 작가의 재해석을 형태로 표현한 작품이다. C28은 바람의 대응을 기하학적 평면(삼각형과 원)으로 나타내고 매스로 까지 발전한 것이며 C33은 바람에 의해 생성된 파도를 그것이 위치한 장소에서 의미를 찾고 지붕에 물결모양 형태로 표현한다.

앞의 건축물들은 모두 지역성을 내포한 개념 해석을 형태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면 C21-제주 중소기업지원센터 와 D6-강정교회는 전통 민가의 배치 특성에서 지역성을 찾고 공간으로 재해석하여 표현한다. 즉, 올래의 개념을 건축물의 내부 까지 끌어 들임으로 지역성에 관한 재해석을 한다.

그러나 몇 가지 아쉬운 점은 C20-제주영상미디어센터(구 제주관광민속타운)와 C18-탑동해변공연장 등에서 전통 상징물의 오브제화를 직설적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건축가의 독창성이 부족함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다.

3.4.6 2000년 이후 제주도의 사회와 지역성

SUNG KYUN KWAN UNIVERSITY

2000년대의 제주도는 제주도를 국제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으로 삼는 정책 추진이 본격화 되는 시기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시행이 그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조금씩 그 성격을 들어내고 있다. 그 성격은 건축에도 반영되는데 국제회의나 스포츠 행사를 위한 대규모 건축물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케네스 프램톤에 의하면 대규모(큰 스케일(scale)) 건축에서는 지역성을 찾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본 연구의 대상 건축물을 보면 규모면에서 이를 증명하는 듯하다. 그러나 D05-제주컨벤션센터의 경우 전통 상징물을 오브제화 하여 형태로 표현하고 있으며 D07-서귀포시 월드컵경기장은 오름과 테우의 그물을 재해석하여 형태로 표현함과 동시에 바람에 대한 대응이라는 개념 해석을 형태로 표현한다.

이 시기의 또 한 가지 특징은 공간에 대한 지역성 표현이다. 전시기에 지역성의 요소를 공간으로 표현하려는 시도를 엿 볼 수 있는 몇 개의 건축물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 시기에도 C30-다음 글로벌미디어센터와 C31-제주대학교병원이 각각 바람과의 조화를 공간으로 표현, 올래를 배치 공간의 재해석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도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 전망하지만 자칫 매너리즘(mannerism)에 빠지는 경향이 있어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SUNG KYUN KWAN UNIVERSITY

SUNG KYUN KWAN UNIVERSITY

Ⅳ. 결론

SUNG KYUN KWAN UNIVERSITY

SUNG KYUN KWAN UNIVERSITY

세계를 보편적 장소로 보는 모더니즘은 지역의 장소성 상실이라는 부작용을 범한다. 장소성 상실은 지역의 몰 개성화를 낳고 오랜 역사와 전통, 문화를 유지해 온 인간의 삶을 좀 먹는 것이다. 즉, 인간성 상실로 연결된다.

지역주의는 1950년대 말 모더니즘 붕괴와 함께 다원주의의 한 사상으로 표출된다. 이 사상은 지역성을 토대로 모더니즘의 부작용을 수정하고자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나타난다.

한국의 지역성은 주체성 없이 받아들인 서양의 근대 사상에 대한 각성이 계기가 된다. 그래서 한국의 지역성은 전통의 올바른 계승과 한국 근대화의 주체성 회복의 해결책이다.

제주도는 섬이다. 제주도가 육지와 다른 가장 큰 특징이다. 여기에 지리적인 특성이 더해지면 그 특징은 더욱 뚜렷해진다. 그래서 제주도의 가장 큰 특징은 돌이 많고 바람이 많으며 여자가 많다. 이를 삼다라 부르는데 삼다는 제주도민의 삶을 엿 볼 수 있다. 즉, 돌과 바람이 많다는 것은 제주도의 환경이 열악하여 제주도민의 삶이 힘들었음을 대변하고 여자의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많다는 것은 그 만큼 여자의 힘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과거부터 제주도여자의 힘은 한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주체자로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했음을 뜻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제주도는 자연환경과 인문·사회 환경이 육지와 다른 독특한 지역 문화가 형성되었다. 다시 말해 제주도의 지역성은 척박한 땅과 거친 바람을 이겨내고 혹독한 환경을 이겨내기 위해 도민들 스스로 공동체 의식을 키우며 그들만의 풍습과 관습을 만들어낸다. 이 같은 지역성은 제주도 건축에 영향을 주며 본 논문의 대상건축물에도 그 영향을 미친다. 제주성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 배치 방식이다. 배치방식은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제주도 전통민가의 배치방식을 차용하거나 재해석하여 배치하는 방법이며 나머지 하

SUNG KYUN KWAN UNIVERSITY

나는 제주도의 주변(자연)환경에 순응하여 배치하는 방법이다.

둘째, 개념 해석이다. 개념 해석은 제주의 자연환경이나 관습, 전통민가의 배치방식 등을 모티브로 작가의 상상력 혹은 합리적인 설계 프로세스를 통해 재해석하여 건축적으로 표현한 방법이다.

셋째, 외벽의 특성이다. 외벽의 특성은 외벽의 의장적 표현방법, 특히 재료와 전통민가의 입면 특성을 건축가의 재해석을 통한 표현 방법을 뜻한다.

넷째, 지붕의 특성이다. 지붕의 특성은 지붕의 재료와 지붕이 자연(특히, 비와 바람을 말함.)에 효과적인 대응 형태를 표현한 방법을 뜻한다.

다섯째, 오브제이다. 오브제는 제주도의 전통 상징물들을 통한 건축의 오브제화을 얘기한다.

여섯째, 환경표현이다. 환경표현은 바람에 대한 대응방법이 형태적 공간적으로 어떻게 해석하여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일곱째, 높이이다. 높이는 스케일에 관한 사항으로 가로에 대한 세로의 높이를 얘기한다.

이와 같은 특성의 지역성 요소는 다음 각 건축물에서 나타난다.

첫째, 배치방식에 의한 지역성 표현 요소의 대상건축물은 제주관광박물관, 탐라도서관, 제주대학교병원 등이다.

둘째, 개념 해석에 의한 지역성 표현 요소의 대상건축물은 신영 영화박물관, 다음 글로벌미디어센터, 구 제주대학교 본관, 소라의 성 등이다.

셋째, 외벽의 특성에 의한 지역성 표현 요소의 대상건축물은 제주 문예회관, 제주도청, 제주의회, 이기풍선교사, 성내교회, 제주 자연사박물관, 강변대교회, 대정보건소, 한림성당 종탑, 세화리사무소, 제주시청사, 국립제주박물관, 탐라도서관, 제주도 노인 복지회관 등이다.

SUNG KYUN KWAN UNIVERSITY

넷째, 지붕의 특성에 의한 지역성 표현 요소의 대상건축물은 국립제주박물관, 문예회관 등 이다.

다섯째, 오브제에 의한 지역성 표현 요소의 대상건축물은 탑동 해변공연장, 기당미술관, 제주영상미디어센터 등 이다.

여섯째, 환경표현에 의한 지역성 표현 요소의 대상건축물은 신제주 교회(구 신제주 성당), 소라의 성 등 이다.

일곱째, 높이의 특성에 의한 지역성 표현 요소의 대상건축물은 탐라도서관, 강변대교회 등 이다.

이 건축물들은 모든 지역성 요소를 내포하고 있지는 않으나 적어도 하나 이상 그 요소를 드러내고 있는 것들이다.

제주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건축상 혹은 설계경기의 당선작을 보면 제주도와 아무 관련이 없는 작품들이 많다. 제주도라는 지역의 특성이나 지역성을 담고 있어야 하는 특별한 건축 행사에서 그러지 못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심정의 상징이다. 이런 현상은 제주도가 오랫동안 지켜온 관습과 제주도민들의 삶을 반영하지 못하여 제주도다움을 잃어버리기 십상이다. 제주도다움을 잃는다는 것은 제주도의 정체성이 변모 혹은 상실하기 쉬우므로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정체성 상실의 아픈 경험은 멀리서 찾을 것도 없이 30년이 넘게 일제의 강점을 받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2000년 이후 제주도의 가장 큰 이슈는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를 지향함과 동시에 국제자유도시로 거듭나는 것 즉, 제주도를 세계적인 관광·휴양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0년까지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 개발 계획이다. 1970년대 관광개발이 제주도의 지역성을 망친 선례는 본 연구와 제주도 사회변화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우려가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 다시 한 번 안타까움을 표한다.

SUNG KYUN KWAN UNIVERSITY

다시 한 번 거론하지만 제주도는 특별한 자연환경과 인문·사회 환경이 다른 지역에 비해 잘 보존되어 왔다. 이러한 특성은 제주도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만 또한 제주도민의 삶도 이러한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제주도의 삶을 고려하지 않거나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관광산업에만 정책을 시행한다면 제주도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제주도는 제주도다움을 스스로 포기 하게 되고 그것은 제주도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속 가능한 제주도 건축 문화의 정체성을 위해 제주도 건축에 표현된 지역성 요소에 관해 연구를 하였다. 건축 문화의 지속 가능한 정체성을 위해서는 지역성 요소의 시각적 혹은 직설적 해석 보다는 그 속에 담긴 제주도민의 혼과 정신, 삶의 지혜(본질)를 표현해야 할 것이다.

SUNG KYUN KWAN UNIVERSITY

▶ 참고 문헌

SUNG KYUN KWAN UNIVERSITY

SUNG KYUN KWAN UNIVERSITY

1. 단행본

○ 집문사, 「알바 · 아알트 작품집」, 집문사, 1980

○ 제주도 건축사회,「제주건축」, 제주 : 대한건축사협회제주도지부, 1986

○ 제주건축발간위원회,「제주건축 : 대한건축사협회 제주도지부 20년사」서울 : 대한건축사협회 제주도지부, 1986

○ Charles Jencks, 송종석외 공역, 「현대 포스트 모던 건축의 언어(The Langauge of Post-Modern Architecture)」, 태림문화사, 1991

○ 연세대학교, 제주도 건축사회,「제주 건축, 제2집, 제주도 주거건축의 향토성에 관한 연구-2」, 제주 : 제주도건축사회, 1992

○ 제주도 건축사회, 연세대학교,「제주도 주거건축의 향토성에 관한 연구」, 제주 : 제주도건축사회 ; 서울 : 연세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1992

○ Kenneth Frampton, 정영철 · 윤재희 공역, 「현대건축사2」, 세진사, 1994

○ 제주발간위원회, 「제주건축 : 대한건축사협회 제주도건축사회 30년사 제3집.」, 제주 : 대한건축사협회 제주도건축사회, 1996

○ 송효섭, 「문화 기호학」, 민음사, 1997

○ 제주문인협회, 「제주문학전집」, 학문사, 1997

○ 제주도, 「제주의 문화재」, 제주도, 1998

○ 천구백구십구 건축문화의해 제주지역 추진위원회, 「제주의 건축」, '99건축문화의해 제주지역 추진위원회, 1999

○ 전경수, 「지역연구 어떻게 하나?」,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 건축문화의 해 조직위원회, '99 건축문화의 해 조직위원회', 「전국건축문화자산 : 제주」, 건축문화의 해 조직위원회, '99건축문화의 해 조직위원회, 1999

○ 정인하, 「김수근건축론」, 시공문화사, 1999

SUNG KYUN KWAN UNIVERSITY

○ 이창기, 「제주도의 인구와 가족」,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9
○ M. Lampugnani, 윤재희 · 지연순 공역,「현대건축론6」, 세진사, 1999
○ 정인하, 「김중업건축론」, 산업도서출판공사, 2000
○ 김순이, 「제주도의 신화전설(1)」, 제주문화, 2001
○ Diane Ghirado, 최왕돈 옮김, 「모더니즘 이후의 현대건축」, 시공사, 2002
○ 제주도, 「제주도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보고서」, 제주도, 2003
○ 김경일, 「한국의 근대와 근대성」, 백산서당, 2003
○ 강현주 외, 「열두 줄의 20세기 디자인 사」, 디자인하우스, 2004
○ Robert Venturi, 임창복 옮김, 「건축의 복합성과 대립성(Complex and Contradiction in Architecture)」, 동녘, 2004
○ 김태일, 「제주건축의 맥」, 제주대학교출판부, 2005
○ 이영권, 「제주사」, 휴머니스트, 2005
○ 김태일 외, 「제주인의 삶과 주거공간」,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7
○ 김승제, 박열 공저, 「근대 건축의 흐름」, 기문당, 2007

2. 학위논문

2.1 박사학위

○ 송성대, 「한국 도서지방 초옥민가의 지역성」, 경희대학교 대학원, 1989
○ 서경주, 「한국의 지역주의에 관한 연구 : 지역균열구조를 중심으로」,경남대학교 대학원, 1999
○ 이승헌, 「건축에서 지역성의 의미와 표출기법에 관한연구 - 하이데거의 "개

SUNG KYUN KWAN UNIVERSITY

방성"(openness)과 "틈새내기"(Rift-design)사유를 바탕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2004

2.1 석사학위

○ 천진우, 「지역주의 건축의 근대성 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 케네스 프램톤의 지역주의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6

○ 정순영, 「한국 근·현대건축에 나타난 전통표현에 관한 고찰」, 성균관대학교, 1998

○ 서혜아, 「지역주의를 바탕으로 한 미니멀리즘(Minimalism)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1999

○ 김정훈, 「건축사적 측면에서 본 제주건축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산업대학원: 건설환경공학과, 1999

○ 성혁재, 「현대 지역주의 건축의 표현양상에 관한 연구 : '비판적 지역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 홍익대학교 대학원, 1999

○ 오현석, 「부산 지역 천주교 현대 성당 건축의 지역적 특성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1999

○ 한형욱, 「근·현대 건축에 있어 표상의 위기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9

○ 강연진, 「전통민가를 중심으로 살펴본 제주도 건축의 지역성과 그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과학기술대학원, 2000

○ 신정훈, 「지역주의 관점에서 본 한국현대건축의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 1990년대 이후의 건축물을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대학원, 2000

○ 홍승조, 「김중업 건축에서의 지역주의적 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

SUNG KYUN KWAN UNIVERSITY

교 대학원, 2000

○ 홍승조, 「김중업 건축에서의 지역주의적 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2000

○ 강민수, 「탈 근대건축에서의 지역주의 경향에 관한 연구 : 프램튼(K. Frampton)의 비평적 지역주의(Critical Regionalism)의 관점에서 본 웩스너 센터(Wexner Center for the Visual Arts) 공모전을 중심으로 」, 인하대학교 대학원 : 건축공학과(설계전공), 2001

○ 이승환, 「'비판적 지역주의' 건축의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 지역주의 건축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1

○ 박순옥, 「현대 지역주의 건축의 지역성 표현 해석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2001

○ 고서영, 「현대미술에 있어서 오브제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 서유경, 「남아시아 현대 주거공간에 나타난 지역주의 표현에 관한 연구 : 1990년 이후 현대 주거공간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3

○ 이은미, 「현대 건축공간에 있어 빛의 표현특성과 그 의미에 관한 연구 : 지역주의 건축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2003

○ 윤수현, 「한국 문화의 특수성에 근거한 버내큘러 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2003

○ 박정희, 「제주도 여성 문화에 관한 고찰」, 제주대학교 대학원 지리교육전공, 2004

○ 이진경, 「주거공간의 한국적 지역주의 표현 경향에 관한 연구 :서울 지역의 주거공간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산업디자인학과, 2004

○ Yao wa, 「도시산업화 과정에서의 지역주의 형성에 관한 비교연구 : 서울과 상해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2004

SUNG KYUN KWAN UNIVERSITY

○ 이민, 「비평적 지역주의의 관점으로 본 안도 타다오(安藤忠雄)의 작품 연구」,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2004

○ 류은미, 「'하버머스(J. habermas)와 가다머(H. G. gadamer)의 해석학 논쟁'으로 본 현대건축의 '전통'전통해석 방식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2004

○ 배효경, 「지역 건축 잡지에 나타난 지역 논의에 관한 연구 : 이상건축에 나타난 지역 건축과 부산성 논의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2005

○ 이준상,「미니멀리즘 건축에 나타난 지역성 표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5

○ 신민철, 「이타미 준 건축의 지역성에 관한 연구 」,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6

○ 한성원,「제주도 현대건축에서 나타나는 지역적 특성사례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산업대학원, 2006

○ 배연준, 「공간과 오브제의 상호작용성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2006

○ 이광진, 「건축의 지역성과 그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 : 이타미 준의 포도호텔을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7

3. 건축 전문 잡지

○ 건축문화,「한국미술관」, 건축문화, 1983

○ c3a, 「Alvar Aalto」, 건축과환경, 1995

○ 우동주, 「부산 지역성의 존재」, 건축문화, 1998

○ c3a,「찰스꼬레아」, 건축과환경, 2002

SUNG KYUN KWAN UNIVERSITY

SUNG KYUN KWAN UNIVERSITY

▶ 부 록

SUNG KYUN KWAN UNIVERSITY

SUNG KYUN KWAN UNIVERSITY

부록 - 1 : 근대 이후 세워진 제주도의 비 주거건축물 목록

연번	건물명 (옛 건물명)	주 소	준 공	설계자	시공자	구 조	용도(옛 용도)	규 모				비 고
								층 수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001	제주 우련국	-	1908	-	-	-	종교시설	-	-	-	-	
002	제주 성상소학교 (제남교전신)	-	1906	-	-	-	업무시설	-	-	-	-	
003	사립 의신학교	오현단 앞	1907	-	-	-	교육시설	-	-	-	-	
004	제주 공립 보통학교	제주북교자리	1907	-	-	-	교육시설	-	-	-	-	
005	초기 신성여학교		1909	-	-	-	종교시설	-	-	-	-	
006	광제의원	북제주군 이월읍 이월리	1930	-	-	목조	의료시설	지상 1층	-	-	-	예외
007	대원자동차공업사내 굴뚝(竹中통조림공장)	북제주군 한림읍 옹포리	1930	-	-	철근콘크리트	공업시설	높이: 29m	-	-	-	
008	제주 최초의 천주교성당	제주시 삼도 일동	1930	-	-	-	교육시설	-	-	-	-	
009	제주식품공업사	남제주군 대정읍 하모리	1930	-	-	현무암 조적조	공업시설	지상 1층	-	89.95	-	
010	조천경미소	북제주군 조천읍 조천리	1930	-	-	석 조	-	지상1층	-	-	175.21	소유자 착고
011	롯 보관창고(가칭)	남제주군 성산읍 성산리	1930	-	-	현무암 조적조, 목재 드러스 및 함석지붕	창고시설	지상 1층	-	251.24	-	
012	한림리 의밀상회	북제주군 한림읍 한림리	1930	-	-	목조	상업시설	지상 1층	99.18	86.78	-	
013	경해루식당	남제주군 대정읍 하모리	1940	-	-	목조, 목재 드러스드 및 시멘드기와지붕	상업시설	지상 2층	-	-	-	
014	대영물산 사무실	북제주군 한림읍 한림리	1940	-	-	목조	업무시설	지상 1층	-	-	-	
015	상항오토바이 상점	남제주군 대정읍 하모리	1940	-	-	목조, 목재 드러스드 및 함석지붕	상업시설	지상 1층	-	-	-	
016	제티엄상사 성산포공장	남제주군 성산읍 성산리 249	1940	-	-	벽돌조적조, 목재 드러스드 및 밀식기와지붕	업무시설	지상 1층	-	-	-	예외
017	해녀식당(모슬포우체국)	남제주군 대정읍 하모리 1050-2	1940	-	-	벽돌 조적조, 목재 드러스드 및 밀식기와지붕	업무시설	지상 1층	-	-	-	
018	화지리 부대창고	북제주군 관지리 1712번지 서쪽 도로변	1950	-	-	-	창고시설	지상 1층	-	-	-	
019	명월리 오씨주택(큰길상점)	북제주군 한림읍 명월리 1764	1950	-	-	조적조(현무암 조적조, 목조지붕)	상업시설	지상 1층	-	-	-	
020	세화리 부가네 식당	북제주군 구좌읍 세화리 1521-19	1950	-	-	목조	상업시설	지상 2층	-	-	-	

SUNG KYUN KWAN UNIVERSITY

021	서화리사무소(구좌면사무소)	북제주군 구좌읍 서화리 1465-1	1950	-	-	석조(현무암 조적조)	관청시설	지상 1층	-	-	-	
022	신촌리 장치주택(잡화점)	북제주군 조천읍 신촌리 2147-1	1950	-	-	목조	상업시설	지상 1층	-	28.14	-	
023	제주 제일고등학교	제주시 노형동 810	1950	김상식	-	-	교육시설	-	-		-	
024	강병대교회	남제주군 대정읍 상모리 3846	1952	국군 공병대	국군 공병대	현무암 조적조, 목재 트러스 및 함석지붕	-	지상 1층	-	595.05	595.05	
025	시흥초등학교 교사	남제주군 성산읍 시흥리 1001	1958	-	마을주민	석조(현무암 조적조, 목재트러스드 및 슬레이드지붕)	-	지상 1층	7988.92	848.81	-	멸실
026	제주시청사(제주도청사)	제주시 이도2동 1179-1	1958	주명룡	㈜중앙산업	적벽돌 조적조	관청시설	지상 2층	-	747.11	1490.92	
027	모슬포교회 사람의 집(모슬포교회 예비당)	남제주군 대정읍 하모리 805	1954	-	-	석조(현무암 조적조, 목재 트러스 및 함석지붕)	종교시설	지상 1층	-	-	119.01	
028	대정보건소(대정면사무소)	남제주군 대정읍 상모리 3862-1	1955	-	신흥토건사	현무암 조적조, 목재 트러스 및 밀식기와지붕	-	지상 2층	-	152.07	297.58	
029	한림성당 종탑	북제주군 한림읍 대림리 1814	1955	임 파드리치오 신부	한림성당 신자 등	석조(현무암 조적조, 목재 트러스드 및 함석지붕)	종교시설	지상 3층	-	-	337.20	
030	버룩시장 (제주시청사)	제주시 삼도2동 1042	1959	확진후	㈜대영토건	시멘트벽돌 조적조	업무 및 상업시설	지상 2층		581.82	1150.42	
031	한국기독교 장로회, 모슬포교회 사회교육관(모슬포교회 교회당)	남제주군 대정읍 하모리 1218-1	1959	-	-	석조(현무암 조적조, 목재 트러스드 및 슬레이드지붕)	종교시설	지상 1층	661.16	-	-	
032	고성리 농협창고	북제주군 이월읍 고성리	1960	-	-	석조(현무암 조적조, 목재 트러스드 및 슬레이드지붕)	창고시설	지상 1층	-	-	-	
033	덕수리 마을공동창고	남제주군 안덕면 덕수리	1960	-	-	현무암 조적조, 목재 트러스드 및 슬레이드지붕	창고시설	지상 1층	-	112.40	-	
034	코리아부엌가구(조천극장)	북제주군 조천읍 조천리 1231-1	1960	-	-	조적조	집회시설	지상 2층	-	-	-	
035	한림리 치치주택(삼성사진관)	북제주군 한림읍 한림리 1367	1960	-	-	조적조	상업시설	지상 1층	-	-	-	
036	한림문화원(한림극장)	북제주군 한림읍 한림리 1568	1960	-	-	조적조	집회시설	지상 2층	396.70	264.47	-	멸실
037	화순리 흥산정미소	남제주군 안덕면 화순리	1960	-	-	석조, 목재 트러스 및 함석지붕	-	-	-	-	-	
038	선흘리 기최농가	북제주군 조천읍 선흘리 337밭대	1968	임 파드리치오 신부	㈜공영건업	콘크리드 피닐(8寸式, 아일랜드식 B형 주택 등 별칭)	-	지상 1층	-	-	59.51	
039	하귀옥 다방(하귀당구장)	북제주군 이월읍 하귀1리 1750	1968	-	-	조적조	상업시설	지상 1층	-	-	-	
040	호텔하니크라운(제주관광호텔)	제주시 이도1동 1815	1968	김태식	-	철근콘크리드	숙박시설	지상 4층, 지하 1층	-	-	1289.00	
041	구 제주대학교 본관		1964	김중업	-	-	-	-	-	-	-	
042	금능 영성수련장(천주교 한림성당 금능공소)	북제주군 한림읍 금능리	1964	임 파드리치오 신부	-	콘크리드 피닐(속칭, 8寸式)	종교시설	지상 1층	-	-	-	
043	대한예수교 고산교회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 2192	1964	-	-	석조(현무암 외벽쌓기)	종교시설	지상 1층	-	-	125.62	
044	소라의 성		1964	김중업	-	-	-	-	-	-	-	

SUNG KYUN KWAN UNIVERSITY

045	제주시 시민회관	제주시 이도1동 1700-1	1964	김태식	강기정(대동건설주식회사)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조	집회시설	지상 8층, 지하 2층	1675.10	-	2669.45	
046	동문시장·시네하우스 (동문시장·동양극장)	제주시 일도1동 1146	1965	김한섭	-	철근콘크리트	상업시설	지상 2층, 극장부 3층	-	-	3680.00	
047	서귀포파크관광호텔(서귀관광호텔)	서귀포시 서귀동 654-4	1968	-	-	철근콘크리트	숙박시설	지상 8층	-	-	-	
048	용담리 농협창고	북제주군 한경면 용담리	1969	-	-	석조(현무암 조적조, 목재드러스드 및 슬레이드)	창고시설	지상 1층	-	-	145.46	
049	귀덕리 고구마저장고	북제주군 이월읍 귀덕리	1970	-	-	-	창고시설	지상 1층	-	-	162.29	
050	금성교회(대한예수교 금산교회)	북제주군 이월읍 금성리 569	1970	-	-	벽돌 조적조	종교시설	지상 1층		66.12	-	
051	납읍리 새마을 도정공장	북제주군 이월읍 납읍리	1970	-	-	석조(현무암 조적조, 목재드러스드 및 슬레이드지붕)	공업시설	지상 1층	-	-	132.24	
052	면수동 농어민창고	남제주군 성산읍 하도리(면수동)	1970	-	-	현무암 조적조, 목재 드러스 및 슬레이드지붕	-	지상 1층	-	132.24	-	
053	오조리 마을공동창고	남제주군 오조리 155-1	1970	-	-	현무암 조적조, 목재 드러스드 및 함석지붕	창고시설	지상 1층	-	-	-	
054	제주교육대학교 본관	제주시 화북1동 4810	1971	김한섭	-	철근콘크리트	교육시설	지상 4층	-	-	4498.00	
055	제주교육청사	-	1978	김희수	-	-	-	-	-	-	-	
056	제주도청	제주시 연동 312-1	1978	김희수	-	-	-	-	-	-	-	
057	제주대학교 캠퍼스	제주시 아라1동 산1	1979	이광노	-	-	교육시설	-	-	-	-	
058	신제주성당	제주시 연동 280-19	1981	김석윤	-	철근콘크리트	종교시설	지상 2층, 지하 1층	-	-	2009.00	
059	장전리 경미소	북제주군 이월읍 장전리 448-5	1981	-	-	조적조	-	지상 1층	-	-	-	
060	제주 민속자연사 박물관	제주시 일도2동 996	1983	김홍식	-	철근콘크리트	전시 및 집회시설	지상 2층, 지하 1층	-	-	52.99	
062	기당 미술관	-	1984	김홍식	-	-	-	-	-	-	-	
063	제주 우당도서관	제주시 건입동 818	1984	김종성(김원)	-	-	교육시설		-	-	-	
064	제주시 공무원교육원	제주시 아라동 868-20	1984	김석윤	-	철근콘크리트	교육시설	지상 8층	-	-	6909.65	
065	만장굴 휴게소	-	1985	김창우	-	-	-	-	-	-	-	
066	하얏트리젠시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 269-2 중문관광단지 내	1985	WWAT&G	-	철근콘크리트	숙박시설	지상 8층, 지하 4층	-	-	28041.00	
067	한컴공원 휴게소 및 안내소	-	1986	김창우	-	-	-	-	-	-	-	
068	문예회관	-	1988	김홍식, 김상식	-	-	-	-	-	-	-	
069	제주 오리엔탈관광호텔	제주도 제주시 삼도2동 1197	1989	-	-	-	-	-	-	-	-	
070	제주도 의회의사당	제주시 연동 311-45	1989	강요균	-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지상 4층, 지하 1층	-	-	5909.64	
071	탐라도서관	제주시 노형동 1479	1989	김석윤	-	철근콘크리트	교육시설	지상 8층, 지하 1층	-	-	4220.70	
072	대한항공 제주지점 사옥	-	1990	김성리	-	-	-	-	-	-	-	
073	제주 파라다이스 서귀포 호텔	서귀포시 토평동 511	1990	김효	-	철근콘크리트	숙박시설	지상 8층, 지하 1층	-	-	10826.00	
074	호텔 그린필라	서귀포시 색달동 2812-10 중문관광단지	1990	송기덕	-	철근콘크리트	숙박시설	지상 8층, 지하 1층	-	-	8067.30	

SUNG KYUN KWAN UNIVERSITY

075	제주신라호텔	서귀포시 색달동 3089-8중문관광단지	1991	WWAT&G	-	철골 철근콘크리드	숙박시설	지상 5층, 지하 2층	-	-	56105.00	
076	제주 프린스호텔	제주 서귀포	1998	안병의	-	-			-	-	-	
077	제주도 노인복지회관	제주시 삼도2동 44-1	1998	김석윤	-	철근콘크리드	의료시설	지상 2층, 지하 1층	-	-	1216.00	
078	탑동 해변공연장	-	1995	김용철	-	-			-	-	-	
079	서기건설 사옥	제주시 노형동 977-1	1996	김용철	-	철근콘크리드	상업시설	지상 9층, 지하 1층	-	-	-	
080	제주 영상미디어센터 (제주 관광민속 타운)	제주시 일도 2동 837-20	1996	김희수	-	-			-	-	-	
081	제주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	제주시 이도2동 890	1996	허영주	-	철골 철근콘크리드	업무시설	지상 5층, 지하 2층	-	-	18304.58	
082	제주교육박물관	제주시 이도2동 589-14	1996	강행심	-	철근콘크리드	전시 및 집회시설	지상 2층, 지하 1층	-	-	2854.89	
083	제주학생회관·제주도립도서관	제주시 이도2동 414	1996	강행심	-	철근콘크리드	교육시설	지상 3층, 지하 1층	-	-	7644.00	
084	제주 삼성어린이집	제주시 이도1동 1692-22	1997	삼우	-	철근콘크리드	상업시설	지상 3층, 지하 1층	-	-	982.10	
085	제주 영화박물관	남제주군 남원읍 남원리 1408-1외	1997	김석철	-	철근콘크리드	전시시설	지상 2층, 지하 1층	-	-	2106.00	
086	제주 컨벤션센터	서귀포시 중문동	1997	일건설계	-	-	-	-	-	-	-	
087	강정교회	서귀포시 강정동 4400-4	1998	김지권	-	철근콘크리드	종교시설	지상 3층	-	-	820.90	
088	신광빌딩	제주시 도남동 83-54	1998	오용화	-	철근콘크리드	상업시설	지상 6층, 지하 1층	-	-	800.56	
089	예치과 의원	제주시 도남동 75-3	1998	임성추	-	철근콘크리드	상업시설	지상 6층, 지하 1층	-	-	1595.00	
090	제주산업정보대학 학생회관	제주시 영평동 2285	1998	김유봉	-	철근콘크리드	교육시설	지상 3층, 지하 1층	-	-	3398.19	
091	제주월드컵 경기장	서귀포시	2001	-	-	-	-	-	-	-	-	
092	포도호텔	-	2002	이타미 준	-	-	-	-	-	-	-	
093	제주 밀레니엄관	-	2003	-	-	-	-	-	-	-	-	
094	서귀포 기적의 도서관	-	2004	-	-	-	-	-	-	-	-	
095	제주 전문건설회관	제주도 제주시 노형동 710-10	2005	이춘기	-	-	-	-	-	-	-	
096	다음 글로벌미디어 센터	제주시 오등동 1780-8	2006	유석연	장학건설	철근콘크리드	상업시설	지상3층, 지하1층	9917.25	1970.86	5071.49	
097	성내교회	제주시 삼도 일동 905	-	-	-	-	종교시설	-	-	-	-	
098	이필문화체육관	-	1994	김석윤	-	-	-	-	-	-	-	
099	여미지 식물원	-	-	-	-	-	-	-	-	-	-	
100	이기풍 선교회관	북제주군 조천읍 와흘리 산 14	-	-	-	철근콘크리드	교육시설	지상 2층, 지하 1층	-	-	6412.27	
101	인천문화당	-	-	-	-	-	-	-	-	-	-	
102	일제시대 중앙성당	-	-	-	-	-	종교시설	-	-	-	-	
103	제지 예술인 문화예술인 마을	-	-	-	-	-	-	-	-	-	-	
104	제광교회	-	-	김석윤	-	-	-	-	-	-	-	
105	제주 기적의 도서관	-	-	정기용	-	-	-	-	-	-	-	
106	제주해우	제주시 외도동 1921	-	한동신	-	철근콘크리드	상업시설	지상 4층, 지하 1층	-	-	761.60	
107	펜크스 골프클럽하우스	남제주군 안덕면 상천리 산 62-3	-	-	-	철근콘크리드	상업시설	지상 2층	-	-	2295.95	
108	현대해상화재보험 제주사옥	-	2000	간삼	-	-	-	지상 16층, 지하 6층	-	-	20825.20	
109	제주시 관호텔	-	-	-	-	-	-	-	-	-		

SUNG KYUN KWAN UNIVERSITY

부록 - 2 : 대상건축물에 대한 분석 및 건축정보

■ B01-세화리사무소(구 구좌면사무소)

건축개요			지역성 표현방법							
대지위치		서귀포시 구좌읍 세화리	표현요소	표현방법	결여 → 충족				
					1	2	3	4	5
면적	대지면적	-	배치방식	관습에 의한 배치방식	●				
	건축면적	-		자연에 대한 순응	●				
	연 면 적	-	개념 해석	자의적 해석을 통해 표현	●				
규모	지 상	1층	외벽의 특성	제주의 주변 재료 사용					●
	지 하	-	지붕의 특성	자연환경에 대한 해석				●	
설계자(담당)		-	오브제	전통 오브제의 해석					
			환경표현	바람에 대한 대응	●				
준공년도		1950	높이	가로에 대한 세로의 높이	●				
내용참고		제주도, 제주도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사업, 제주도, 2003	그림출처		좌 동				

사 진-1	사 진-2
	

내 용

1950년 제주도청사보다 먼저 건축된 구좌면사무소는 현재 구좌읍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다. 벽체는 사진-2에서 보듯이 당초에는 현무암으로 마감하였으나 후에 몰탈을 덧씌워 페인트로 마감하였으나 아직도 후면부에 현무암 벽체의 일부가 남아 있다.

구좌읍사무소의 건축적 특징을 보면 현관포치가 몸체에 비하여 유난히 크고, 좌우의 날개부분이 서로 달라 대칭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등, 다소 기형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 처마높이는 3.6m로 비교적 높은 편이며, 벽체 두께는 0.5m로 같은 시기의 건물들과 비교해보면 비슷하다. 지붕형태는 우진각지붕을 하고 있는데 비가 많은 지역임을 고려해 보면 적절한 계획임을 알 수 있다. 지붕재료는 시멘트 기와를 사용하였다.

SUNG KYUN KWAN UNIVERSITY

■ C01-제주 제일고등학교

건축개요		
대지위치		제주시 노형동
면적	대지면적	52,533㎡
	건축면적	-
	연 면 적	-
규모	지 상	2~4층
	지 하	-
설계자(담당)		김상식
준공년도		19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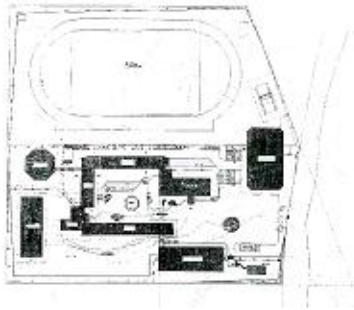
지역성 표현방법							
표현요소	표현방법	결 여 → 충 족				
		1	2	3	4	5
배치방식	관습에 의한 배치방식	●				
	자연에 대한 순응					●
개념 해석	자의적 해석을 통해 표현	●				
외벽의 특성	제주의 주변 재료 사용	●				
지붕의 특성	자연환경에 대한 해석	●				
오브제	전통 오브제의 해석					
환경표현	바람에 대한 대응	●				
높이	가로에 대한 세로의 높이		●			

내용참고	99건축문화의해조직위원회, 전국건축문화자산-제주, 99건축문화의해조직위원회, 1999	그림출처	좌 동

사 진-1



사 진-2



내 용

지난날의 교사와 학생들이 갖고 있던 진부한 관계에서 좀 더 인간적이고 개방적인 분위기의 교육환경과 학생들 스스로의 주도적인 학습욕구 형성이라는 시너지효과를 획득할 수 있는 시설의 제공이 이 프로젝트의 모티브이다. 학교가 갖고 있는 기능을 적절히 분산 그리고 연계시킴에 있어서 대지에서의 그 기능으로의 접근성의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제시해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일반교실동과 특별교실 그리고 교무동의 연계적인 배치에 체육관과 도서관의 별동 형태의 계획이 대지의 진입에서 각 기능으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이러한 기능으로의 접근과정을 연출하는데 분동이 요구되며 각각의 동이 필요로 하는 긴 동선을 중정 형태의 조경과 브릿지를 갖고서 학교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을 수요할 수가 있었다. 학교의 입구가 갖는 외부인과의 접근성 차원에서 체육관을 전면 배치하여서 지역사회와 연계성을 고려하였다. 대지의 남측이 수목이 둘러싸여 있는 정적인 공간이라는 점을 착안하여 일반 교실동과 도서관을 인접시켰고, 바다로의 전망이 탁 트인 북측에는 운동장을 배치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트인 전망과 차분한 분위기를 형성하게 하였다. 이러한 기능적 요소는 교지 전체의 지형을 단계별로 이용하도록 하는 자연친화적인 건물로 건듭나게 하였다.

SUNG KYUN KWAN UNIVERSITY

■ A02-구 시흥 초등학교 교사

건축개요		
대지위치		남제주군 성산읍 시흥리
면적	대지면적	7,933.92㎡
	건축면적	343.81㎡
	연 면 적	-
규모	지 상	지상1층
	지 하	-
설계자(담당)		-
준공년도		1953

지역성 표현방법							
표현요소	표현방법	결 여 → 충 족				
		1	2	3	4	5
배치방식	관습에 의한 배치방식	●				
	자연에 대한 순응	●				
개념 해석	자의적 해석을 통해 표현	●				
외벽의 특성	제주의 주변 재료 사용					●
지붕의 특성	자연환경에 대한 해석				●	
오브제	전통 오브제의 해석					
환경표현	바람에 대한 대응	●				
높이	가로에 대한 세로의 높이				●	

내용참고	양상호, 탐라대학교 교수의 견해	그림출처	

사 진-1



사 진-2



내 용

구 시흥교교사는 일제강점기와 4·3 및 6·25전쟁을 겪은 후, 제주의 모든 상황이 무척이나 열악했음을 짐작케 하는 건물이다. 학교부지도 마을주민의 희사로 마련되었고, 주된 건축자재인 석재나 목재도 주민들 스스로 주변에서 채취하고 가공하여 사용하였다는 증언을 듣다보면, 주민들의 교육열의에 감탄을 금할 길이 없다. 비록 비전문가의 작업에 의해 세워진 교사건물이라 하지만, 외벽은 현무암을 일정한 규격으로 반듯하게 가공하여 바른층쌓기로 쌓고 시멘트 몰탈로 줄눈까지 매끈하게 마무리하였다. 외벽의 창문이나 출입문을 교실의 위치에 따라 달아내면서, 조적조(組積造, 벽돌이나 석재를 쌓아올린 구조방식)의 특성상 세로로 길게 오르내리창으로 하였다. 또한, 내부는 목재를 사용하여 기둥, 바닥, 천정, 지붕틀까지 정교하게 마감하였다. 교실사이의 칸막이벽은 흙벽위에 흰색의 회벽으로 마감하고, 교실과 복도사이의 벽은 유리창문과 판자벽으로 마감하여, 조명시설이 필요 없을 정도의 밝은 실내공간을 만들었다.

지붕틀은 목제의 왕대공트러스(King post Truss, 여러 개의 부재로 삼각형을 만들어 자연스럽게 지붕물매까지 만드는 트러스)로 구성되어있는데, 이는 당시 가장 일반적인 지붕구조방식이다. 다시 말해, 전통적인 한옥의 지붕구조와는 다른 서구식 트러스를 사용한 것으로, 일제강점기의 건물에서 참고한 방식일 것이다. 또한 지붕의 처마길이가 매우 짧은 것을 보면 거센 바람을 의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벽체에 부딪힌 바람이 처마를 쳐올려 지붕을 파손시키기 때문에, 이는 제주민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처마의 형태이며, 제주건축의 독특한 형태를 만들어내는 주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SUNG KYUN KWAN UNIVERSITY

■ C02-벼룩시장(구 제주시청사)

건축개요		
대지위치		제주시 이도2동
면적	대지면적	-
	건축면적	747.11㎡
	연 면 적	1,490.92㎡
규모	지 상	지상 2층
	지 하	-
설계자(담당)		주명록
준공년도		1953

지역성 표현방법							
표현요소	표현방법	결 여 → 충 족				
		1	2	3	4	5
배치방식	관습에 의한 배치방식	●				
	자연에 대한 순응	●				
개념 해석	자의적 해석을 통해 표현	●				
외벽의 특성	제주의 주변 재료 사용				●	
지붕의 특성	자연환경에 대한 해석	●				
오브제	전통 오브제의 해석					
환경표현	바람에 대한 대응	●				
높이	가로에 대한 세로의 높이	●				

내용참고	제주도, 제주도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사업, 제주도, 2003	그림출처	

사 진-1



사 진-2



내 용

이곳은 일제강점기 이후 계속 관청부지였고 조선시대의 행정유적지의 역사성과 연관이 있는 장소이다. 1980년 3월까지 제주시청사로 사용하다 개인에게 팔린다. 현재, 몇 개의 업체사무실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오랜 시간 관리가 미흡한지라 현재는 내외부가 모두 낙후된 상태이다.
본 건물에 사용된 시멘트벽돌은 제주에서는 최초로 제작된 것이다.

SUNG KYUN KWAN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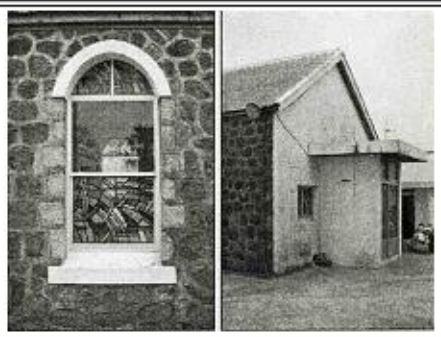
■ A03-모슬포교회 사랑의 집(구 모슬포교회 예배당)

건축개요			지역성 표현방법							
대지위치		남제주군 대정읍 하모리	표현요소	표현방법	결여→충족				
					1	2	3	4	5
면적	대지면적	-	배치방식	관습에 의한 배치방식	●				
	건축면적	-		자연에 대한 순응	●				
	연 면 적	119.01㎡	개념 해석	자의적 해석을 통해 표현	●				
규모	지 상	1층	외벽의 특성	제주의 주변 재료 사용					●
	지 하	-	지붕의 특성	자연환경에 대한 해석		●			
설계자(담당)		-	오브제	전통 오브제의 해석					
준공년도		1954	환경표현	바람에 대한 대응		●			
			높이	가로에 대한 세로의 높이			●		
내용참고		제주도, 제주도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사업, 제주도, 2003	그림출처		좌 동				

사 진-1



사 진-2



내 용

1952년 당시 송악산 쪽에 있던 중공군포로들 중 일부가 공사에 투입되었으나, 포로 교환에 의해 송환되자 공사가 중단되었다. 그 후 2년 뒤인 1954년 3월에 완공된다.

본 건물의 처마 높이는 3.35m, 용마루높이 5.6m, 평면은 6.5m X 18.6m의 장방형을 갖는다. 개구부에 아치를 틀었다. 아치는 벽체인 현무암 색깔과 대비되는 하얀색 사암으로 쌓으므로 의장에 변화를 준 것이 본 건물의 큰 특징이라 하겠다.

SUNG KYUN KWAN UNIVERSITY

■ C37-구 제주대학교 본관

건축개요		
대지위치		제주시
면적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 면 적	-
규모	지 상	3층
	지 하	-
설계자(담당)		김중업
준공년도		19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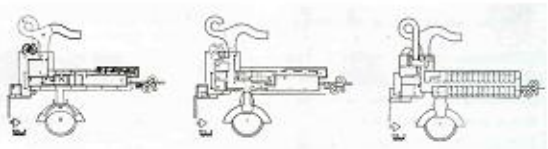
지역성 표현방법							
표현요소	표현방법	결 여 → 충 족				
		1	2	3	4	5
배치방식	관습에 의한 배치방식	●				
	자연에 대한 순응	●				
개념 해석	자의적 해석을 통해 표현					●
외벽의 특성	제주의 주변 재료 사용	●				
지붕의 특성	자연환경에 대한 해석					●
오브제	전통 오브제의 해석					
환경표현	바람에 대한 대응					●
높이	가로에 대한 세로의 높이			●		

내용참고	99건축문화의해조직위원회, 전국건축문화자산-제주, 99건축문화의해조직위원회, 1999	그림 출처	

사 진-1



사 진-2



내 용

제주대학 구본관의 대지는 들판이었고, 한 때는 일본군의 군용비행장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는데, 구본관은 멀리서 보면 하늘로 웅비할 듯 한 모습이다. 입면과 평면의 공간구성에 있어서 르 꼬르뷔제의 근대건축 5원칙이 적절히 적용되었다. 기둥에서 벽체가 분리되어 자유로운 평면구성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입면형식을 취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분절된 형태이지만 2층의 연속적인 창 그리고 기둥과 분리된 2,3층의 외부벽체와 좌측면의 3층 돌출부분을 지지하는 1층의 외부기둥은 필로티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옥상의 노천스탠드는 옥상정원의 변용이라고 할 수 있다.

SUNG KYUN KWAN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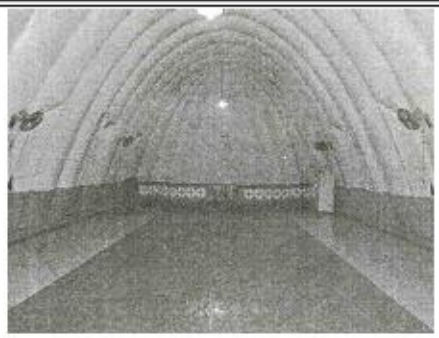
■ B02-금능 영선수련장(천주교 한림성당 금능공소)

건축개요			지역성 표현방법							
대지위치		북제주군 한림읍 금능리	표현요소	표현방법	결여→충족				
					1	2	3	4	5
면적	대지면적	-	배치방식	관습에 의한 배치방식	●				
	건축면적	-		자연에 대한 순응	●				
	연 면 적	-	개념 해석	자의적 해석을 통해 표현	●				
규모	지 상	1층	외벽의 특성	제주의 주변 재료 사용	●				
	지 하	-	지붕의 특성	자연환경에 대한 해석					●
설계자(담당)		임 파트리치오 신부	오브제	전통 오브제의 해석					
준공년도		1964	환경표현	바람에 대한 대응				●	
			높이	가로에 대한 세로의 높이		●			
내용참고		제주도, 제주도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사업, 제주도, 2003	그림출처						

사 진-1



사 진-2



내 용

1957년 7월에 설립된 금능공소의 경당이다. 1963년 선흘리의 개척농가의 구축방법이 똑 같다. 1964년 금능공소의 경당으로 건설되었다. 1m가 좀 안 되는 속칭 3간식(間式)이라고 불리는 아치형 콘크리트 패널을 길게 덧붙이기를 하여 공간을 만들었다. 개구부의 연결부 부위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금능공소(현재 영성수련장)는 성당건축의 전형적인 형태는 아니지만 그 세련된 형태와 건설상의 편의성 등의 면에서 매우 근대적인 건축물이라 할 수 있다. 설계 및 시공의 책임자였던 임 파트리치오신부의 뛰어난 안목이 발휘된 건축물이라 하겠다.(양상호, 탐라대학교 교수)

1992년 9월 금능공소가 폐쇄되면서 1997년 7월에 개수공사를 하고 현재는 영성 수련장으로 사용 중이다.

SUNG KYUN KWAN UNIVERSITY

■ B03-고산 교회

건축개요			지역성 표현방법							
대지위치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	표현요소	표현방법	결여→충족				
					1	2	3	4	5
면적	대지면적	-	배치방식	관습에 의한 배치방식	●				
	건축면적	125.62㎡		자연에 대한 순응	●				
	연 면 적	-	개념 해석	자의적 해석을 통해 표현	●				
규모	지 상	1층	외벽의 특성	제주의 주변 재료 사용					●
	지 하	-	지붕의 특성	자연환경에 대한 해석		●			
설계자(담당)		-	오브제	전통 오브제의 해석					
준공년도		1964	환경표현	바람에 대한 대응	●				
			높이	가로에 대한 세로의 높이			●		

내용참고	제주도, 제주도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사업, 제주도, 2003	그림출처	좌 동

사 진-1	사 진-2
	-

내 용

고산교회는 방정한 목사의 재임(1963-1966) 중 준공되었다. 본 건물의 북쪽에 종탑(현무암 기단 위 벽돌조적조 종탑)이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이전에 교회당을 철거하고 본 건물을 신축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현무암 벽체로 되어 있고 정면 파사드는 전체적으로 아치형의 개구부이며 모든 개구부의 테두리는 이질재료를 쓰므로 정면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벽체가 안쏠림(쳐마로 갈수록 안으로 기울어지게 하는 기법)으로 되어있는데 이는 의도적인 건축기법으로 판단된다.

SUNG KYUN KWAN UNIVERSITY

■ D01-소라의 성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귀포시 소정방폭포 인근
면적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 면 적	234.00㎡
규모	지 상	2층
	지 하	-
설계자(담당)		김중업
준공년도		1969

지역성 표현방법							
표현요소	표현방법	결 여 → 충 족					
		1	2	3	4	5	
배치방식	관습에 의한 배치방식	●					
	자연에 대한 순응					●	
개념 해석	자의적 해석을 통해 표현					●	
외벽의 특성	제주의 주변 재료 사용			●			
지붕의 특성	자연환경에 대한 해석					●	
오브제	전통 오브제의 해석						
환경표현	바람에 대한 대응					●	
높이	가로에 대한 세로의 높이		●				

내용참고		그림출처	

사 진-1



사 진-2



내 용

현재 식당으로 쓰이는 소라의성은 처음 관광전망대로 이용되었다. 소라의성은 해안 절벽지대위에 세워 졌는데 장소성을 고려해보면 전망대의 역할을 충분히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김중업 선생의 매스표현 특징을 보면 표현주의 기법이 주를 이룬다. 이런 특징은 소라의성에도 나타난다. 소라의성의 유선형을 띠는 매스는 자유로운 해안선으로 이루어진 장소의 특성과 바람이 많은 지역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고려하여 계획되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외부 마감은 전체적으로 현무암으로 되어 있고 계단실과 돌출된 매스는 하얀색 수성페인트를 발랐다. 그러나 현 주인과 인터뷰를 통해 알아본 결과 하얀색 수성페인트는 후에 칠한 것이고 원래는 노출콘크리트에 검은 바다자갈이 붙어 있었다고 한다. 지금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흔적이 남아 있다.

시 당국은 구 제주대학교 본관이 시공의 문제와 해사의 사용으로 철거된 것처럼 현 건물도 균열과 현 위치가 재해위험지구라는 이유로 철거할 계획이라고 한다.

SUNG KYUN KWAN UNIVERSITY

■ C03-제주시 시민회관

건축개요		
대지위치		제주시 이도1동
면적	대지면적	1,675.10㎡
	건축면적	-
	연 면 적	2,669.45㎡
규모	지 상	3층
	지 하	2층
설계자(담당)		김태식
준공년도		1964

지역성 표현방법							
표현요소	표현방법	결 여 → 충 족				
		1	2	3	4	5
배치방식	관습에 의한 배치방식	●				
	자연에 대한 순응	●				
개념 해석	자의적 해석을 통해 표현	●				
외벽의 특성	제주의 주변 재료 사용	●				
지붕의 특성	자연환경에 대한 해석		●			
오브제	전통 오브제의 해석					
환경표현	바람에 대한 대응	●				
높이	가로에 대한 세로의 높이	●				

내용참고	제주도, 제주도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사업, 제주도, 2003	그림 출처	

사 진-1



사 진-2



내 용

경성고공 건축과 출신인 김태식과 감독관 서남식, 최영길은 서울특별시 소속의 공무원이다. 시민회관은 크게 두 매스로 이루어져 있다. 주로 집회, 운동경기, 공연 등의 다목적시설이 요도인 매스와 계단과 큰 홀이 그리고 화장실이 있는 코어부분의 매스로 구성 되어졌다. 당시로서는 지역 내에서 보기 드문 Modernism건축으로 다목적용으로 건설된 최초의 건물이다.

강당부는 철골트러스 구조이며 지붕은 박공형을 취하고 코어부분은 평지붕으로 정면에서 보면 강당부가 가림으로 육중한 느낌을 준다.

전체적으로 수성 페인트를 칠했는데 처음에는 노출콘크리트였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 정면 파사드는 타일을 붙였는데 밋밋함을 덜기 위해 포인트로 돌하르방 문양의 타일을 삼각배열형식을 취하면서 붙였다. 이렇게 붙인 돌하르방 타일은 직접적으로 지역성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SUNG KYUN KWAN UNIVERSITY

■ D02-구 남제주군청사

건축개요		
대지위치		제주도 서귀포시
면적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 면 적	925.00㎡
규모	지 상	2층
	지 하	-
설계자(담당)		김한섭
준공년도		1964

지역성 표현방법							
표현요소	표현방법	결 여 → 충 족					
		1	2	3	4	5	
배치방식	관습에 의한 배치방식	●					
	자연에 대한 순응	●					
개념 해석	자의적 해석을 통해 표현	●					
외벽의 특성	제주의 주변 재료 사용			●			
지붕의 특성	자연환경에 대한 해석	●					
오브제	전통 오브제의 해석						
환경표현	바람에 대한 대응	●					
높이	가로에 대한 세로의 높이		●				

내용참조	금성종합설계공사, 건축가 김한섭, 주)토탈디자인, 1984	사진출처	좌 동

사 진-1



사 진-2

-

내 용

뚫린 블록쌓기 마감, 가는 루버선으로 창출한 조형물을 통해 보면 수공예적 구조기술로 건축된 작품이라 하겠다. 정면 파사드는 코어부분과 업무시설로 나눠져 보인다. 곡선을 가진 코어부분은 수평적인 업무시설과 대응을 보이지만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업무시설의 하부는 전체적으로 제주석으로 마감했고 코어부분은 부분적으로 제주석으로 마감하였는데 예산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현재는 철거되었다.

SUNG KYUN KWAN UNIVERSITY

■ C04-동문시장 · 시네하우스(동문시장 · 동양극장)

건축개요		
대지위치		제주시 일도1동
면적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 면 적	3,680.00㎡
규모	지 상	2층(극장부 3층)
	지 하	-
설계자(담당)		김한섭
준공년도		1965

지역성 표현방법							
표현요소	표현방법	결 여 → 충 족				
		1	2	3	4	5
배치방식	관습에 의한 배치방식	●				
	자연에 대한 순응	●				
개념 해석	자의적 해석을 통해 표현	●				
외벽의 특성	제주의 주변 재료 사용	●				
지붕의 특성	자연환경에 대한 해석				●	
오브제	전통 오브제의 해석					
환경표현	바람에 대한 대응	●				
높이	가로에 대한 세로의 높이		●			

내용참고	제주도, 제주도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사업, 제주도, 2003	그림 출처	

사 진-1



사 진-2



내 용

시장과 점포들 그리고 극장 등의 다용도의 성격을 가지는 복합건물로 실험기의 말미를 장식하는 작품으로 당시 제주에서 가장 규모가 큰 건물이다.

이 건물의 건축적 특징은 각기 다른 용도, 성격을 그대로 외부에 표현하는 기법으로 디자인되어 아름다운 조형미를 연출하고 있다. 건물의 외형은 크게 4가지, 즉 긴 네모꼴 상자형, 원호형 아치가 물결 모양으로 반복되는 지붕을 가진 덩어리, 영화관의 내부공연이 천막을 쳐놓은 것처럼 돌출된 덩어리, 그리고 삼각형대지의 예각에 세워진 계단실 덩어리로 구분된다.

이렇게 서로 다른 느낌의 덩어리를 대비시키면서 질감을 서로 다르게 하고, 두덩어리가 만나는 이음 점에는 ㅍ자 문양의 뚫린 블록쌓기를 하여 두 덩어리의 이질적인 완화시키고 있다. 현재, 극장의 내부는 현대적으로 내부공간을 리노베이션하여 관람석과 스크린 사이의 공간을 확보하고, 밝은 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해 조명을 배치하였으며, 복도는 전시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

SUNG KYUN KWAN UNIVERSITY

■ B04-납읍리 새마을 도정공장

건축개요			지역성 표현방법							
대지위치		서귀포시 애월읍 납읍리	표현요소	표현방법	결여→충족				
					1	2	3	4	5
면적	대지면적	-	배치방식	관습에 의한 배치방식	●				
	건축면적	-		자연에 대한 순응	●				
	연 면 적	132.24㎡	개념 해석	자의적 해석을 통해 표현	●				
규모	지 상	1층	외벽의 특성	제주의 주변 재료 사용					●
	지 하	-	지붕의 특성	자연환경에 대한 해석			●		
설계자(담당)		-	오브제	전통 오브제의 해석					
준공년도		1970년 경	환경표현	바람에 대한 대응	●				
			높이	가로에 대한 세로의 높이		●			
내용참고		제주도, 제주도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사업, 제주도, 2003	그림출처		좌 동				

사 진-1	사 진-2
	-

내 용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세운 도정공장이다. 지붕은 제재된 각목을 이용한 당시 전형적인 왕대공트러스위에 슬레이트로 마감하였다. 벽체는 제주 현무암으로 거칠게 쌓아올렸으나, 제주도 민가나 석조건물의 특징인 벽체의 안쏠림 기법이 나타나고 있다.

SUNG KYUN KWAN UNIVERSITY

■ C05-제주 교육대학교 본관

건축개요		
대지위치		제주시 화북1동
면적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 면 적	4,498.00㎡
규모	지 상	4층
	지 하	-
설계자(담당)		김한섭
준공년도		19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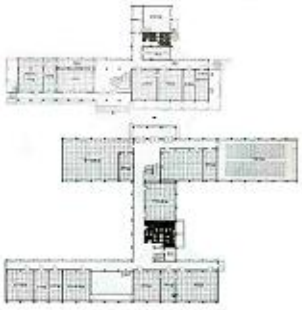
지역성 표현방법							
표현요소	표현방법	결 여 → 충 족				
		1	2	3	4	5
배치방식	관습에 의한 배치방식	●				
	자연에 대한 순응	●				
개념 해석	자의적 해석을 통해 표현	●				
외벽의 특성	제주의 주변 재료 사용	●				
지붕의 특성	자연환경에 대한 해석		●			
오브제	전통 오브제의 해석					
환경표현	바람에 대한 대응	●				
높이	가로에 대한 세로의 높이			●		

내용참고	99건축문화의해조직위원회, 전국건축문화자산-제주, 99건축문화의해조직위원회, 1999	그림 출처	

사 진-1



사 진-2



내 용

건축가 김한섭은 60-70년대 건축의 불모지라 할 수 있는 제주지역의 개척자적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유행하였던 르 꼬르뷔제의 건축언어성이 짙은 모더니즘적 작품 성향 속에서 제주적 문화에 바탕을 둔 건축철학의 언어를 가지고 실험적 건축을 시도하였으며, 그 대표적인 수작(秀作)중의 하나가 제주교육대학이다. 제주교육대학은 무장식적 요소의 강조 그리고 제주 지역의 시공능력으로 건축 가능한 구조, 지역에서 구입 가능한 재료의 사용을 기본적인 설계목표로 설정하는 등 제주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노력이 엿보인다. 이러한 개념설정을 바탕으로 주요 건축물을 약간 어긋난 二字形 배치형태로 하고, 이를 연결하여 工字形 평면구조가 되게 하였는데, 이는 산의 비탈을 이용하여 자연지형의 인위적 변화를 최소화하면서 자연스럽게 건축물이 분절·배열되어 위압감을 줄임과 아울러 자연환경을 위한 배려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수평적으로 배치된 큰 구조물을 가느다란 수직선으로 분절시켜 학교건축물이 가지는 부드러움과 따스함이 표출되는 입면의 조형성이 되게 하였다. 특히, 二字形의 두 건축물을 연결하는 건축물의 4층 도서관과 옥탑층의 경사면은 二字形배치에 따른 단조로운 수평적 입면에 액센트를 부여하고 건축물의 배경(背景)이 되는 사라봉의 경사면과의 자연스러운 조화를 시도하였다.

SUNG KYUN KWAN UNIVERSITY

■ C06-제주 교육청사

건축개요		
대지위치		제주시 연동
면적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 면 적	1,627.00㎡
규모	지 상	4층
	지 하	1층
설계자(담당)		김희수
준공년도		1978

지역성 표현방법		결	여	→	충	족
표현요소	표현방법	1	2	3	4	5
배치방식	관습에 의한 배치방식	●				
	자연에 대한 순응	●				
개념 해석	자의적 해석을 통해 표현	●				
외벽의 특성	제주의 주변 재료 사용				●	
지붕의 특성	자연환경에 대한 해석	●				
오브제	전통 오브제의 해석					
환경표현	바람에 대한 대응	●				
높이	가로에 대한 세로의 높이	●				

내용참고		그림출처	

사 진-1



사 진-2



내 용

제주도 교육문화의 계승과 발전의 산실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제주도 교육위원회 청사는 건물규모가 그리 크지 않지만 좌우대칭의 단순한 매스처리로 올바르고 단정함을 표현하고 있다.
특히, 일정한 크기의 일련의 창문들은 단순한 형태 내에서 풍부한 조형적 언어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저층부의 피로티는 뒷부분의 현무암이 전면의 백색의 외장재료와 대비를 이루면서 빛과 그림자에 대한 조화 속에서 입체감이 살아있는 건물로 설계되었다.

SUNG KYUN KWAN UNIVERSITY

■ C07-제주도청

건축개요		
대지위치		제주시 연동
면적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 면 적	-
규모	지 상	-
	지 하	-
설계자(담당)		김희수
준공년도		1978

지역성 표현방법							
표현요소	표현방법	결	여	→	총	족	
		1	2	3	4	5	
배치방식	관습에 의한 배치방식	●					
	자연에 대한 순응	●					
개념 해석	자의적 해석을 통해 표현	●					
외벽의 특성	제주의 주변 재료 사용				●		
지붕의 특성	자연환경에 대한 해석	●					
오브제	전통 오브제의 해석						
환경표현	바람에 대한 대응	●					
높이	가로에 대한 세로의 높이	●					

내용참고	99건축문화의해조직위원회, 전국건축문화자산-제주, 99건축문화의해조직위원회, 1999	그림 출처	

사 진-1



사 진-2



내 용

본 건물은 제주도의 대표적인 관공서 건물로서 계획초기부터 관광지라는 지역적인 특징과 기존의 관공서와는 다른 개방된 이미지를 반영하려는 것이 개념설정의 주안점이었다.

1층의 대부분을 전시공간으로 계획하여 관광객과 제주도민을 적극적으로 청사내부로 끌어들이려고 하였으며, 전면부의 노출된 기둥과 처마로 이루어진 공간은 이를 위한 유도 공간 및 비람과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볼 수가 있다.

SUNG KYUN KWAN UNIVERSITY

■ C08-제주대학교 캠퍼스

건축개요		
대지위치		제주시 아라1동
면적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 면 적	-
규모	지 상	-
	지 하	-
설계자(담당)		이광노
준공년도		1976

지역성 표현방법							
표현요소	표현방법	결 여 → 충 족				
		1	2	3	4	5
배치방식	관습에 의한 배치방식			●		
	자연에 대한 순응					●
개념 해석	자의적 해석을 통해 표현	●				
외벽의 특성	제주의 주변 재료 사용			●		
지붕의 특성	자연환경에 대한 해석	●				
오브제	전통 오브제의 해석					
환경표현	바람에 대한 대응	●				
높이	가로에 대한 세로의 높이			●		

내용참고	99건축문화의해조직위원회, 전국건축문화자산-제주, 99건축문화의해조직위원회, 1999	그림 출처	

사 진-1



사 진-2



내 용

제주대학교는 연구교육 및 행정의 효율화, 그리고 제주지역에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위한 종합대학교로서의 기능강화를 목적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에 분산되어 있던 시설을 1973년에 현재의 아라동 캠퍼스로 통합이전(統合移轉)되었다.

당초의 마스터플랜은 학생수용인원을 3,000명 규모를 전체로 시설의 기능과 규모계획이 수립되었다. 진입로에서 좌우로 분리되면서 구내를 순환하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좌측부분은 교육·연구시설군, 우측부분은 체육, 업무부대시설군 그리고 중앙부분에 본관, 도서관, 광장이 배치되었다.

타 대학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제주대학교 캠퍼스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현재의 본관 북측에 면한 잔디광장, 남측에 면한 야외박물관의 오픈스페이스를 들 수 있는데, 이곳들은 학생들의 휴식공간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기능이 이루어지는 주요 공간이기도 하다.

SUNG KYUN KWAN UNIVERSITY

■ C09-신제주성당

건축개요		
대지위치		제주시 연동
면적	대지면적	3,708.00㎡
	건축면적	1,252.00㎡
	연 면 적	2,900.00㎡
규모	지 상	2층
	지 하	1층
설계자(담당)		김석윤
준공년도		19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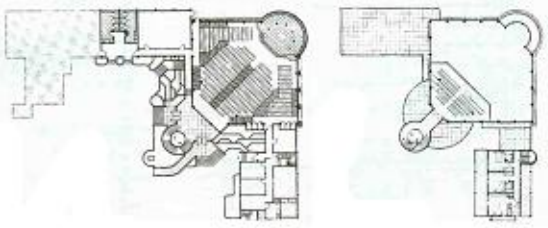
지역성 표현방법							
표현요소	표현방법	결 여 → 충 족					
		1	2	3	4	5	
배치방식	관습에 의한 배치방식	●					
	자연에 대한 순응					●	
개념 해석	자의적 해석을 통해 표현					●	
외벽의 특성	제주의 주변 재료 사용					●	
지붕의 특성	자연환경에 대한 해석				●		
오브제	전통 오브제의 해석			●			
환경표현	바람에 대한 대응					●	
높이	가로에 대한 세로의 높이			●			

내용참고	99건축문화의해조직위원회, 전국건축문화자산-제주, 99건축문화의해조직위원회, 1999	그림출처	

사 진-1



사 진-2



내 용

신제주 삼무공원 언저리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교회는 해안 쪽에서 바라보아 혹독한 만큼 바람의 기세가 더한 곳이다.

그래서 설계자는 바람을 모티브로 하여 "따듯한 남쪽나라"를 의식한 듯 겨울철 매서운 북서풍을 등지는 형태의 건물배치를 하였다.

즉, 본당을 ㄱ자형 평면의 우부를 대각축으로 앉히고 양쪽 날개에 사제관과 수녀원 교리실을 넣어 벌려 놓아서, 마당을 건물이 안은 형상이 되었다.

그리고 대비되는 흑백 색채의 외장재료와 지붕과 서까래 장식이 고풍스러움을 더하고 있고, 사각형과 수직선, 사선의 요소들로 종교건축물의 엄숙함과 온화함을 표현하고 있는 건물이다

SUNG KYUN KWAN UNIVERSITY

■ C10-제주 민속자연사 박물관

건축개요		
대지위치		제주시 일도2동
면적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 면 적	5,299.00㎡
규모	지 상	2층
	지 하	1층
설계자(담당)		김홍식
준공년도		19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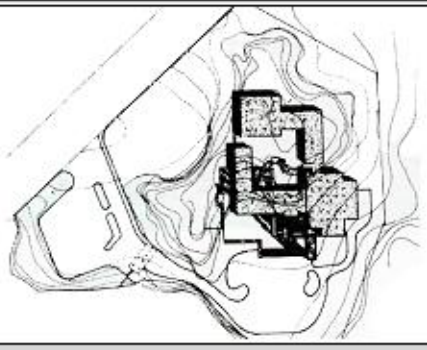
지역성 표현방법							
표현요소	표현방법	결 여 → 충 족					
		1	2	3	4	5	
배치방식	관습에 의한 배치방식					●	
	자연에 대한 순응					●	
개념 해석	자의적 해석을 통해 표현		●				
외벽의 특성	제주의 주변 재료 사용					●	
지붕의 특성	자연환경에 대한 해석					●	
오브제	전통 오브제의 해석					●	
환경표현	바람에 대한 대응			●			
높이	가로에 대한 세로의 높이					●	

내용참고	99건축문화의해조직위원회, 전국건축문화자산-제주, 99건축문화의해조직위원회, 1999	그림 출처	

사 진-1



사 진-2



내 용

부지주변은 가깝게는 삼성혈이 있고, 블록 내에는 제주관광민속관과 제주도 문예회관이 위치한 제주의 중심적인 문화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배치형태는 정문에서 길게 유도되는 우회적인 진입, 그리고 경사지 지형조건에 맞게 몇 단계로 구분된 계단을 통해 주진입구에 접근하는 점승(漸昇)적 수법이 적용되었다.

건축물의 형태는 중정을 둔 a자형을 취하고 있으며, 이 중정은 전통적인 안마당과 같아 주진입구를 통해 들어오는 관람자의 시선을 머물게 하면서도, 관람동선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건축물의 외부에 자연채광과 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게 하는 핵심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중정을 중심으로 한 전시공간은 전시성격에 따라 구획된 개별공간으로 계획되어, 각기 크기와 높이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각 공간의 배치를 태양(太陽), 태음(太陰), 소양(小陽), 소음(小陰)을 의미한 것으로 배치상의 율동감을 갖도록 계획하였다.

SUNG KYUN KWAN UNIVERSITY

■ D03-기당 미술관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귀포시 남성로
면적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 면 적	-
규모	지 상	2층
	지 하	-
설계자(담당)		김홍식
준공년도		1984

지역성 표현방법		결	여	→	총	족
표현요소	표현방법	1	2	3	4	5
배치방식	관습에 의한 배치방식					●
	자연에 대한 순응				●	
개념 해석	자의적 해석을 통해 표현				●	
외벽의 특성	제주의 주변 재료 사용					●
지붕의 특성	자연환경에 대한 해석					●
오브제	전통 오브제의 해석					●
환경표현	바람에 대한 대응			●		
높이	가로에 대한 세로의 높이				●	

내용참고		그림출처	

사 진-1



사 진-2



내 용

기당미술관은 서귀포시 서흥동 삼매봉 위치한다.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구릉지이다. 미술관은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으며 제주적인 건축언어를 보여 주기 위해 「눌」을 계획 모티브로 한다. 눌은 제주에서 추수가 끝난 후 볏짚을 쌓아 놓은 것을 말한다.

미술관의 구축 방식은 야적방식과 스파이럴이다. 원형계단을 올라가듯이 돌아가면서 야적시킨다. 무너지지 않게 좁은 공간에 가장 높이 쌓을 수 있는 선현들의 지혜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한다.

미술관 터는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경사지를 이용해 단층으로 쌓았다. 테라스 하우스 개념과는 다르다. 눌의 스파이럴 개념이다.

원형계단을 돌다 보면 어느덧 상설 전시실이고 어느덧 중정이고 어느덧 일반 전시실이다. 간단히 기승전결의 개념이다. 물이 흐르듯이 동선이 흘러 돌아간다.

외장재는 현무암이다. 너무 어두운 느낌이라 하얀색 띠를 둘렀다. 지붕은 제주도 초가집 느낌을 재현한다. 육지의 초가지붕이 갓모양의 옆으로 돌아간 느낌이라면 제주도 초가지붕은 유선형이다. 거센 비닷바람을 이겨내기 위한 선현의 지혜다. 지붕 재료도 현무암이다.

SUNG KYUN KWAN UNIVERSITY

■ C11-제주 우당도서관

건축개요		
대지위치		제주시 건입동
면적	대지면적	24389.00㎡
	건축면적	-
	연 면 적	6609.18㎡
규모	지 상	3층
	지 하	2층
설계자(담당)		김종성
준공년도		1984

지역성 표현방법							
표현요소	표현방법	결 여 → 충 족				
		1	2	3	4	5
배치방식	관습에 의한 배치방식	●				
	자연에 대한 순응					●
개념 해석	자의적 해석을 통해 표현	●				
외벽의 특성	제주의 주변 재료 사용		●			
지붕의 특성	자연환경에 대한 해석					●
오브제	전통 오브제의 해석					
환경표현	바람에 대한 대응					●
높이	가로에 대한 세로의 높이	●				

내용참고	99건축문화의해조직위원회, 전국건축문화자산-제주, 99건축문화의해조직위원회, 1999	그림 출처	

사 진-1



사 진-2



내 용

대우그룹이 기증한 공공도서관으로 서울건축이 설계하였다. 배치형태는 도서관과 다목적 홀의 사이에 담으로 둘러싸인 정원이 삽입된 약간의 곡선 형태를 가진 배치형태를 하고 있다.

평면구성의 가장 큰 특징은 중앙 홀과 양측에 설치된 정원을 들 수 있다. 주출입구를 들어서면 전개되는 중앙 홀은 목록 서지공간으로서 그리고 전시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갖도록 계획되었다. 또한 중앙 홀의 2~3층 상부공간이 오픈되어 있어서 개방감과 볼륨감이 있고 천창에 의해 중앙 홀과 각 층에 균등하게 채광되어 밝고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또 다른 건축적 특징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양측으로 배치되어 있는 정원이다. 이들 정원은 중앙 홀 양측에 있는 출입구를 통하여 직접 출입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특히 왼쪽의 정원에는 어린이 독서실이 가로지른 형태로 배치되어 있어 조용하면서도 아늑한 공간속에서 독서 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SUNG KYUN KWAN UNIVERSITY

■ C12-제주시 공무원교육원

건축개요		
대지위치		제주시 아라동
면적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 면 적	6,909.65㎡
규모	지 상	3층
	지 하	-
설계자(담당)		김석윤
준공년도		1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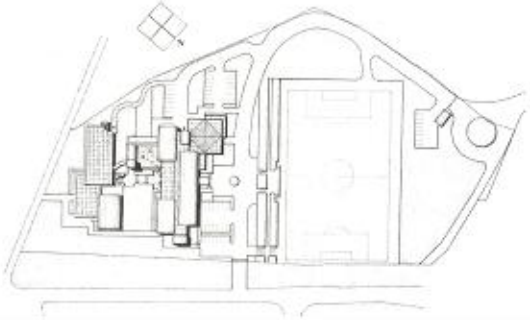
지역성 표현방법							
표현요소	표현방법	결 여 → 충 족				
		1	2	3	4	5
배치방식	관습에 의한 배치방식				●	
	자연에 대한 순응				●	
개념 해석	자의적 해석을 통해 표현			●		
외벽의 특성	제주의 주변 재료 사용					●
지붕의 특성	자연환경에 대한 해석			●		
오브제	전통 오브제의 해석					
환경표현	바람에 대한 대응	●				
높이	가로에 대한 세로의 높이		●			

내용참고	99건축문화의해조직위원회, 전국건축문화자산-제주, 99건축문화의해조직위원회, 1999	그림출처	

사 진-1



사 진-2



내 용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516도로변에 위치한다. 주진입부인 북측으로 경사진 대지의 조건은 건물 배치기법으로 해결하고 있다. 중중을 사이에 두고 전후면의 2개의 건물군으로 형성하며 연결통로가 종선을 해결한다. 전면부가 강의실, 강당 등의 강의동이고 후면부가 침실, 식당 등의 생활관이다. 정문에서 본관으로 향하는 우회적인 접근방법은 제주도 전통건축의 배치방식에서 올래와 유사하다. 공간의 특징으로 주출입구에서 중정과 후면부 진입에 따른 공간변화가 매우 다양하데 나타난다. 외벽은 이 지역의 자연재료인 송이벽돌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벽체와 지붕 부분의 만남을 분절시켜 산뜻한 형상을 취하고 있다.

SUNG KYUN KWAN UNIVERSITY

■ B08-만장굴 휴게소

건축개요		
대지위치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면적	대지면적	2,527.00㎡
	건축면적	665.90㎡
	연 면 적	899.55㎡
규모	지 상	2층
	지 하	-
설계자(담당)		김창우
준공년도		1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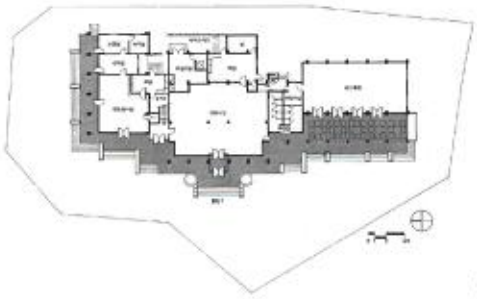
지역성 표현방법							
표현요소	표현방법	결 여 → 충 족				
		1	2	3	4	5
배치방식	관습에 의한 배치방식	●				
	자연에 대한 순응	●				
개념 해석	자의적 해석을 통해 표현	●				
외벽의 특성	제주의 주변 재료 사용					●
지붕의 특성	자연환경에 대한 해석					●
오브제	전통 오브제의 해석					
환경표현	바람에 대한 대응	●				
높이	가로에 대한 세로의 높이				●	

내용참조		그림출처	

사 진-1



사 진-2



내 용

본 건물에서 가장 특이한 건물의 지붕은 제주도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현무암 잡석을 사용하였다. 원래 제주도 민속가옥들이 다 그러하듯이 한라산과도 같은 15도 경사의 완만한 지붕처리가 특징인 점에 유의하여 이를 수용한 것이다. 현대건축물이 이러한 제주 민속주택과 같은 지붕처리를 일률적으로 해야 할 정도의 성질은 아니지만 관광지의 휴게소로서 제주관광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바람과 돌로 일컬어지는 제주의 환경에 순응한다고 할지_ 생활환경과 풍토에 어울리는 모습으로써 건물의 성격을 대변해 주고 있다. 이 건물의 재료는 전체적으로 현무암이다. 현무암의 어두운 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만, 콘크리트 몰탈 위에 잡석(현무암)을 입혀 제주건축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다.

SUNG KYUN KWAN UNIVERSITY

■ B06-한림공원 휴게소 및 안내소

건축개요		
대지위치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면적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 면 적	-
규모	지 상	1층
	지 하	-
설계자(담당)		김창우
준공년도		1986

지역성 표현방법		결	여	→	충	족
표현요소	표현방법	1	2	3	4	5
배치방식	관습에 의한 배치방식	●				
	자연에 대한 순응	●				
개념 해석	자의적 해석을 통해 표현			●		
외벽의 특성	제주의 주변 재료 사용					●
지붕의 특성	자연환경에 대한 해석					●
오브제	전통 오브제의 해석					●
환경표현	바람에 대한 대응			●		
높이	가로에 대한 세로의 높이		●			

내용참고		그림출처	

사 진-1



사 진-2



내 용

한림공원 내에 위치한 본 건물은 둥근 매스를 갖는 건물이다. 전체적으로 낮은 높이를 띄고 있어 바람에 대응이 용이 하다. 외벽은 현무암잡석을 붙였다. 지붕은 완만한 기울기를 가지는 돔형 지붕이고 송이를 마감 재료로 쓰고 있다.

SUNG KYUN KWAN UNIVERSITY

■ C13-문예회관

건축개요		
대지위치		제주시 일도2동
면적	대지면적	16,685.72㎡
	건축면적	4,271.54㎡
	연 면 적	5,811.56㎡
규모	지 상	3층
	지 하	1층
설계자(담당)		김홍식, 김상식
준공년도		1988

지역성 표현방법							
표현요소	표현방법	결 여 → 충 족				
		1	2	3	4	5
배치방식	관습에 의한 배치방식			●		
	자연에 대한 순응		●			
개념 해석	자의적 해석을 통해 표현				●	
외벽의 특성	제주의 주변 재료 사용					●
지붕의 특성	자연환경에 대한 해석					●
오브제	전통 오브제의 해석					
환경표현	바람에 대한 대응	●				
높이	가로에 대한 세로의 높이			●		

내용참고	99건축문화의해조직위원회, 전국건축문화자산-제주, 99건축문화의해조직위원회, 1999	그림 출처	

사 진-1



사 진-2



내 용

문예회관은 제주 민속자연사박물관, 삼성혈, 신산공원 등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문예 지역을 형성한 곳에 위치하였는데, 진입공간을 전정(前庭)과 광장을 거쳐 입구에 도달하도록 구분하여 진입 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기법을 사용하였다.

기본 모듈은 6×7m로 하여 철근콘크리트 구조체의 경제성과 평면의 기능에 대응하였고 각 기능을 블록 단위로 배치하여 이용의 합리성을 부여하였다.

배치에 있어서는 안거리와 밖거리의 대립적 배치에 의한 명쾌한 공간구성과 완만한 지붕 그리고 깊은 처마선과 초가지붕 곡선을 단순화한 형태미로 도입하였고, 현무암에 의한 외부벽체마감으로 향토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무대 바닥은 대도구의 반입과 공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지면과 분장실 바닥과 동일하게 하였으며 객석의 충분한 용적으로 설비에 쾌적성을 두고, 신체장애자의 관람이 가능토록 단면을 조성한 점과 소음과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한 점이 건물의 특징이다.

SUNG KYUN KWAN UNIVERSITY

■ C14-제주도 의회의사당

건축개요		
대지위치		제주시 연동
면적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 면 적	5,909.64㎡
규모	지 상	4층
	지 하	1층
설계자(담당)		강요준
준공년도		1989

지역성 표현방법							
표현요소	표현방법	결 여 → 충 족				
		1	2	3	4	5
배치방식	관습에 의한 배치방식	●				
	자연에 대한 순응	●				
개념 해석	자의적 해석을 통해 표현	●				
외벽의 특성	제주의 주변 재료 사용				●	
지붕의 특성	자연환경에 대한 해석	●				
오브제	전통 오브제의 해석					
환경표현	바람에 대한 대응	●				
높이	가로에 대한 세로의 높이	●				

내용참고	99건축문화의해조직위원회, 전국건축문화자산-제주, 99건축문화의해조직위원회, 1999	그림 출처	

사 진-1



사 진-2



내 용

의회기능은 행정기관의 기능과 달라 의회는 민의(民意)의 대변기관으로서 도민들이 쉽게 접근하여야 한다는 것이 기본개념이었다.

외관 전체적으로는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초가집을 연상할 수 있도록 구상한다는 개념의 바탕위에 의회 청사 네 모서리의 벽체와 중간 벽체는 초가의 흙돌담으로 둘려있는 것과 같은 연상을 갖게 하였고 전면의 기둥 등은 풍채가 가지는 형태적 공간적 언어성을 가지도록 표현하였다.

1층은 의회사무를 위한 공간으로 하였고, 2,3,4층은 의원을 위한 공간으로 하였다. 3,4층 일부에는 대회의실과 방청석으로 하였는데 의원출입과 방청인 출입을 분리하였다. 그리고 설계 당시에는 지체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적었던 시기였지만, 지체 장애인을 위해 건물 전면부분에 램프를 설치하였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였다.

SUNG KYUN KWAN UNIVERSITY

■ C15-탐라도서관

건축개요		
대지위치		제주시 노형동
면적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 면 적	4,220.70㎡
규모	지 상	3층
	지 하	1층
설계자(담당)		김석윤
준공년도		1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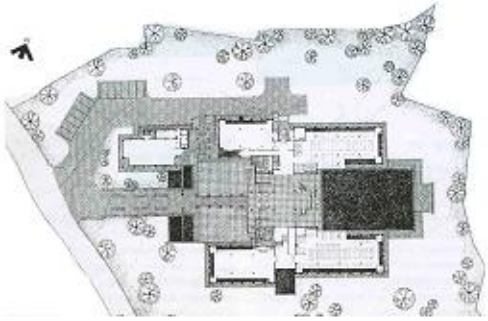
지역성 표현방법		결여→충족				
표현요소	표현방법	1	2	3	4	5
배치방식	관습에 의한 배치방식				●	
	자연에 대한 순응				●	
개념 해석	자의적 해석을 통해 표현					●
외벽의 특성	제주의 주변 재료 사용					●
지붕의 특성	자연환경에 대한			●		
오브제	전통 오브제의 해석					
환경표현	바람에 대한 대응			●		
높이	가로에 대한 세로의 높이					●

내용참고	99건축문화의해조직위원회, 전국건축문화자산-제주, 99건축문화의해조직위원회, 1999	그림 출처	

사 진-1



사 진-2



내 용

방일이 공원 내에 자리 잡은 제주 탐라도서관은 들고(入),머물며(留),나는(出) 동안에 시선이 머물 자리와 공간의 리듬 그리고 빛의 느낌과 만남을 모티브로 하여 설계되었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내부공간은 넓게 트인 마당만큼이나 방도 크고 높으며 돌아(廻)간 모퉁이에는 천장이 나즈막해서 앉을 자리를 두어 여유로운 공간이 조성되고, 추녀 밑과 퇴간에서 걸러진 빛과 마당에 내린 빛도 되돌아 들어와 은은히 밝은 공간을 만들어 자연스러운 자연의 빛을 이용하여 책을 읽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되었다.

외벽 마감 재료로 송이벽돌을 사용하였고, 중앙에 위치한 서고의 외벽은 벽돌 문양쌓기로 표현되어 제주다움과 전통적 이미지가 어우러진다.

SUNG KYUN KWAN UNIVERSITY

■ C16-대한항공 제주지점 사옥

건축개요		
대지위치		제주시 이도1동
면적	대지면적	3,543.70㎡
	건축면적	2,402.29㎡
	연 면 적	16,685.30㎡
규모	지 상	6층
	지 하	2층
설계자(담당)		김성래
준공년도		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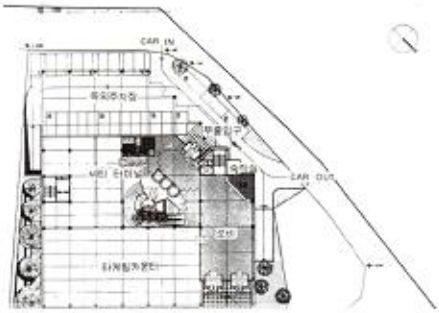
지역성 표현방법							
표현요소	표현방법	결 여 → 충 족				
		1	2	3	4	5
배치방식	관습에 의한 배치방식	●				
	자연에 대한 순응	●				
개념 해석	자의적 해석을 통해 표현			●		
외벽의 특성	제주의 주변 재료 사용			●		
지붕의 특성	자연환경에 대한 해석	●				
오브제	전통 오브제의 해석					
환경표현	바람에 대한 대응	●				
높이	가로에 대한 세로의 높이	●				

내용참고	건축문화, 대한항공, 건축문화, 9102	사진출처	

사 진-1



사 진-2



내 용

대한항공 제주지점사옥은 오피스의 사무기능이 제주지역 풍토에 자연스럽게 조화될 수 있는 공간으로 창출하도록 하였다. 직삼각형 대지조건에 부합되도록 평면 배치를 하면서 입면의 모서리는 둥글게 처리하여 바람에 관한 대응하였다. 옥외공간에는 제주석 깔기, 돌하르방을 조형요소로 이용 또는 제주수목 심기를 통해 지역적 이미지를 살이도록 하였다.

외관에 있어서는 유리 커튼월로 하여 대한항공과 바다의 이미지를 부여했으며, 부분적 변화보다는 통일된 모듈을 채택하였다.

SUNG KYUN KWAN UNIVERSITY

■ C17-제주도 노인복지회관

건축개요		
대지위치		제주시 삼도2동
면적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 면 적	1,216.00㎡
규모	지 상	2층
	지 하	1층
설계자(담당)		김석윤
준공년도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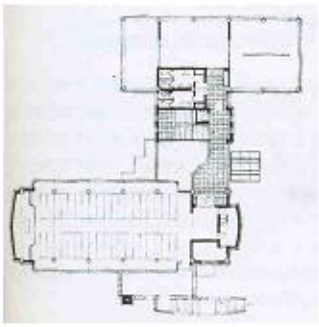
지역성 표현방법		결	여	→	충	족
표현요소	표현방법	1	2	3	4	5
배치방식	관습에 의한 배치방식		●			
	자연에 대한 순응				●	
개념 해석	자의적 해석을 통해 표현				●	
외벽의 특성	제주의 주변 재료 사용					●
지붕의 특성	자연환경에 대한 해석				●	
오브제	전통 오브제의 해석					
환경표현	바람에 대한 대응	●				
높이	가로에 대한 세로의 높이		●			

내용참고	99건축문화의해조직위원회, 전국건축문화자산-제주, 99건축문화의해조직위원회, 1999	그림 출처	

사 진-1



사 진-2



내 용

부지는 제주도가 탐라시절부터 이용해온 관아 터의 일부에 자리하고 있다. 주변의 거목과 제주목관아지의 발굴 복원사업이 이루어진 현상으로 말미암아 이곳이 역사적인 곳임을 알 수 있다. 대체로 역사적 장소가 갖는 의미를 건축적으로 해석할 때 세 가지로 나타난다. 역사를 무시하고 자본주의의 원리를 따르거나 역사의 텍스트를 차용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장소의 본질적 탐구를 통한 접근이 있다. 이 건물은 이중 세 번째를 택하고 있다. 폐허가 된 관아 터가 침묵으로 말하고 있는 역사를 기하학적 기본 형태를 담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두 개의 직사각형 덩어리와 1/8원이 갖는 지붕선은 대체로 작가가 타 작품에서도 유지해 오고 있는 기본 어휘이다. 중정을 사이에 두고 겹쳐지는 사각형의 공간은 내외부 공간의 자연스런 분할과 혼합을 가능케 한다. 제주화산석이 주원료인 송이벽돌은 이 시절 작가가 즐겨 사용하던 재료로 제주의 분위기를 한껏 돋우고 있다.

SUNG KYUN KWAN UNIVERSITY

■ C18-탑동 해변공연장

건축개요		
대지위치		제주시 삼도2동
면적	대지면적	9,917.25㎡
	건축면적	1,970.36㎡
	연 면 적	5,071.49㎡
규모	지 상	3층
	지 하	1층
설계자(담당)		김용철
준공년도		1995

지역성 표현방법		결	여	→	충	족
표현요소	표현방법	1	2	3	4	5
배치방식	관습에 의한 배치방식	●				
	자연에 대한 순응		●			
개념 해석	자의적 해석을 통해 표현	●				
외벽의 특성	제주의 주변 재료 사용	●				
지붕의 특성	자연환경에 대한 해석	●				
오브제	전통 오브제의 해석	●				
환경표현	바람에 대한 대응			●		
높이	가로에 대한 세로의 높이	●				

내용참고		그림출처	

사 진-1



사 진-2



내 용

탑동은 해안을 매립한 곳이다. 탑동(塔洞)이라는 말은 탑을 세웠던 동네에서 비롯된 한자어이며, 원래는 탑알 혹은 탑발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탑동에는 동쪽과 서쪽에 두 개의 탑이 있었다. 제주시 삼도2동 무근성 서북쪽에 있었던 탑들은 지금은 없어졌다. 해안을 매립하면서 없애버린 듯하다. 탑은 이 곳 무근성에서 나이 젊은 과부가 많이 나기 때문에 세워진 것이라고 한다. 즉, 과부가 많이 나는 것은 살기(殺氣)가 비친 까닭이라 하여, 이 마을 북쪽 바깥에 좌우로 돌탑(방사탑)을 쌓고 해마다 제사를 지내었다고 한다.

해안을 매립지로 만들면서 광장이 생겼고 놀이기구를 비롯한 스포츠 시설 및 낚시터, 음식점으로 유명해졌다. 그래서 남녀노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장소가 되었다.

탑동해변공연장은 시 당국에서 탑동을 찾는 사람들에게 문화의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세워진 건물이다. 이곳 해안가는 터가 허하고 그런 이유로 과거에 방사탑이 존재했었음을 감안하여 방사탑을 건축의 모티브로 삼는다. 그래서 방사탑이라는 직설적인 건축언어를 차용하였다.

SUNG KYUN KWAN UNIVERSITY

■ C19-세기 건설사옥

건축개요		
대지위치		제주시 노형동
면적	대지면적	838.95㎡
	건축면적	526.64㎡
	연 면 적	6,149.47㎡
규모	지 상	9층
	지 하	1층
설계자(담당)		김용철
준공년도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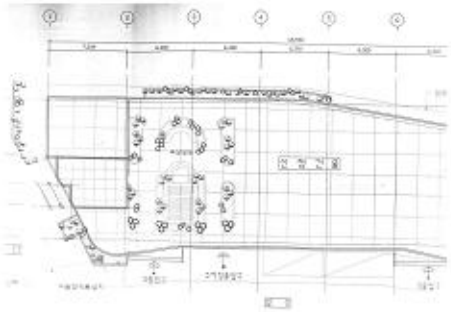
지역성 표현방법							
표현요소	표현방법	결 여 → 충 족					
		1	2	3	4	5
배치방식	관습에 의한 배치방식	●				
	자연에 대한 순응	●				
개념 해석	자의적 해석을 통해 표현	●				
외벽의 특성	제주의 주변 재료 사용	●				
지붕의 특성	자연환경에 대한 해석	●				
오브제	전통 오브제의 해석					
환경표현	바람에 대한 대응	●				
높이	가로에 대한 세로의 높이	●				

내용참고	99건축문화의해조직위원회, 전국건축문화자산-제주, 99건축문화의해조직위원회, 1999	그림 출처	

사 진-1



사 진-2



내 용

사세의 확장에 따라 협소한 구본사의 건물을 대신하는 새 건물의 필요성에 따라 신제주 노형지역에 건립된 건축물이다.

배치형태에 있어서는 부지에서 약간 뒤로 후퇴하여 도로의 축과는 약간 어긋난 형태로 배치되어 건축물의 정면성을 강조하고 있다.

입면형태에 있어서는 전면부분을 유리로 처리하여 사무소건축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고, 정면 양측의 모서리 부분을 곡면으로 처리하여 입면의 단조로움을 없애려 하였다.

평면 형태는 코어를 양측으로 배치한 더블 편심 코어형으로 사무공간을 넓게 하고 임대 시에 공간분할이 용이하도록 계획되었다.

SUNG KYUN KWAN UNIVERSITY

■ C20-제주영상미디어 센터(구 제주 관광민속타운)

건축개요		
대지위치		제주시 일도 2동
면적	대지면적	24,455.00㎡
	건축면적	3,463.45㎡
	연 면 적	5,599.27㎡
규모	지 상	2층
	지 하	1층
설계자(담당)		김희수
준공년도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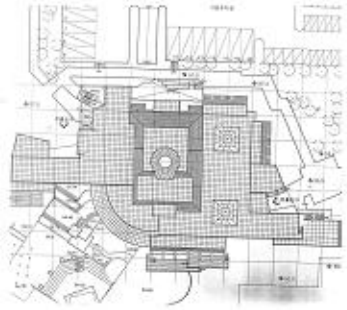
지역성 표현방법							
표현요소	표현방법	결 여 → 충 족					
		1	2	3	4	5	
배치방식	관습에 의한 배치방식			●			
	자연에 대한 순응		●				
개념 해석	자의적 해석을 통해 표현	●					
외벽의 특성	제주의 주변 재료 사용					●	
지붕의 특성	자연환경에 대한 해석	●					
오브제	전통 오브제의 해석	●					
환경표현	바람에 대한 대응	●					
높이	가로에 대한 세로의 높이	●					

내용참고	99건축문화의해조직위원회, 전국건축문화자산-제주, 99건축문화의해조직위원회, 1999	그림 출처	

사 진-1



사 진-2



내 용

도내 기존 민속관련 요소들을 통합하여 제주의 정통성을 강하게 부각시켜 원형적 모습을 보존, 확대, 전파하는 시설로서 관광객뿐만 아니라 제주도민에게도 제주 전통 민속문화에 대한 관광 및 체험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취지로서 건립 되었다.

부지는 자연사 박물관과 문예회관 등이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과거의 무형 문화유산이 현재로 이어지고 앞으로 보급, 확산되어 미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커다란 주제를 가지고 아직은 개발이 미흡한 야간 관광시설로의 기능에 중점을 두어 계획되었다.

따라서 전시나 공연 프로그램 또한 관광객이나, 현지인의 참여를 유도하여 단순한 관람에만 그치지 않고, 그 과정들을 직접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익성 확보를 위해서 교육기능까지 첨가하였다. 건축물의 형태는 한라산과 기생화산들이 어우러진 모습을 형상화하여 이들이 하나로 화합승화되는 제주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SUNG KYUN KWAN UNIVERSITY

■ C21-제주 중소기업 종합지원 센터

건축개요		
대지위치		제주시 이도2동
면적	대지면적	4,583.60㎡
	건축면적	2,142.09㎡
	연 면 적	13,304.58㎡
규모	지 상	5층
	지 하	2층
설계자(담당)		허영주
준공년도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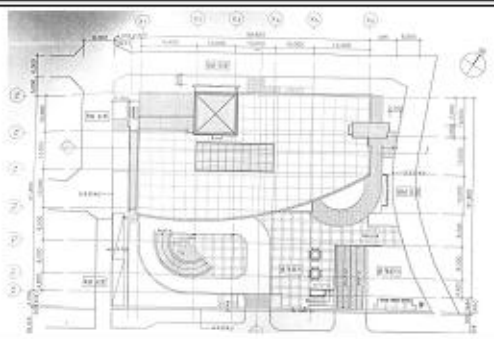
지역성 표현방법							
표현요소	표현방법	결 여 → 충 족				
		1	2	3	4	5
배치방식	관습에 의한 배치방식					●
	자연에 대한 순응				●	
개념 해석	자의적 해석을 통해 표현				●	
외벽의 특성	제주의 주변 재료 사용	●				
지붕의 특성	자연환경에 대한 해석	●				
오브제	전통 오브제의 해석					
환경표현	바람에 대한 대응	●				
높이	가로에 대한 세로의 높이	●				

내용참고	99건축문화의해조직위원회, 전국건축문화자산-제주, 99건축문화의해조직위원회, 1999	그림 출처	

사 진-1



사 진-2



내 용

제주 건축의 전통적인 접근방법인 「올래」의 개념을 1층 옥외광장에서 2층 데크(sky plaza)로 진입시키는 과정에 접목시킴으로서 전통에 대한 형태론적 해석이 아닌 공간적 개념접근을 실현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단순하면서 안정된 스케일로 설계되어졌다.

1층에 대규모 옥외광장을 설치하여 다양한 층의 자연스런 접근을 유도하고, 지하층의 오픈 스페이스와 2층 데크를 연결한 공간 연출로 자연스럽게 여러 이벤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전면도로에서의 시각적 개방감을 유지하고자 후퇴된 형식을 취했으며, 대지를 가로지르는 사선방향의 완만한 곡선은 강력한 이미지를 부여한다.

주거지역내의 완만하고 낮은 지형과 주변 건물군과 조화를 모색하고 건물을 관통하여 후면 근린공원으로의 개방된 동선처리로 쾌적하고 안정된 주변 환경과의 연계성을 이루어내고 있다.

SUNG KYUN KWAN UNIVERSITY

■ C22-제주 교육박물관

건축개요		
대지위치		제주시 이도2동
면적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 면 적	2,854.89㎡
규모	지 상	2층
	지 하	1층
설계자(담당)		강행생
준공년도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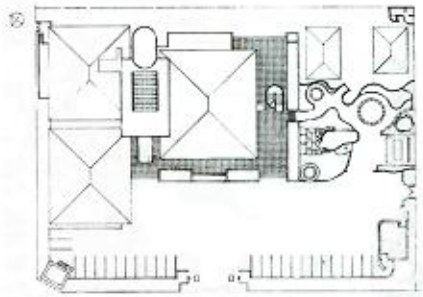
지역성 표현방법							
표현요소	표현방법	결 여 → 충 족					
		1	2	3	4	5	
배치방식	관습에 의한 배치방식			●			
	자연에 대한 순응	●					
개념 해석	자의적 해석을 통해 표현	●					
외벽의 특성	제주의 주변 재료 사용					●	
지붕의 특성	자연환경에 대한 해석					●	
오브제	전통 오브제의 해석						
환경표현	바람에 대한 대응			●			
높이	가로에 대한 세로의 높이		●				

내용참고	99건축문화의해조직위원회, 전국건축문화자산-제주, 99건축문화의해조직위원회, 1999	그림 출처	

사 진-1



사 진-2



내 용

「교육에 관한 자료를 수집, 보존,전시하고 이를 조사, 연구하여 교육의 이념, 목적, 방법 및 교육 여건 등에 관한 제주 교육의 변천 과정을 이해하고, 발전하는 제주 교육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기여한다」 는 설립 목적을 갖고 제주 교육박물관은 계획되었다.

주변 환경에 순응(順應)과 합일(合一)의 조형의식을 바탕으로, 조화를 으뜸으로 하는 제주 건축의 원리에 맞게 배치형식도 전통건축의 평면구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중앙 홀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내부공간계획에 있어서도 전통성과 현대성의 조화되게 하여 제주 지역 교육의 역사적 사료관(史料館)으로서의 기능을 갖도록 배려되었다.

그리고 지붕의 형태에 있어서는 제주의 지세가 한라산을 중심으로 사면이 완만한 경사로 내려와 해안에 이르듯이, 박물관 지붕 역시 완만한 경사를 이루어 비바람에 적응토록 모임지붕으로 하여 처마를 내어 포근히 감싸도록 계획하였다.

SUNG KYUN KWAN UNIVERSITY

■ C23-제주 학생회관 · 제주 도립도서관

건축개요		
대지위치		제주시 이도2동
면적	대지면적	24,730.00㎡
	건축면적	4,167.00㎡
	연 면 적	7,644.00㎡
규모	지 상	3층
	지 하	1층
설계자(담당)		강행생
준공년도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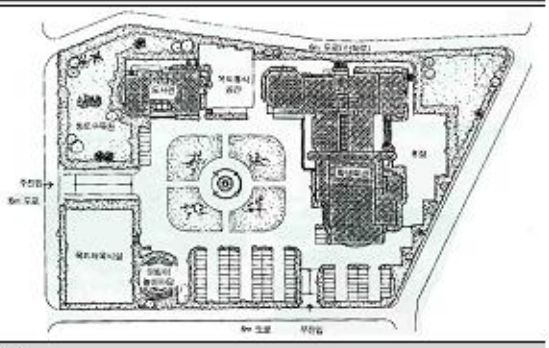
지역성 표현방법							
표현요소	표현방법	결 여 → 충 족					
		1	2	3	4	5	
배치방식	관습에 의한 배치방식					●	
	자연에 대한 순응	●					
개념 해석	자의적 해석을 통해 표현	●					
외벽의 특성	제주의 주변 재료 사용	●					
지붕의 특성	자연환경에 대한 해석	●					
오브제	전통 오브제의 해석						
환경표현	바람에 대한 대응	●					
높이	가로에 대한 세로의 높이	●					

내용참고	99건축문화의해조직위원회, 전국건축문화자산-제주, 99건축문화의해조직위원회, 1999	그림 출처	

사 진-1



사 진-2



내 용

「사회 환경과 교육여건의 시대적 변화」 에 따른 문화 활동을 보다 알차고 차원 높게 수용 지원하기 위해 계획된 이 프로젝트는 제주의 전통적인 건축문화와 현대적 건축형태를 적용시켜 제주의 건축미를 창출, 새로운 지역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한 대지 내에 활동적인 성격의 학생회관과 수동적인 성격의 도서관이 인접 배치됨에 따라 영역의 분할과 연계에 중점을 두었는데, 제주 전통건축의 마당을 중심으로 구심적 배치와 별동 배치형식에 기본을 두고 안거리에 해당되는 곳에 학생회관을 배치하고 목거리에 해당되는 곳에 도서관을 위치 시켰다. 각 건물의 진입은 조형물 광장을 돌아서 접근하는 루프(loop)방식을 도입하였다.

SUNG KYUN KWAN UNIVERSITY

■ C24-제주 삼성 어린이집

건축개요		
대지위치		제주시 이도1동
면적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 면 적	982.10㎡
규모	지 상	3층
	지 하	1층
설계자(담당)		삼우
준공년도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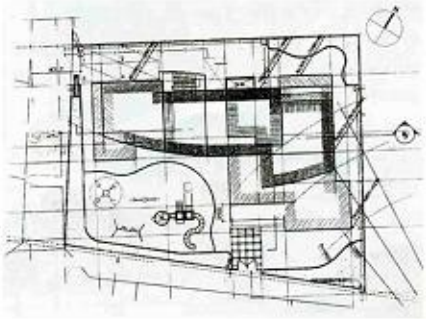
지역성 표현방법							
표현요소	표현방법	결 여 → 충 족				
		1	2	3	4	5
배치방식	관습에 의한 배치방식	●				
	자연에 대한 순응			●		
개념 해석	자의적 해석을 통해 표현	●				
외벽의 특성	제주의 주변 재료 사용			●		
지붕의 특성	자연환경에 대한 해석		●			
오브제	전통 오브제의 해석					
환경표현	바람에 대한 대응	●				
높이	가로에 대한 세로의 높이	●				

내용참고	99건축문화의해조직위원회, 전국건축문화자산-제주, 99건축문화의해조직위원회, 1999	그림 출처	

사 진-1



사 진-2



내 용

원래 이 부지에 고층 아파트가 건립될 예정이었으나 삼성혈이 인접해 있고, 교통량도 많은 지역이어서 경관훼손이라는 건축분쟁이 발생하여, 삼성재단에서 부지를 구입, 어린이집이 건립된 사회적 배경이 있다. 건축물의 배치에 있어서 현관과 계단실을 축(軸)으로 삼고, 사이의 홀을 통하여 좌우 보육실을 이용하며,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입면에는 원과 기울어진 사각형, 물결 모양이 부분적으로 도입되었다. mass의 점진적인 삭제는 안정감과 변화감을 주고 있다. 본 건물은 지역성을 감안하여 외벽을 송이타일로 마감하여 아이들에게 친근한 느낌을 들게 한다.

SUNG KYUN KWAN UNIVERSITY

■ A06-제주 신영 영화박물관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면적	대지면적	82,592.00㎡
	건축면적	1,435.02㎡
	연 면 적	2,106.00㎡
규모	지 상	2층
	지 하	1층
설계자(담당)		김석철
준공년도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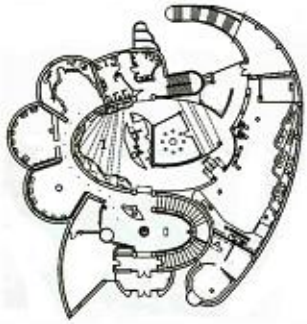
지역성 표현방법		결 여 → 충 족				
표현요소	표현방법	1	2	3	4	5
배치방식	관습에 의한 배치방식	●				
	자연에 대한 순응					●
개념 해석	자의적 해석을 통해 표현					●
외벽의 특성	제주의 주변 재료 사용					●
지붕의 특성	자연환경에 대한 해석					●
오브제	전통 오브제의 해석					●
환경표현	바람에 대한 대응				●	
높이	가로에 대한 세로의 높이		●			

내용참고	오양원, 제주 신영 영화박물관, 한국박물관 건축학회 통권 제 1호, 1998	사진출처	

사 진-1



사 진-2



내 용

본 건물의 건축설계 의도는 「태극의 도형이 사방으로 뻗어나가 바다와 들판을 포용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건축평면은 철저한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통해 입체화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건축은 외형과 내부공간이 기하학적 곡선의 연속을 이루는 공간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리고 형태적으로 자연스럽게 바람에 대응함을 자의적 해석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외부에서 건물을 바라보았을 때 어떤 시점에서도 건물의 모습이 중복됨 없이 주변의 환경과 어우러지는 다양한 모습을 만들어 내고 있다. 또한 외부뿐 아니라 내부공간에서도 같은 양상으로 나타난다. 대부분의 타 건물들이 모듈화 된 개실 공간을 효과적 유기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건축의 주목적인 반면에 현 건물의 벽면은 원과 다이나믹한 곡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반복이 없이 독립된 공간을 만들어 내고 있다. 외장재로는 현무암 뿜칠을 사용했다.

SUNG KYUN KWAN UNIVERSITY

■ D05-제주 컨벤션센터(CICC)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귀포시 중문동
면적	대지면적	54,876.00㎡
	건축면적	15,366.00㎡
	연 면 적	62,013.22㎡
규모	지 상	5층
	지 하	2층
설계자(담당)		주) 공간
준공년도		2002

지역성 표현방법							
표현요소	표현방법	결 여 → 충 족				
		1	2	3	4	5
배치방식	관습에 의한 배치방식	●				
	자연에 대한 순응			●		
개념 해석	자의적 해석을 통해 표현					●
외벽의 특성	제주의 주변 재료 사용	●				
지붕의 특성	자연환경에 대한 해석				●	
오브제	전통 오브제의 해석		●			
환경표현	바람에 대한 대응			●		
높이	가로에 대한 세로의 높이	●				

내용참고	허숙현,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공간, 2002	사진출처	

사 진-1



사 진-2



내 용

컨벤션센터(CICC)는 상업회의와 학술회의, 여러 이벤트와 집회를 위한 하나의 건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국제컨벤션가 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커서 그 지역 산업 활동의 중심이 되고, 교통, 서비스, 관광산업 등과 연계됨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구심점 역할을 한다. CICC는 중문관광단지 인근의 중문 2단계 동부지구에 속해 있고, 여미지식물원, 주상절리, 천지연폭포 등의 관광 명소들을 잇는 선상에 위치하여 중문 2단계 관광잔지의 첫 사업이다. CICC로의 진입동선은 나선에서 따온 곡선으로 관광객을 자연스럽게 지하 2층 선큰광장으로 유도함, VIP동선, 직원 동선 및 서비스 동선은 별도로 마련하였다.

CICC의 가장 큰 특징적 이미지는 타원형의 매스에서 나온다. 제주도의 타원 형태는 CICC의 디자인 모티브이다. 타원은 제주도민의 집단적 사고, 즉 육지와 섬과의 연결을 갈망했던 과거 제주도민의 애환이 담겨있다. 또한 타원의 장축은 한라산의 정상을 향하며 동시에 태평양을 지향한다. 또 커튼월의 투명 유리는 바다에서 인용하여 외부 자연이 관입, 관류되도록 하였다. 타원형매스에는 작은 원형의 매스가 이어져 전체 건물에 리듬감을 부여하고, 동측면의 사각 불투명 매스는 사무실, 소회의실 등의 기능을 담당하며 균형감을 준다. 그리고 이는 육지와의 관계 유지를 위한 심리적 텍스트를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SUNG KYUN KWAN UNIVERSITY

■ D06-강정교회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귀포시 강정동
면적	대지면적	1,078.00㎡
	건축면적	-
	연 면 적	820.90㎡
규모	지 상	3층
	지 하	-
설계자(담당)		김재관
준공년도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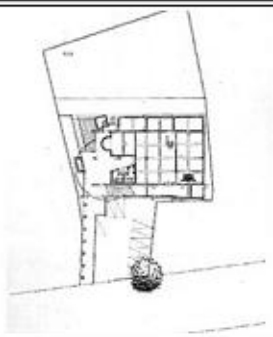
지역성 표현방법							
표현요소	표현방법	결 여 → 충 족					
		1	2	3	4	5	
배치방식	관습에 의한 배치방식					●	
	자연에 대한 순응	●					
개념 해석	자의적 해석을 통해 표현					●	
외벽의 특성	제주의 주변 재료 사용	●					
지붕의 특성	자연환경에 대한 해석			●			
오브제	전통 오브제의 해석						
환경표현	바람에 대한 대응	●					
높이	가로에 대한 세로의 높이	●					

참고내용	김재관, 김재관의 설계소묘, 건축과 환경, 1998	사진 출처	

사 진-1



사 진-2



내 용

이 교회는 제주도 서귀포시 부근의 강정마을에 위치한다. 마을은 북쪽의 한라산을 배경으로 중산간 도로의 바다와 만나는 곳에 위치하며, 동네의 중심부가 교회의 장소이다. 이 고장의 1,000여 가호의 집들은 올래를 통해 서로 연결, 소통되고 있는데, 교회가 1,001번째쯤으로 편입되면서 올래의 범위는 다시 확장되게 된다. 이곳의 올래가 기존의 그것과 차별되는 것이 있다면 외부로부터 시작되어 건물을 통과하기도 하고 2,3층과 지붕으로 연결되며 높낮이를 달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도 형식과 기능을 상실하지는 않는다. 건축적인 올래의 시작은 콘크리트 장벽에 있는 제한된 개구부를 통과하면서 속성은 변화하게 된다. 분기점은 필로티 형식의 데크와 외부공간을 둠으로써 커뮤니티의 장소로 이용되며 각각의 열주, 십자가 종탑에 의해 예배공간으로 유도된다.

SUNG KYUN KWAN UNIVERSITY

■ C26-신광빌딩

건축개요		
대지위치		제주시 도남동
면적	대지면적	223.40㎡
	건축면적	133.96㎡
	연 면 적	800.56㎡
규모	지 상	6층
	지 하	1층
설계자(담당)		오용화
준공년도		1998

지역성 표현방법							
표현요소	표현방법	결여→충족					
		1	2	3	4	5
배치방식	관습에 의한 배치방식	●				
	자연에 대한 순응	●				
개념 해석	자의적 해석을 통해 표현	●				
외벽의 특성	제주의 주변 재료 사용	●				
지붕의 특성	자연환경에 대한 해석	●				
오브제	전통 오브제의 해석					
환경표현	바람에 대한 대응	●				
높이	가로에 대한 세로의 높이	●				

내용참고	99건축문화의해조직위원회, 전국건축문화자산-제주, 99건축문화의해조직위원회, 1999	그림 출처	

사 진-1



사 진-2



내 용

좁은 면적에 사다리꼴 모양으로 경사가 심하며, 20m까지의 고도제한, 북쪽으로의 일조건 적용의 물리적 제약조건 극복 그리고 최상층에 주택을 두고 가능한 한 넓은 면적의 사무실을 두고자 하는 건축주의 요구를 적절히 만족시킨 건축물이다.

건물로의 접근은 코어(core)를 낮은 곳에 두면서 높은 레벨로 접근하도록 하였고, 주공간의 최대한 확보를 위해 코어는 집약하여 최소화하면서 코어의 위치를 서북쪽에 두고 매스를 서쪽의 도로에서 떨어뜨려 배치하였다. 주차는 북쪽의 4m도로에서 접근시켜 낮은 레벨을 자연스럽게 이용하여 해결하였다.

특히, 좁은 대지에다가 사다리꼴 대지형 내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형(異形)의 내부공간을 사무실 용도에 효율적이도록 실의 내부를 정형화하면서 건물의 외형에 곡면을 이용하여 코어와 주공간의 접합을 자연스럽게 처리하였다.

건물의 외관에 있어서는 커튼월과 드라이비트 마감재를 사용하고 부드러운 색채를 이용하여 크게 두드러지지 않으면서 미려(美麗)하도록 계획되었다.

SUNG KYUN KWAN UNIVERSITY

■ C27-예치과 의원

건축개요		
대지위치		제주시 도남동
면적	대지면적	477.00㎡
	건축면적	284.84㎡
	연 면 적	1,595.00㎡
규모	지 상	6층
	지 하	1층
설계자(담당)		임성추
준공년도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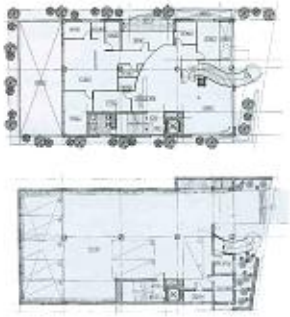
지역성 표현방법							
표현요소	표현방법	결 여 → 충 족				
		1	2	3	4	5
배치방식	관습에 의한 배치방식	●				
	자연에 대한 순응	●				
개념 해석	자의적 해석을 통해 표현		●			
외벽의 특성	제주의 주변 재료 사용	●				
지붕의 특성	자연환경에 대한 해석			●		
오브제	전통 오브제의 해석					
환경표현	바람에 대한 대응	●				
높이	가로에 대한 세로의 높이	●				

내용참고	99건축문화의해조직위원회, 전국건축문화자산-제주, 99건축문화의해조직위원회, 1999	그림 출처	

사 진-1



사 진-2



내 용

단순하면서도 소형미를 갖춘 깨끗한 매스의 구성으로 치과건물이라는 이미지를 갖도록 해야 했고, 의료시설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급속도로 변화하는 치과 의료장비 및 새로운 진료술에 대응하기 위하여 가변적 공간구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이다.

부지는 최근 새로 계획된 지역으로 제주시를 중심으로 서쪽의 신제주 지역과 동쪽의 삼양 주택개발지구를 이어주는 도로에 접한 곳으로 새로운 생활권의 중심에 위치한 지역이다.

건물을 전체적으로 건축선에서 서쪽방향에서는 5m, 동쪽방향에서는 2m 후퇴시키고, 도심축의 수용으로 도시질서에 순응하는 배치형태를 취하였다. 출입구(계단)를 정면에 배치하여 진입이 용이하게 하고 건물의 인지도와 상징성을 부여하였다. 또한, 장애자, 노약자, 어린이를 위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안쪽에 코어를 두어 새로운 치과 진료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간 활용도를 높임과 아울러 설비동선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적절한 위치에 설비 샤프트를 배치하였다. 지붕의 형태에 있어서는 부지의 위치가 동서를 잇는 도로에서 비교적 낮은 곳에 위치하여 있어서, 도로 양쪽 높은 곳에서부터 건물이 인지되는 순간에 눈의 레벨이 지붕까지 이어지므로 도시의 삭막함을 순화시키기 위하여 평지붕이 아닌 경사지붕을 도입하였다.

SUNG KYUN KWAN UNIVERSITY

■ C28-제주 산업정보대학 학생회관

건축개요		
대지위치		제주시 영평동
면적	대지면적	72,465.00㎡
	건축면적	982.77㎡
	연 면 적	3,398.19㎡
규모	지 상	3층
	지 하	1층
설계자(담당)		김유봉
준공년도		1998

지역성 표현방법							
표현요소	표현방법	결 여 → 충 족				
		1	2	3	4	5
배치방식	관습에 의한 배치방식	●				
	자연에 대한 순응	●				
개념 해석	자의적 해석을 통해 표현					●
외벽의 특성	제주의 주변 재료 사용	●				
지붕의 특성	자연환경에 대한 해석	●				
오브제	전통 오브제의 해석					
환경표현	바람에 대한 대응				●	
높이	가로에 대한 세로의 높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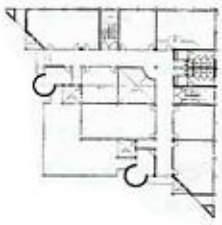
내용참고	99건축문화의해조직위원회, 전국건축문화자산-제주, 99건축문화의해조직위원회, 1999	그림 출처	

사 진-1



사 진-2





내 용

대학생 공동체의 장으로서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을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대지의 사용효율을 극대화 시키면서 한정된 공간 내에서 학생들의 편익시설 확충, 특히 1층의 중앙홀 휴게공간과 소규모의 음악회 및 놀이마당 등 문화공간과 학생들의 동아리실과 외부와의 공간과 동선의 원활한 흐름과 효율적 기능을 자연스럽게 연계되도록 의도하였다.

외부형태는 학생회관의 상징성으로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도록 비행기가 창공을 날려는 형태의 의미를 가지는 삼각형(三角形) 그리고 무한한 꿈을 키우며 미래를 준비하는 형태적 의미로서의 원(圓), 2가지 형태적 언어로 표현되어 있다.

두 개의 삼각형은 바람이 많이 제주도에서 그에 대응의 기호학적 해석에 의한 것이다.

SUNG KYUN KWAN UNIVERSITY

■ D07-서귀포시 월드컵경기장

건축개요		
대지위치		제주 서귀포시 법환동
면적	대지면적	13,041.22㎡
	건축면적	2,061.75㎡
	연 면 적	6,063.87㎡
규모	지 상	4층
	지 하	2층
설계자(담당)		일건건축
준공년도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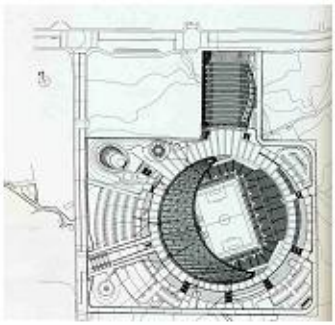
지역성 표현방법		결 여 → 충 족				
표현요소	표현방법	1	2	3	4	5
배치방식	관습에 의한 배치방식			●		
	자연에 대한 순응					●
개념 해석	자의적 해석을 통해 표현					●
외벽의 특성	제주의 주변 재료 사용			●		
지붕의 특성	자연환경에 대한 해석					●
오브제	전통 오브제의 해석					●
환경표현	바람에 대한 대응					●
높이	가로에 대한 세로의 높이					●

내용참고	건축과환경, 서귀포 월드컵경기장, 건축과환경, 2001	그림출처	

사 진-1



사 진-2



내 용

제주도의 서귀포에 위치한 경기장 부지는 한라산-고근산-신시가지-범섬을 잇는 자연축을 따라 서귀포 신시가지의 남쪽, 바다에서 약 1.2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축구경기장으로서는 협소한 면적을 갖고 있다.

제한된 대지의 크기와 방위는 운동장의 형태 및 배치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몇 가지 대안 검토 결과 경기장의 주축을 가장 이상적인 진북방향에 일치시키고 이 축이 도시축을 따라 설정된 진입축과 약 19도 정도 엇갈리도록 배치하였다. 자연스럽게 방향을 바꾸어 주는 이 진입방식은 제주 지방 특유의 진입로 배치 방식인 「올래」에서 유래한다.

이 설계에서 중점을 둔 것은 아름다운 제주도의 자연 환경을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었다. 특히 신시가지에서 바다로 향한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람석의 대부분을 지하에 두고 지상부를 최소화하였다. 가장 낮은 곳을 기준으로 땅을 깎아 경기장을 만들고, 그 주위에 최소의 구조체를 만들었으며 여기서 나온 흙으로 콘크리트 구조체를 덮어(earth-bermed) 또 하나의 '오름'처럼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하였다. 지붕은 전통뗏목인 「테우」를 재해석하였다.

SUNG KYUN KWAN UNIVERSITY

■ D08-제주 밀레니엄관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귀포시 중문동
면적	대지면적	27,881.00㎡
	건축면적	4,449.38㎡
	연 면 적	7,129.58㎡
규모	지 상	2층
	지 하	1층
설계자(담당)		현신, 건우
준공년도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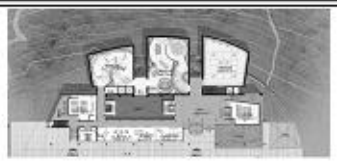
지역성 표현방법		결여→충족				
표현요소	표현방법	1	2	3	4	5
배치방식	관습에 의한 배치방식	●				
	자연에 대한 순응		●			
개념 해석	자의적 해석을 통해 표현					●
외벽의 특성	제주의 주변 재료 사용	●				
지붕의 특성	자연환경에 대한 해석	●				
오브제	전통 오브제의 해석					
환경표현	바람에 대한 대응	●				
높이	가로에 대한 세로의 높이		●			

내용참조	김동훈, 공순구, 한국박물관건축학회논문집 통권 제 6호	그림 출처	

사 진-1



사 진-2





내 용

본 건물 계획의 주안점은 상징성, 공공성, 환경성이다. 디자인 개념은 한라산, 주상절리, 양양백구이다. 즉, 검푸른 바다 한가운데 우뚝 솟은 한라산은 제주인 삶의 근원이며 드넓은 산야는 마소들의 고행이며 마을마다 넉넉한 풍요를 이루고 사람마다 인정이 넘침을 상징한다. 그리고 주상절리는 마그마가 냉각 응고함에 따라 부피가 수축하여 생기는 다각형 기둥모양의 바윗돌로 강건함, 수직성, 파도와 바람의 풍화에도 굳세게 솟아올라 그 절개를 지킴을 상징한다. 또한, 양양백구는 수평, 평화, 민주를 상징한다. 즉, 푸른 바다에 높이 나는 하얀 갈매기를 뜻하는 말로 평화로운 제주도를 상징한다.

SUNG KYUN KWAN UNIVERSITY

■ D09-서귀포 기적의 도서관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귀포시 동홍동
면적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 면 적	-
규모	지 상	2층
	지 하	-
설계자(담당)		정기용
준공년도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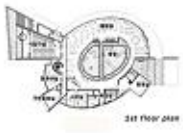
지역성 표현방법		결	여	→	충	족
표현요소	표현방법	1	2	3	4	5
배치방식	관습에 의한 배치방식	●				
	자연에 대한 순응				●	
개념 해석	자의적 해석을 통해 표현			●		
외벽의 특성	제주의 주변 재료 사용	●				
지붕의 특성	자연환경에 대한 해석			●		
오브제	전통 오브제의 해석				●	
환경표현	바람에 대한 대응			●		
높이	가로에 대한 세로의 높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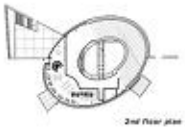
내용참고	정기용, 서귀포 기적의 도서관, 공간, 2004	그림출처	

사 진-1



사 진-2





내 용

이 건물은 한라산과 멀리 보이는 바닷가를 끌어들인다. 출발 공원위에 서면 한라산도 보이고 멀리 바닷가도 보인다. 도서관 중정에 있는 몇 그루의 소나무를 에워싸서 보살피고 소나무와 한라산과 바다 사이 틈새로 생긴 지혜의 「오름」이며 조용히 책 읽는 소라의 집이다.

SUNG KYUN KWAN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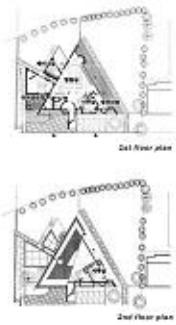
■ C29-제주시 기적의 도서관

건축개요			지역성 표현방법							
대지위치		제주시 이도2동	표현요소	표현방법	결여→충족				
					1	2	3	4	5
면적	대지면적	-	배치방식	관습에 의한 배치방식	●				
	건축면적	-		자연에 대한 순응	●				
	연 면 적	-	개념 해석	자의적 해석을 통해 표현				●	
규모	지 상	2층	외벽의 특성	제주의 주변 재료 사용	●				
	지 하	1층	지붕의 특성	자연환경에 대한 해석				●	
설계자(담당)		정기용	오브제	전통 오브제의 해석					
			환경표현	바람에 대한 대응				●	
준공년도		2004	높이	가로에 대한 세로의 높이			●		
내용참고	정기용, 제주 기적의 도서관, 공간, 2004		그림출처						

사 진-1



사 진-2



내 용

개울가. 동네 한복판에 서있는 어린이 도서관은 한라산의 완만한 경사면을 닮고, 비가 오면 지붕에서 내리는 물이 폭포수를 만든다. 또한 지붕 위에 억새풀이 자라날 경사진 들판이다. 바람을 가르며 나는 새와 같이 삼각형 모양의 제주 기적의 도서관은 풍경과 정원을 담는다.

SUNG KYUN KWAN UNIVERSITY

■ C38-제주 전문건설회관

건축개요		
대지위치		제주시 노형동
면적	대지면적	1,070.00㎡
	건축면적	685.07㎡
	연 면 적	4,851.55㎡
규모	지 상	9층
	지 하	2층
설계자(담당)		이충기
준공년도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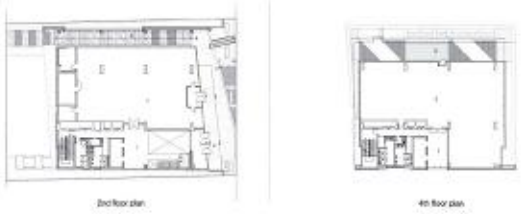
지역성 표현방법							
표현요소	표현방법	결 여 → 충 족				
		1	2	3	4	5
배치방식	관습에 의한 배치방식	●				
	자연에 대한 순응	●				
개념 해석	자의적 해석을 통해 표현	●				
외벽의 특성	제주의 주변 재료 사용	●				
지붕의 특성	자연환경에 대한 해석				●	
오브제	전통 오브제의 해석					
환경표현	바람에 대한 대응	●				
높이	가로에 대한 세로의 높이	●				

내용참조	이충기, 제주 건설전문회관, 건축문화, 200511	그림 출처	

사 진-1



도 면



내 용

대지 주변은 열대 가로수를 제외하면 제주도의 정취나 풍경을 찾기 어려운 제주시의 신시가지이다. 대지는 전면 도로부나 후면도로가 3m 정도 낮은 레빨이다. 좌측 옆 대지에는 바로 건물이 붙어있고 우측은 아직 비어있다. 오피스 빌딩의 디자인은 특성상 코어 면적과 임대면적의 비율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후면의 레벨을 고려하여 코어 위치를 정하고 전후면도로를 연결하는 공공의 통로를 두어 주민들에게 휴식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중요한 개념이다. 이 통로는 계단의 형태로, 휴게벤치 등을 도성하여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였다. 형태적으로 측면의 동서방향은 솔리드한 면으로, 남북방향은 한라산과 제주바다를 연결하는 시각적 개방감과 이미지축을 고려해 투명한 커튼월로 처리하였다. 솔리드 한 외피 면의 연속성을 강조하여 표현함으로 오피스의 일반적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했고 동쪽의 솔리드 한 벽은 안으로 경사진 면을 계획하여 긴장감을 유도하였다.

SUNG KYUN KWAN UNIVERSITY

■ C30-다음 글로벌 미디어센터

건축개요		
대지위치		제주시 오등동
면적	대지면적	9,917.25㎡
	건축면적	1,970.36㎡
	연 면 적	5,071.49㎡
규모	지 상	3층
	지 하	1층
설계자(담당)		유석연
준공년도		2006

지역성 표현방법		결	여	→	충	족
표현요소	표현방법	1	2	3	4	5
배치방식	관습에 의한 배치방식	●				
	자연에 대한 순응			●		
개념 해석	자의적 해석을 통해 표현					●
외벽의 특성	제주의 주변 재료 사용	●				
지붕의 특성	자연환경에 대한 해석				●	
오브제	전통 오브제의 해석					
환경표현	바람에 대한 대응					●
높이	가로에 대한 세로의 높이		●			

내용출처	유석연, 다음 글로벌 미디어센터에 대한 소고, 건축과 환경, 2006	그림출처	좌 동

사 진-1



사 진-2



내 용

제주의 바람과 「다음(多音)」이라는 기업개념을 모티브로 다양한 소리가 모아지는 「관악기wind instrument」라는 최초의 개념을 설정하였다. 바람의 세기와 양을 조절하여 원하는 소리를 내는 관악기나 파이프 오르간의 소리통처럼 업무, 지원복지, 공공이라는 세 가지 큰 축의 기능을 하나의 공간 안에서 조절하려는 것이다. 건물을 남북 간 수직축으로 잘라 벌리고 그 사이에 대지의 경사를 그대로 갖는 옥외공간을 조성하고, 여기에 면하여 공용공간과 주요 동선을 배치함으로써 구체화하였다. 외부공간을 포함한 각 기능프로그램들은 소리통에 붙여가는 방식으로 자리하며, 여기에 흐름을 조절하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여 커뮤니케이션과 노출의 정도를 조절하고자 하였다.

SUNG KYUN KWAN UNIVERSITY

■ C31-제주 대학교병원

건축개요		
대지위치		제주시 아라동
면적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 면 적	75,553.00㎡
규모	지 상	5층
	지 하	3층
설계자(담당)		삼우
준공년도		2009년 준공 예정

지역성 표현방법		결 여 → 충 족				
표현요소	표현방법	1	2	3	4	5
배치방식	관습에 의한 배치방식					●
	자연에 대한 순응					●
개념 해석	자의적 해석을 통해 표현				●	
외벽의 특성	제주의 주변 재료 사용	●				
지붕의 특성	자연환경에 대한 해석	●				
오브제	전통 오브제의 해석					
환경표현	바람에 대한 대응	●				
높이	가로에 대한 세로의 높이				●	

내용참고	SAMOO, 2006 SAMOO works, SAMOO, 2006	그림출처	좌 동

사 진-1



사 진-2



내 용

2003년 현상설계에 1등으로 당선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제주대학교 병원의 구체적 주안점은 교육, 연구, 진료를 함께 수행해 나가야 하는 대학 병원 본연의 위상에 부응한다. 배치계획에서 제주의 천혜의 자연환경과 특유의 건축적 전통에 대한 경의를 드러내고자 했다. 건물들은 남북의 자연축 위에 엇갈려 배치된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다양한 외부 공간, 즉 진입을 위한 유도 공간 「올래」, 바다를 향해 열린 조망 공간 「밖마당」, 병동 사이의 아늑한 치유 정원 「안마당」, 한라산을 향한 여유 공간 「안뒤」가 형성된다. 이 외부 공간들은 하늘의 정기를 받아 인간의 생명을 회복하는 치유와 기원의 장소라는 상징성을 위계적으로 표현하며, 병원의 이용객들이 산책과 휴식을 통해 자연의 생명력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탄생할 것이다. 또한, 병원이 들어설 부지는 제주도의 자연환경이 그렇듯, 제주 앞바다와 한라산을 잇는 자연축을 따라 남고북저로 길게 나 있었다. 즉, 한라산과 바다를 연결 축으로 설정했는데, 이 남북의 자연축은 오름에 대한 상징이자 호스피텔 스트리트의 선형축으로 기능한다.

SUNG KYUN KWAN UNIVERSITY

■ B07-애월 문화체육관

건축개요		
대지위치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면적	대지면적	-
	건축면적	48,567.00㎡
	연 면 적	2,279.00㎡
규모	지 상	-
	지 하	-
설계자(담당)		김석윤
준공년도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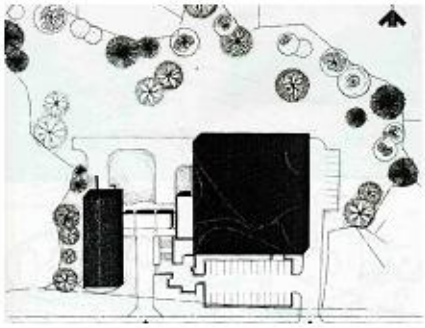
지역성 표현방법							
표현요소	표현방법	결 여 → 충 족					
		1	2	3	4	5	
배치방식	관습에 의한 배치방식				●		
	자연에 대한 순응		●				
개념 해석	자의적 해석을 통해 표현					●	
외벽의 특성	제주의 주변 재료 사용					●	
지붕의 특성	자연환경에 대한			●			
오브제	전통 오브제의 형상화						
환경표현	바람에 대한 대응	●					
높이	가로에 대한 세로의 높이			●			

내용참고	99건축문화의해조직위원회, 전국건축문화자산-제주, 99건축문화의해조직위원회, 1999	그림 출처	

사 진-1



사 진-2



내 용

애월 문화체육관은 제주시에서 서측 일주도로로 약 20분 거리에 있다. 일주도로변에 위치하며 지형에 대한 이해와 전체 대지에 대한 순응하여 배치되었다. 기능에 의한 채 나눔은 전통민가를 재해석 한 것이다. 또한 채 나눔의 수법은 경사진 대지의 공간을 다양하게 분할하고 있으며 접근로에서의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육관이라는 커다란 덩어리를 낮게 배치시키고 있어 기존 경관과 조화를 꾀하고 있다. 긴장된 지붕의 곡면은 제주 자연석으로 마감된 벽체에 이르러 감정이 이완되며 자연석 벽체는 곡면 지붕 실루엣과 지표면의 공간적 연결을 기도하고 있다.

SUNG KYUN KWAN UNIVERSITY

■ B05-이기풍 선교회관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귀포시 조천읍 와흘리
면적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 면 적	6,412.27㎡
규모	지 상	2층
	지 하	1층
설계자(담당)		-
준공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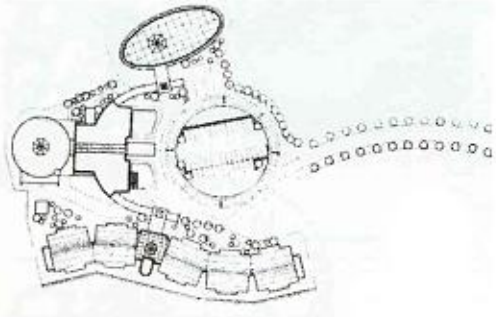
지역성 표현방법		결	여	→	충	족
표현요소	표현방법	1	2	3	4	5
배치방식	관습에 의한 배치방식				●	
	자연에 대한 순응				●	
개념 해석	자의적 해석을 통해 표현	●				
외벽의 특성	제주의 주변 재료 사용					●
지붕의 특성	자연환경에 대한		●			
오브제	전통 오브제의 형상화					
환경표현	바람에 대한 대응	●				
높이	가로에 대한 세로의 높이				●	

내용참고	99건축문화의해조직위원회, 전국건축문화자산-제주, 99건축문화의해조직위원회, 1999	그림 출처	

사 진-1



사 진-2



내 용

광활한 촌지와 오름들이 즐비한 한라산의 중산간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기풍 목사의 선교정신을 기념하고 그 뜻을 후세에 전하고자 건축된 것이다. 기하학적인 사무동 건물을 중심으로 좌우에 각각 대예배동과 기도원동이 배치되어 말굽형태의 배치가 되면서 중앙광장을 갖는다. 각 동들은 그 기능에 맞게 서로 다른 기하학적 형태를 취하면서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갖는다. 특히, 기도원동의 자유스런 형태는 시각적으로 즐거움을 준다. 주요 마감 재료는 현무암과 송이를 사용하였고 커튼월과 천창을 많이 사용하여 주변의 훌륭한 자연환경을 건물 내로 수용하고 있다.

SUNG KYUN KWAN UNIVERSITY

■ C33-제주테우

건축개요		
대지위치		제주시 외도동
면적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 면 적	761.60㎡
규모	지 상	4층
	지 하	1층
설계자(담당)		한동신
준공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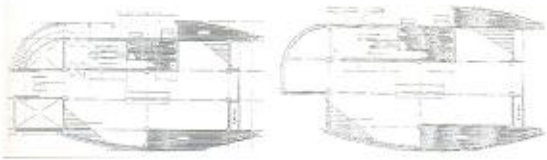
지역성 표현방법							
표현요소	표현방법	결 여 → 충 족				
		1	2	3	4	5
배치방식	관습에 의한 배치방식	●				
	자연에 대한 순응		●			
개념 해석	자의적 해석을 통해 표현					●
외벽의 특성	제주의 주변 재료 사용	●				
지붕의 특성	자연환경에 대한 해석					●
오브제	전통 오브제의 해석					
환경표현	바람에 대한 대응				●	
높이	가로에 대한 세로의 높이	●				

내용참고	99건축문화의해조직위원회, 전국건축문화자산-제주, 99건축문화의해조직위원회, 1999	그림 출처	

사 진-1



도 면



내 용

제주시에서 애월 방향으로 일주도로를 따라 진행하다보면 도로변 바닷가 쪽에 위치하고 있는 상업건물이다. 주변의 녹지지역과 바다에 접한 대지에 위치한 건물의 이미지 차원에서 보면, 주변과의 조화가 이 건물 디자인의 가장 큰 요소이다. 이러한 디자인적 측면이 건물의 주 용도가 식당이라는 기능적인 면과 연관되어서 시각적으로 흥미를 유발하고 대중의 관심을 끌도록 하는 기준설정이 모티브가 되고, 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구현이 이 건물이 갖고 있는 과제이다. 도로변에서 접근하면서 바람에 의해 생성된 파도의 흐름을 연상시키는 역동적인 지붕의 모습이 주변의 스카이라인에 긴장을 주면서, 이곳이 바로 제주의 바다와 자연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쉼터라는 냄새를 풍기게 한다. 또한 단순한 매스가 아닌 부분적으로 기능적인 공간의 매스들이 덧붙여지면서 재미있고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특히, 입면의 패턴변화를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창을 도입하였다. 1층 입구에 있는 선큰의 외부계단을 따라 지하 1층으로 내려가 보면, 실내 출입문에서 반대편 입구 너머로 보이는 제주의 바다가 시야를 가득 메우며 새로운 공간으로 향하도록 한다. 북측의 입면을 모두 유리로 처리함으로써 음식만 쳐다보는 다른 식당들과는 달리 외부의 시선을 유도하고, 밖으로 내다보이는 파란 바다로 인한 생동감이 있는 자연의 맛을 그대로 실내로 끌어들일 수가 있다.

SUNG KYUN KWAN UNIVERSITY

■ C36-호텔하니 크라운(구 제주관광호텔)

건축개요		
대지위치		제주시 이도1동
면적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 면 적	1289.00㎡
규모	지 상	4층
	지 하	1층
설계자(담당)		김태식
준공년도		1963

지역성 표현방법							
표현요소	표현방법	결 여 → 충 족				
		1	2	3	4	5
배치방식	관습에 의한 배치방식	●				
	자연에 대한 순응	●				
개념 해석	자의적 해석을 통해 표현	●				
외벽의 특성	제주의 주변 재료 사용				●	
지붕의 특성	자연환경에 대한 해석	●				
오브제	전통 오브제의 해석					
환경표현	바람에 대한 대응	●				
높이	가로에 대한 세로의 높이		●			

내용참고	99건축문화의해조직위원회, 전국건축문화자산-제주, 99건축문화의해조직위원회, 1999	그림 출처	

사 진-1



사 진-2



내 용

제주도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본격적인 호텔건축이다. 진입부의 반대편에 정원을 설치함으로 독립적인 외부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전면도로가 확장되면서 주출입구 부분의 여유 공간이 부족하고 인접된 삼성혈(문화재) 등의 문화시설에 대한 건축적 인식이 약한 점이 아쉽게 느껴진다. 주출입구에 들어서면 중앙 홀이 있는데 이를 중심으로 커피숍과 식당 등 부대시설의 내부 중정을 향하여 배치되어 있다. 중앙계단은 2층 연회장을 위한 것이고, 객실을 위한 계단은 별도 독립적으로 설치하여 기능적인 분리를 이루고 있다.

SUNG KYUN KWAN UNIVERSITY

■ A05-핀크스 골프클럽하우스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면적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 면 적	2,295.95㎡
규모	지 상	2층
	지 하	-
설계자(담당)		이타미 준
준공년도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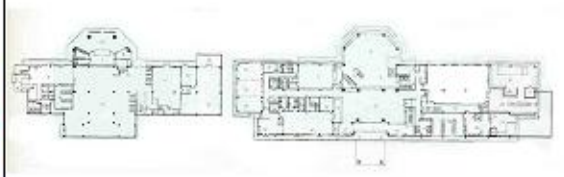
지역성 표현방법		결여→충족				
표현요소	표현방법	1	2	3	4	5
배치방식	관습에 의한 배치방식	●				
	자연에 대한 순응				●	
개념 해석	자의적 해석을 통해 표현			●		
외벽의 특성	제주의 주변 재료 사용	●				
지붕의 특성	자연환경에 대한 해석					●
오브제	전통 오브제의 해석				●	
환경표현	바람에 대한 대응	●				
높이	가로에 대한 세로의 높이				●	

내용참고	99건축문화의해조직위원회, 전국건축문화자산-제주, 99건축문화의해조직위원회, 1999	그림 출처	

사 진-1



사 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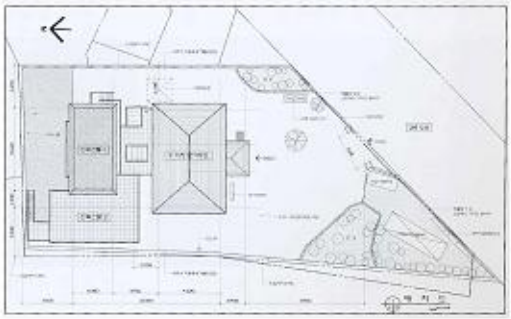
내 용

제주의 자연경관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오름(기생화산)이다. 거친 바람으로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광활한 목초지 사이에 솟아오른 오름의 연속은 제주만이 주는 또 다른 감동이다. 제주도 중턱에 위치한 핀크스골프 클럽은 그러한 주변 경관을 갖고 있다. 마라도, 가파도가 송악산과 산방산 두 오름 사이로 보이며 그 너머엔 남태평양의 끝없는 수평선이 한눈에 들어온다. 대지의 경사로 인하여 2층 부분이 주출입구가 되어 남북 측의 경관을 오픈 스페이스로 확보하고 있다. 항상 부는 강한 바람을 의식하는 듯 한 모습의 톱라이트가 날렵하게 솟아 있어 지나치게 가라앉을 수도 있었던 모임지붕의 일의성(一義性)을 다양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식당, 연회장 등 이용객의 중요한 공간을 모두 남측의 환한 창에 면하게 계획하여 전면에 펼쳐지는 코스와 화려한 경관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어서 편안한 느낌이다. 경사부지에 계획되는 일반적 층별 계획이 여기에서도 수용되어 1층이 카트고 등 준비실이 있고 2층이 식당, 연회장, 라운지 등 대기실이 배치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대칭에 강한 집착과 해석으로 좋은 경관에 조화를 이루고 있는 작품이다.

SUNG KYUN KWAN UNIVERSITY

■ A04-대정보건소(구 대정면사무소)

건축개요			지역성 표현방법							
대지위치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표현요소	표현방법	결여→충족				
					1	2	3	4	5
면적	대지면적	1,632.00㎡	배치방식	관습에 의한 배치방식	●				
	건축면적	142.08㎡		자연에 대한 순응	●				
	연 면 적	284.16㎡	개념 해석	자의적 해석을 통해 표현	●				
규모	지 상	2층	외벽의 특성	제주의 주변 재료 사용					●
	지 하	-	지붕의 특성	자연환경에 대한 해석			●		
			오브제	전통 오브제의 해석					
설계자(담당)		제주도 건설국 서무과	환경표현	바람에 대한 대응	●				
준공년도		1955	높이	가로에 대한 세로의 높이	●				
내용참고		문화재청, 제주 구 대정면사무소 기록화 보고서, 2006, 문화재청	그림 출처						

사 진-1	사 진-2
	

내 용

대정면사무소로 건립되었다가 현재는 대정보건소로 이용하고 있다. 뒷부분은 부속 건물로 1996년 증축되었는데 하얀색 벽체가 현무암과 대조를 이루어 주 건물이 강조가 된다.

이 건물은 품위와 넓은 실내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변에 많이 있는 재료인 현무암을 사용해서 값싼 임금의 석공들이 석공을 가공하여 벽체를 만들고 트러스 지붕을 올리는 지극히 소박한 건축물이었다. 현무암 조적건물에 어떤 양식을 적용했던 것은 아니며, 제주의 강한 바람 때문에 처마길이는 지극히 짧을 수밖에 없었고, 이시기에 조적조건물의 공통점인 세로로 긴 창문을 두고 있다. 또한 현관이 전체 매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 벽체는 안쏠림 기법을 쓰고 있다.

SUNG KYUN KWAN UNIVERSITY

■ C34-탐라교육원 연수동

건축개요		
대지위치		제주시 오라동
면적	대지면적	330.00㎡
	건축면적	1,027.85㎡
	연 면 적	1,510.70㎡
규모	지 상	2층
	지 하	1층
설계자(담당)		강행생
준공년도		1992

지역성 표현방법							
표현요소	표현방법	결 여 → 충 족				
		1	2	3	4	5
배치방식	관습에 의한 배치방식	●				
	자연에 대한 순응	●				
개념 해석	자의적 해석을 통해 표현	●				
외벽의 특성	제주의 주변 재료 사용					●
지붕의 특성	자연환경에 대한 해석			●		
오브제	전통 오브제의 해석					
환경표현	바람에 대한 대응			●		
높이	가로에 대한 세로의 높이		●			

내용참고	건축문화, 탐라교육원 연수동, 건축문화, 1992	그림출처	

사 진



도 면



내 용

이 건물의 계획방향은 교육연수자의 요구와 생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과 자연환경의 고려이다. 또한, 목적에 적합한 각 공간의 유기적 연결 및 외관처리가 중요한 계획 방향이다. 계획 기준은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소박하고 품위 있는 교육환경 조성 2. 방향성 및 축 고려 3. 수평 수직 및 완만한 경사에 의한 비례감 형성 4. 지역성 강조 5. 교육자들을 위한 쾌적한 주위환경 조성

벽체와 지붕에서 보여 지는 재료는 이 지역에서 나는 현무암과 송이를 주재료로 섰다.

SUNG KYUN KWAN UNIVERSITY

■ A01-강병대 교회

건축개요		
대지위치		남제주군 대정읍 상모리
면적	대지면적	-
	건축면적	595.05
	연 면 적	595.05
규모	지 상	1층
	지 하	-
설계자(담당)		국군 공병대
준공년도		1952

지역성 표현방법							
표현요소	표현방법	결 여 → 충 족				
		1	2	3	4	5
배치방식	관습에 의한 배치방식	●				
	자연에 대한 순응	●				
개념 해석	자의적 해석을 통해 표현	●				
외벽의 특성	제주의 주변 재료 사용					●
지붕의 특성	자연환경에 대한 해석			●		
오브제	전통 오브제의 해석					
환경표현	바람에 대한 대응				●	
높이	가로에 대한 세로의 높이				●	

내용참고	제주도, 제주도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사업, 제주도, 2003	그림 출처	

사 진-1



사 진-2



내 용

신앙을 담는 그릇으로서 종교건축은 동서양을 통하여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문화의 근원이 종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인지 모를 일이다. 음악이 종교예식의 양념이라면 건축은 그릇이라고 할 수 있다. 사찰, 성당, 사원 등은 동서양 종교건축을 대표하는 것들로 서양의 종교건축이 동양의 그것보다 오래되었는데 그것은 재료에 기인한다. 대부분 건축 재료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그 지방의 기후적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하는데 서양에서는 돌, 동양에서는 나무를 많이 사용하였다. 1952년 건립된 강병대교회는 서양 고딕식 건축양식에 충실하려 하였던 흔적이 역력하다. 뾰족 첨탑과 늑골궁륭(아치형 문, 창 등), 스테인드글라스 등은 중세 고딕건축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것으로, 아마 처음 설계와 시공을 담당하였던 누군가에 의해 의도된 것으로 보여 진다.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전장에 내보내기 위하여 제1훈련소를 서귀포시 대정읍에 개소하게 되었다.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위치한 강병대교회는 제9대 훈련소장이었던 장도영장군에 의하여 훈련장병의 정신무장을 위하여 건립되었다.

서양 고딕건축을 지향하였지만 건축소재의 선택에 있어서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제주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현무암 조적조에 의해 건축되었다.

SUNG KYUN KWAN UNIVERSITY

SUNG KYUN KWAN UNIVERSITY

▶ ABSTRACT

SUNG KYUN KWAN UNIVERSITY

SUNG KYUN KWAN UNIVERSITY

The study on the regional characteristic expressed in Jeju island buildings since the modern age

- Centering around the not-residential building

Han, Dong-Oh
Department of Architecture
Master Course in Graduate School
Sungkyunkwan University
Advised by Prof. Yoon, In-Suk

Jeju island is different from the land in not only the geographical characteristic but also the social characteristic. From long time ago, Jeju Island has been spoken as the images such as 「Hometown of the Gods」, 「Hometown of the legends」, 「Treasure house of the folk customs」, 「Paradise of Korea」, 「500 shrines and 500 temples」, 「Persons to Seoul, Horses to Jeju」, etc. And recently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Island」 and the performance of 「International Fee City Special Law」, etc have such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the land.

Like that, although the geographical characteristic have had many effects on the process that the architecture of Jeju Island is built and the social characteristic is expected to have many effects on the construction of Jeju architecture in future, the development-oriented plan is expected to be appeared as the problem of the poorness of the regional characteristic of Jeju Island as it is known in the contents of the policy of International Free City which is pursued by Jeju Island.

SUNGKYUNKWAN UNIVERSITY

And the necessity of the various studies is felt, the preceding studies are referred and the range of study covers the not-residential building since the modern age.

Accordingly, this study has the purpose of finding out the expression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al characteristic of Jeju Island and studying the expression characteristics of Jeju characteristic appeared at the not-residential buildings centering around the not-residential building of Jeju Island since the modern age. And further there is another purpose of making this study utilized as the basic materials for the plan and the realization of the building that Jeju characteristic is alive at the buildings to be constructed in future.

Jeju characteristics disclosed through the study were known to be expressed like the followings.

The first is the arrangement method. And the arrangement method can be largely classified into two kinds. One is the method as borrowing or re-interpreting the arrangement method of the traditional private house of Jeju Island and another is the method of the arrangement as corresponding to the surrounding(natural) environment of Jeju Island.

The second is the concept interpretation. The concept interpretation is the method which is re-interpreted and architecturally expressed through the artist's imaginations or the rational design process with the motives like the natural environment or the custom of Jeju Island and the arrangement method of the private houses, etc.

The third is the characteristic of outer wall. The characteristic of outer wall means the expression method of an artistic design, especially the method which expresses the materials and the stand-side characteristic of the traditional private houses through the re-interpretation of the architect.

The fourth is the characteristic of roof. The characteristic of roof means the method that the materials of roof and the roof express the shape effectively corresponding to the nature(especially, means the rain and the wind).

The fifth is the objet. The objet means the objet of architecture through the

SUNG KYUN KWAN UNIVERSITY

traditional symbolic buildings of Jeju Island.

The sixth is the environmental expression. The environmental expression is about how the corresponding method to the wind is interpreted structurally and spacially and expressed.

The seventh is the height. The height, as the matter about the scale, means the height of the vertical to the horizontal.

The suggestion through which the sustainable identity of the architectural culture of Jeju Island through the above matters is available. And the above matters should express the souls, the spirits and the wisdoms(substances) of life of the residents of Jeju Island which are contained in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rather than the visual or straightforward interpretations of the factors of them.

SUNG KYUN KWAN UNIVERSITY